

LHRI magazine

북한건설 개발동향

2024년
3,4분기

| 이슈진단 |

- 미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전망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평가 및 전망
- 김정은시대 평양시 살림집건설 현황과 종합평가

| 건설·개발 주요동향 |

-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
- 2024년 3, 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북한 스마트건설과 건재 기술개발 동향
- 2024년 국가예산 집행결과와 2025년 국가예산 계획
- 평안북도, 자강도 홍수 피해 및 복구 현황

| 건설·개발동향 분석 |

-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종합 및 시사점 |

-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3,4분기 종합 시사점

| 부록 |

- 조사 개요
- '24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 동향 자료

NORTH KORE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북한건설·개발동향」은 북한 건설·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북한의 건설인프라 동향 파악을 위해 북한 등 발행매체(노동신문, 조선신보)의 관련 기사를 시설유형별, 단계별, 지역별로 집계·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북한의 주요 학술논문과 한국의 매체 등도 검토하여 연 2회(7월, 2월) 발간됩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글로벌/북한연구센터

이승지 수석연구원(총괄), 정연우 센터장, 최대식 연구위원, 김두환 연구위원,
송상훈 연구위원, 임수현 주임연구원, 김소연 주임연구원

CONTENTS

이슈진단

- 004 미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전망
- 014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평가 및 전망
- 026金正은시대 평양시 살림집건설 현황과 종합평가

건설·개발 주요동향

- 044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
- 048 2024년 3,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052 북한 스마트건설과 건재 기술개발 동향
- 060 2024년 국가예산 집행결과와 2025년 국가예산 계획
- 063 평안북도, 자강도 홍수 피해 및 복구 현황

건설·개발동향 분석

- 070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072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096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종합 및 시사점

- 104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108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10 3,4분기 종합 시사점

부록

- 114 조사 개요
- 120 '24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 자료

2024년
3,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

발행처 LH토지주택연구원 | 주소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전화 042-866-8326 | E-mail sjlee268@lh.or.kr | 홈페이지 lhri.lh.or.kr | 발행인 정창무 | 편집인 글로벌/북한연구센터 | ISSN 2951-1488 비매품 | 발행일 2025년 2월 21일 | 디자인·인쇄 (주)에이퍼브

PART 1

이슈진단

I s s u e R e v i e w



미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전망

하경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트럼프의 귀환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의 제45대 대통령 임기 이후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도전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재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된 초대형 법적 위기를 딛고, 그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배경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그의 정치 철학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를 더욱 강력히 구현하는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중심에 둔 대외정책의 부상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는 다시금 새로운 불확실성의 파고(波高)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의 재취임 연설에서 강조된 국경 안보 강화, 군사적 역지력 확대, 에너지 패권 회복, 경제적 디커플링 등의 기조는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특

히, 중국·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현상파(revisionist) 세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은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 또한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외교적 이슈에서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였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집행과 강화된 대중국 전략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일 삼각 협력, 그리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관계는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향후 4년 동안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적 접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적·안보적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 기조는 고립주의적 접근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그의 정책은 국제적 관여를 배제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에 집중”하려는 현실주의적이며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¹ 대외정책 추진 시 가치나 규범, 또는 국제정치의 기존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다자기구나 협약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며, 미국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일방주의적(unilateral)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고, 각 국가가 자국의 역할과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철학이 재강조될 것이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NATO 동맹국들의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요구와 같은 정책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미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적 규범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관세 정책 강화와 무역 협정 재검토는 미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을 통해 관세와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대중국 전방위 압박:

제로섬의 헤게모니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주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제로섬적 헤게모니 경쟁 구도 속에서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차원적인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화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한다.²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 제재와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예상된다. 이는 동맹국에게도 기술 협력과 공급망 재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

1 Andrew Byers and Randall Schweller, "Trump the Realist: The Former President Understands the Limi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July 2024).

2 Matt Pottinger and Mike Gallagher, "No Substitute for Victory: America's Competition With China Must Be Won, Not Managed," *Foreign Affairs*, Vol. 103, No. 3 (May/June 2024),

사력을 증대하고,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과 같은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관리하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접근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적 기질을 십분 발휘하여, 대외적으로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면서도 언제든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관세를 통한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트럼프는 본인이 독재국가의 지도자들과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현재와는 상반된 모습의 미중 경쟁구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러우전쟁 종전과 중동분쟁 해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해결을 통해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안보와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자신의 외교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빠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접근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피로감과, 미국 내 재정 및 군사적 부담 완화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전략이 러시아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을 초

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간 협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러우전쟁 종전 전략은 러시아의 야심을 견제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2025년 초에 성사되어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동 외교 전략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휴전 협정을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재확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1기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재활성화하여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간 외교적 정상화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와 규범 중심의 기존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 거래에 기반한 방향성을 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국제규범보다는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안보와 경제 환경,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트럼프 2기의 한미관계 전망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

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주둔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외교적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1. 한미동맹의 도전 요인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2기 한미관계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2024년 10월, 후보시절 대선 간담회 중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의 동맹관이 전통적 가치 중심이 아니라 거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방위비 협상의 압박 수단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 성과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며 이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사업가의 협상 방식"으로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압박 카드

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군의 불필요한 해외 주둔을 줄이고 방위비용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높이겠다는 트럼프의 기조가 주한미군 운용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핵 동결 등 스몰 딜(small deal)을 대가로 성사될 미북 정상회담은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선호하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어설픈 군축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와 역내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북 협상이 한반도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2. 한미동맹의 기회 요인

한편, 한국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함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은 기회요인 또한 제공한다. 첫째, 한미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는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업 및 선박 유지·보수·운영(MRO) 역량을 활용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해양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 및 조선분야 인프라 보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한국과 같은 조선업 발전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중국 인도-태평양전략에 있어 핵심 공조 기제로서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활용이다. 한미일 3자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Camp David Summit)으로 대표되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야이다. 한미일 협력은 군사적 공조를 넘어,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확대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와 인태지역 안정을 위한 핵심 소다자 안보 협력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확대된 핵 옵션 논의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 내 핵심 의원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비확산체제의 안정성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북핵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방위 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핵 옵션 논의를 확장하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제한된 수준이라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주국방 역량과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기술적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가능성 또한 열어갈 수 있다.

3. 한미관계의 변화된 양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한미동맹에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익과 거래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가능성이 크다. 확대된 핵 옵션 논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산 협력 확대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삼각 협력 주도에는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들 또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와 기술 협력으로 확대되는 길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더이상 비대칭적 안보 의존국으로 남아있지 않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파트너 국가로서 윈-윈 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대미 외교에서 새로운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IV.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 전망

1. 트럼프의 귀환과 북한: 두 가지 질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장기화되어가는 러

³ Morgan Ortugus, "America First, NATO, and U.S. Alliances: Why America First is Not Isolationism," in Fred Fleitz ed.,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2024), pp. 141-158.

시아-우크라이나 등 변화된 국제 정세와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우전쟁의 종전 가능성과 미북 정상회담 재개 여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질문1] 러우전쟁 종전 시 러북 밀착은 지속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러우전쟁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외교적 협상을 통한 신속한 종전을 약속했다. 실제 24시간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 중 하나가 러우전쟁 종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러우전쟁 종전을 위한 전략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군사·재정적 개입을 줄이려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러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종전 후에도 러북 밀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⁴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경제적 의존 관계를 강화해왔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병력과 군수품을 공급 받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 모두 신냉전 구도를 강화해가며 반-서방 연대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의견이다.

반면, 종전 후 러북 관계 약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⁵ 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러북 관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북한과의 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전후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전략적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질문2]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재추진될 것인가?

러우전쟁 종전 이후 러북관계 향방에 따라 미국과 북한 양국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그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미국은 다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 양국 정상들의 회동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나뉘어 있다.

우선,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선호와 성향상, 자신의 외교적 성

4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 여(Andrew Yeo) 한국석좌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Andrew Yeo and Hanna Foreman, “What do North Korean troop deployments to Russia mean for geopolitics?” Bookings Commentary (October 29, 2024).

5 RAND 연구소 벤자민 영(Benjamin Young)의 주장을 참고: Benjamin R. Young, “Russia and North Korea’s Partnership of Pariahs: Will it Last?” *National Interest* (October 4, 2024)

과를 부각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하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의 협상가적 기질과 정상회담 중심의 "탑다운(top-down)" 접근 방식은 다시 한번 북한과의 핵 협상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으며, 대북정책 실무를 담당할 주요 포지션에 측근을 기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전 조율 없는 성급한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이벤트성 외교에 그칠 위험도 상존한다.⁶

한편, 트럼프 2기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의 협상 실패로 대내외적 망신을 경험한 김정은은 트럼프에 매우 분노한 바 있으며, 또한, 러북 군사협력을 통해 전략적 공간이 생긴 김정은이 쉽게 협상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1기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훨씬 더 발전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할 때에 동맹국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북한에 과도한 양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한 개인적, 국제정치 구조적 역학관계가 트럼프 1기 정부 때와는 매우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

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본인만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겠으나, 실제로 회담장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기 위한 사전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제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중 전략경쟁의 연장선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북한 이슈를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과 연계되어 북한 문제를 중국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 기초의 단초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자료는, 2024년 공화당 정강정책(platform)이다.⁷ 이번 정강정책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제외되었다. 이는 2012년과 2016년 정강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언급했던 공화당의 전통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것이다(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짧은 결의로 정강정책을 대신함). 북한 비핵화가 공화당의 정강에서 빠진 것은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보다 유연한 군축 협상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일정 부분 묵인 또는 인정하며, 비핵화 대신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⁶ 존 볼턴(John Bolton)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나려 할 것”이며, 총성과 참모들이 예측할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Radio Free Asia, 2024.10.2, “[Interview] Trump 'would love to see his friend Kim Jong Un again'”

⁷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July 2024).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이 되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과 김정은과의 교류 경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추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재선 캠페인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필요시 미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북한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며, 이 카드는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3. 핵심 인선을 통해 본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전 독일대사이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평가한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을 대북 특사로 임명하였고, 1기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왕(Alex Wong)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하였다. 이와 같은 인물들을 대북정책 핵심 인선으로 기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러한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강조했던 정상외교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으며, 그의 측근과 1기 경험자들을 다시 배치함으로써 정

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북미 관계를 복원하려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첫 임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2기 행정부에서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유산을 재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측근과 신뢰받는 참모진을 배치함으로써 협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연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바이트 행정부와외의 외교적 차별화를 시도하며,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평화 조성자(Peacemaker)"임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러한 인선은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제재와 협상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처드 그레넬과 같은 강경파 인사를 대북 협상에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알렉스 왕과 같은 실무 중심의 협상 경험자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문제를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를 국무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적 구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트럼프

는 미북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 하에서 북한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김과 동시에 대외정책의 차별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트럼프 2기의 생존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전망은 한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거래적 동맹관리와 강경한 대중국 전략은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인 대중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맹국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프레임이 되어줄 수 있으며 ‘거래’의 측면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한일간의 끈끄러운 역사문제와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소다자 프레임으로 완회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만,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한-일-중 등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이다. 러북 군사협력에 따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방어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약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협의그룹(NCG)의 유산을 이어감과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 추가적인 핵 옵션 등에 대해 성역을 두지 않고 실질적 논의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북 정상회담 재개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더라도 첫째 임기의 협상 실패 경험에 따라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전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우리의 안보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비핵화와 대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메시지와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맞이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 자주국방 역량 확대,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는 한국이 글로벌 위상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안정과 연속성 있는 대외정책 기조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은 글로벌 위상에 기반한 능동적 국가안보전략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yers, Andrew, and Randall Schweller(2024), "Trump the Realist: The Former President Understands the Limi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July 2024).
- Fleitz, Fred, ed.(2024),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 Pottinger, Matt, and Mike Gallagher(2024), "No Substitute for Victory: America's Competition With China Must Be Won, Not Managed," 「Foreign Affairs」, Vol. 103, No. 3 (May/June 2024),
-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2024),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 Radio Free Asia, 2024.10.2. "[Interview] Trump 'would love to see his friend Kim Jong Un again'"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 Yeo, Andrew, and Hanna Foreman(2024), "What do North Korean troop deployments to Russia mean for geopolitics?" Bookings Commentary (October 29, 2024).
- Young, Benjamin R.(2024), "Russia and North Korea's Partnership of Pariahs: Will it Last?" 「National Interest」 (October 4, 2024).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의 평가 및 전망

- 경제부문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

김미숙(지역과환경연구소 대표, 前 LHRI 북한연구센터장)

I. 서론

2024년 성과를 결산하고, 2025년 당과 국정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7가지였다. 첫째, 2024년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 평가와 2025년 국정운영방향, 둘째, 당 중앙검사위원회 2024년 사업 보고, 셋째, 새로운 지방발전정책 과업, 넷째, 교육토대강화 문제, 다섯째, 국가 예결산 승인, 여섯째, 당 기구 사업(개편) 문제, 일곱째, 조직(인사) 문제 등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셋째, 넷째 의정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2024년 경제부문 국정에 대한 평가와 2025년 국정운영방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26~30),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2024.01.15. 개회), 제12차(2025.01.22.~23 개회) 회의들에서 다루어진 북한의 2024년 경제부문 중점과제와 중점과제의 성과 평가, 2025년의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중점과제

에 나타난 건설개발 부문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2024년 경제부문 중점과제

1. 중점과제

북한은 2024년을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는 해로 삼았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을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하면서 2024년 말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부문 중점과제 중 우선순위는 12개 중요고지 달성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증대에 집중하고 정비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2개 중

표 1 2024년 경제부문 중점과제

부문	중점과제
12개 중요고지	- 지속 추진
기간공업	- (기계) 융성기계연합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조성(당 중앙위 8기기간내) · 새로운 5개년발전계획 기간내에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기계종합기업소 등 중요기계공장 현대화 추진 - (금속/화학) 건설중인 대상의 조속한 완공, 정상운영 보장 - (전력) 단천발전소 및 건설중 발전소 조속한 완공 - (석탄/채취) 주요생산부문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철저히 보장, 생산공정의 정비보강과 능력확대
지방발전 20×10 정책	- 지방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매해 20개 군에 10년간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 - 인구수, 주민수요, 경제실태, 자연지리적 조건 등 시군 특성 고려해 건설 - 원료기지 생산능력 및 제품 질 제고 사업 동시 진행
경공업부문	- 최우선과제로 인민소비품, 기초식품 질 제고에 두고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 현대화(학생필수용품 보장) - 잠업부문 발전과 상업, 급양, 편의봉사사업 개선
농업부문	- 농기계발전전략과 단계별 목표 수립 및 농촌경리의 기계화 강력 추진 - 관개체계 완비와 간석지 지속 건설로 농업생산력 지속적 증대 - 양정규율 확립 - 밀 재배면적, 밀가공공장 확대 및 가공기술 개선 - 평양시에 현대적 가공공장 신규건설
건설/건재	- 평양시 5만세대 등 수도 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 강력 추진 - 각 도소재지 개변, 동서해 운하 건설 계획 준비 - (건재) 신규 및 개건된 건재생산기지 활성화, 각종 건재품 보장 확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 5개년 계획 단계별 과업 착실한 추진 - 모든 기관, 기업소, 재해위기 대처 사업 연차별로 강력히 실행
수산부문	- 원양어로 적극화 - 양어, 양식부문의 품종수, 어종수 확대 - 바다양어 대대적 확대 등 수산물생산 증대
과학기술부문	-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 설정 - 과학연구역량 집중 집행 체계 확립 - 국가기술발전 통일적 지휘관리, 과학기술력 증대, 과학기술 중시 주요목표와 방도 제시
교육부문	- 전공관련 과목에 연구형 교수 및 학습방법 수용, 교육내용과 방법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
보건	-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철도	- 물동수송량의 증가에 따른 철도 역할 제고 - 수송조직과 지휘 개선, 현존철도 수명 유지로 수송수요보장 - 철길유지보수, 철도운행의 안정성 제고

자료: 노동신문, 2023.12.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4.01.19,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24.0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서 정리

요고지의 달성에 계속 매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간공업 가운데에서 기계공업의 발전 방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2024년 국정 방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다. 이 정책은 향후 10년 내에 매년 20개 시군의 지방경공업공장을 중앙의 지원으로 현대화하겠다는 것이다(표 1) 참고).

2. 중점과제 추진 평가

가. 전반적인 평가

전원회의에 따르면, 2024년에 북한의 국가경제전반의 성장추이가 확고히 되었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질적인 결실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교육중시 당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하였다.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

인 토대위에서 진행하지 못해 대규모 수해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 부문별 평가

1) 12개 중요고지

12개 중요고지는 인민경제의 중요한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압연강재는 127%, 유색금속은 106%, 질소비료는 103%, 전력은 101%, 석탄은 110%, 세멘트는 101%, 통나무는 104%, 수산물은 101%, 철도화물 수송량은 108%, 천은 101%, 알곡은 107%로서 각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살림집의 고지달성률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준공과 3단계 1만 세대 마감단계, 검덕지구 1,500여 세대 건설 등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색금속, 통나무,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고지들의 목표달성률은 2023년보다 우수하

표 2 12개 중요고지 목표달성률 및 전년대비 성장률

12개 고지 \ 달성률	2023년 목표달성률(%) [*]	2024년 목표달성률(%) ^{**}	2023년 대비 2024년 성장률(%) ^{***}
1. 알곡	103	107	(당의 알곡생산목표 달성)
2. 전력	100	101	
3. 석탄	100	110	115
4. 압연강재	102	127	143
5. 유색금속	131	106	107
6. 질소비료	100	103	104
7. 세멘트	101	101	102
8. 통나무	109	104	
9. 천	101	101	108
10. 수산물	105	101	
11. 살림집	109(건설중 세대)	-	
12. 철도화물수송	106	108	

^{*} : 노동신문, 2023. 12.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 노동신문, 2024.12.2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 나무위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에서 구성

다. 이 중 6개 고지에 대해서는 2023년 대비 성장률도 제시하고 있는데, 압연강재는 143%, 석탄은 11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 기간공업

기간공업에 대한 정비보강대상공사들 역시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성프락트르공장 2단계 개진현대화공사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너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 등으로 자립경제의 발전동력과 잠재력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3) 지방발전 20×10 정책과 3대 건설과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2024.01.23.~24. 개최)에서 20개 시군이 결정되었다.¹ 사업의 추진을 위해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대(조선인민군 제124연대)를 건설인력으로 동원하기로 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월 28일 성천군이 제일 먼저 착공식을 한 이래, 3월 중 평안북도 구장군과 운산군, 황해북도 은파군, 황해남도 재령군을 비롯해 19개 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이 진행됐다.² 하지만 연내 준공된 곳은 2024년 12월 21일 준공식을 한 성천군 한 곳 뿐이다. 준공식은 기계설비가 갖춰진 경우에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된 지방경공업공장의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³

지방발전정책이 경공업공장건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건과 과학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지방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 군 경공업 공장 건설 외에 시, 군보건의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의 3대 필수시설도 함께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⁴ 2024년에는 3대 필수시설 등과 결합된 시설 조성 사업 등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농업

과학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풍년을 맞이했다고

표 3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시군(20개)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대상 시군	속천군, 성천군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	재령군, 은천군	연탄군, 은파군	금야군, 함주군	경성군, 어랑군
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대상 시군	김형직군	우시군, 동신군	고산군, 이천군	온천군	장풍군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 1,2분기』, p.78

1 노동신문, 2024.01.31, “《우리산골군에도 희한한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에 접한 여러 시, 군인민들의 걱정의 목소리“

2 통일뉴스, 2024.09.17, “북, 지방공업공장 정상운영 사업 본격 추진”

3 매년 20개 시군에서 공장 건설을 위한 중앙 지원의 한계, 준공이후 공장의 정상적 가동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이종규, 2025, “총괄:북한경제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p.16)

4 노동신문(2024.08.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평가하였다.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인 알곡고지를 107%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가 4월까지 전부 마무리되어 농업생산의 물질적토대를

를 더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식량작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⁵

표 4 2024년 경제 부문 성과

부문	성과
12개 중요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집건설 등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들을 성공적으로 달성 · 압연강재 127%, 유색금속 106%, 질소비료 103%, 전력 101%, 석탄 110%, 세멘트 101%, 통나무 104%, 수산물 101%, 철도화물수송량 108%, 천 101%, 알곡 107%
기간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금성트랙도르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 (금속)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건설로 주철생산체계가 전면적 확립 - (화학) 질소비료 고지 점령 - (석탄) 지난해보다 높아진 생산계획 수행 - (채취) 문평제련소 배소-류산공정개건대상 준공
지방발전 20×10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발전 20×10 정책 · 최초 착공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신포시바닷가양식사업소 준공⁶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농법 적극적 도입으로 풍년을 달성 -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 4월까지 모두 마무리함 - 계획된 관개체계 완성,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 제고, 알곡생산고지 달성 - 강동종합온실농장 준공 및 조업
건설/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살림집 건설 등 ·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준공(1만 세대), 3단계 건설중, 서포지구 4,100세대 준공 · 검덕지구의 2024년 살림집건설과제 결속(160여 동, 1500여 세대) ·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큰물피해복구지역을 선경마을로 변모시킴 - (건재)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큰물피해복구대상 등 중요대상들에 세멘트와 판유리를 계획대로 보장
과학기술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 - 과학기술발전국가중점대상과제 완성, 생산성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과 가방, 신발, 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감독사업체계 정립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표준약국 조성

자료: 노동신문, 2024.12.2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나무위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에서 정리

⁵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밀 생산량이 전년과 같고, 옥수수는 1% 감소했다고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식량작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고, 이 가운데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4만 톤(1.9%)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Country Summary, <<https://ipad.fas.usda.gov/countrysummary/?id=KN>>(검색일: 2025.01.31); 한국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올해 북한 식량작물 478만 톤 생산, 전년 대비 4만 톤 감소,”(<<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6732&pWise=sub&pWiseSub=C3>>, 검색일, 2025.01.31.)

5) 건설/건설

수도건설, 농촌살림집 건설 등의 양적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화성지구에서 1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또다시 건설하고, 서포지구 전위거리 4,100세대, 검덕지구 160여동에 1,500여 세대를 건설해 올해 살림집 건설과제를 마무리하였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큰 물피해로 파괴된 살림집 복구를 농촌건설사업으로 추진하여, 21,000여세대를 신축 또는 보수하였다.

살림집 건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건재생산기지 개건 또는 신규조성 등으로 건재생산의 활성화가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6) 과학기술발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점과제들이 완수되고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7) 교육/보건

학생들에게 신발, 교복 제공 및 여러지역에서 학교 개건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 시군에 표준약국 건설이 활발하였고 대부분 완공되었다.

이외에 철도수송부문이나 수산부문은 12개 중요고지에 포함되는데, 철도화물수송량 108%, 수산물 101% 등의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다.

4. 건설·개발 부문 성과

가. 살림집공급 확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대표적 사업의 하나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공급 등 살림집 공급사업이다. 노동신문보도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까지 올해 141개 시, 군에 4만 1,600세대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연말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피해지역에서 낙달만에 1만5,000여 세대의 현대적 단층, 다층주택이 건설되고, 6,000여 세대 주택이 보수되었다. 이 보도들을 근거로 하면, 2024년도에 최소 5만 7천여 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살림집만을 보면, 2022년 추정규모가 8,000세대, 2023년이 24,100세대, 2024년 상반기 18,000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물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⁷ 살림집 건설경험이 축적되면서 건설속도가 빨라져 완공물량도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주민의 물질문화 수준 개선 모색

2023년에 농촌살림집, 식량 증산과 관련된 제반 건설사업이 중심이었다면, 2024년에는 농촌살림집과 함께 소위 ‘인민들의 초보적 물질문화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방공업활성화, 보건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및 관련 건설사업의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평양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6 12월 28일 준공된 함경남도 신포시바다양식사업소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 지정한 20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방발전 20×10 정책하에서 다루고 있다.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여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준공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7 토지주택연구원, 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1, 2분기』, p.61

나타나고 있다. 2023년까지는 전국에서 살림집 건설이 건설사업의 중심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평양은 주로 살림집 건설이 중심이고, 지방은 살림집과 함께 지방공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재해복구 사업 추진

최근 북한은 자연재해 피해지역복구시, 파괴된 시설중심 재건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정으로 접근하고 있다.⁸ 2024년 여름 수해 피해지역인 평안북도 피해 지역에서의 복구 사업을 농촌발전전략의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2020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북한 최대 광산지대 중 하나인 검덕지구의 수해피해 시, 복구과정에서 향후 5년동안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며 5개년계획기간에 2만 5,000여 세대의 현대적 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재해지역 복구시 파괴된 시설의 복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당국의 지지기반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라. 건재산업 활성화 및 건설역량의 확대

12개 중요고지에서 3개의 고지(철강(압연강재), 세멘트, 통나무)가 건자재에 해당한다. 모두 2024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압연

강재는 계획의 127%를 달성, 12개 중요고지들 가운데 계획달성률이 가장 높다.

건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감건재생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생산공정 보수 및 능력 확장공사, 신규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11월 27일 현재 전국에서 800여개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신설 또는 증설되었다.⁹ 또한 2024년은 지방원료에 근거한 마감재 생산토대를 갖추는 것도 강조하였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북한에서, 지역원료에 기반한 건재생산토대는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건자재와 함께 중요한 요소는 건설인력의 확보이다. 각 도, 시, 군들은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건재생산단위들 사이의 연계와 협조 및 기술교류도 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III. 2025년도 경제부문 중점과제

1. 중점과제

가. 개괄

2025년 경제부문 국정 방향은 첫째,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결, 둘째, 다음단계 발전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 제8차대회의 기본과업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인민생활과 관련된 과업들을 추진하여 보다 뚜렷한 성과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8 최은주, 2024, “2024년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의 평가와 함의”, 세종포커스(<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seq=12040>, 검색일, 2025.01.30.)

9 노동신문, 2024.11.27,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시대의 문화농촌”

나. 부문별 중점과제

1) 12개 중요고지

인민경제 근간을 이루는 12개 중요고지점령으로 국가경제의 지속발전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간공업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책 및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기술적 세련화, 금속공장 생산설비, 공정개선 현대화, 정상가동으로 철강재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화학공업은 생산설비 만가동으로 각종 화학제품생산 정상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위한 메타놀생산공정1계열 건설 등이다. 전력공업은 전력생산 안정화, 석탄공업에서는 탐사와 굴진으로 석탄생산의 전망 담보, 채탄과 운반능력 향상으로 석탄생산 증대 등이다. 기계공업에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기계공장 현대화의 본보기로 조성하는 것 등이다.

3) 새로운 지방발전정책 추진

2024년 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란 주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고,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선진적인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을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포함하였다. 또한 신포시에 건설된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새로운 표본으로 삼아, 여기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4) 경공업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을 포함하여 생산품의 질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

5) 농업

2025년 농업부문의 중점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것, 둘째,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 셋째,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집행을 담당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와 과학농사를 강조하고 있다.

6) 임업

전국적인 산림조성 사업과 함께 건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나무생산계획의 달성, 통나무 등 임산물의 공급을 위한 임산철길 정비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7) 건설

평양시 5만 세대와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을 완료하고, 농촌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팬데믹 이래 언급되지 않았던 특구 건설 및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2025년 초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건설사업으로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언급하고 있다.

8) 국토관리 및 재해관리, 도시경영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재해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통일적 지휘체제와 질서를 세우고 구조용장비들과 구호물자비축 등으로 재해위험에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큰물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최소화를 꾀하고 있다.

9) 과학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과학과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계가 충분기하여 당 제8차대회 과업의 성과를 확실히 도출할 수 있게 지원하여, 새로운 발전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보건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

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11) 교육

전원회의에서 교육토대 강화와 관련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고,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세우는 것 등을 강조하였다.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 학습조건을 마련해주고, 교육토대강화에서 제일 큰

표 5 2025년 경제부문 중점과제

목표/부문	주요내용
12개 중요고지	- 12개 중요고지 점령으로 국가경제 지속발전 발판 마련
기간공업	- (금속공업) 김책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세련화, 금속공장 생산설비, 공정개선현대화, 정상가동으로 철강재 증산 - (화학공업) 설비사고 예방 대책, 생산설비 만가동으로 각종 화학제품생산 정상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위한 메타놀생산공정1계열 건설 등 - (전력공업) 발전설비, 송변전계통 점검보수 수준 향상, 전력생산 안정화 - (석탄공업) 새 탄광, 새 갱건설에 지속 추진, 탐사와 굴진으로 석탄생산의 전망 담보, 채탄과 운반능력 향상으로 석탄생산 증대 - (기계공업)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기계공장현대화의 본보기로 조성, 질적으로 우수한 각종 기계제품과 중요대상설비 생산 - (광산 및 제련소) 정비보강, 생산정상화로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수요 보장
새로운 지방발전정책	-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병행해서 지방발전에서 필수적인 선진적 보건시설과 복합문화거점, 일체화된 양곡관리시설 건설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경험 기초로 새로운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경공업/ 지방공업	- 질제고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 - 학생교복, 가방, 신발생산 등 어린이, 학생을 위한 시책 책임적으로 집행
농업	- 알곡고지 점령,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 구축 · 재해성이상기후 영향 극복위한 영농 및 농업과학기술적대책, 영농물자보장대책 수립 · 관개체계정비보강과 농기계생산, 간석지건설 지속으로 농업생산 안정화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과 사회주의농촌을 변혁할 인재 체계적 육성
임업	- 임산철길정비, 벌목기계통생산에 박차를 가해 통나무생산계획 수행 - 산림조성사업 책임있게 진행
건설부문	-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건설 및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마무리, 검덕지구 살림집건설 마무리, 농촌살림집 및 농촌건설 계속 추진 -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 마감건재 국산화 - 지방중흥을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

목표/부문	주요내용
국토관리 및 재해관리부문/ 도시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 개선 - 국가적으로 재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질서 수립 - 구조용장비, 구호물자비축 등 재해위험에 대처 사전준비 철저히 - 큰물경보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 보장하여 재해 최소화 - 도, 시, 군소재지의 면모 일신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 해결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생산을 활성화하고 의료봉사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높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든 대처할 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교육/육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 개선 사업 심화로 교육의 질 제고 - 교육기자재해결, 학교개건현대화 등 교육토대강화 - 어린이들에게 품질과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유제품과 물고기, 알, 과일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기준으로 정상공급
교통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와 배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중요건설대상들의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자료: 노동신문, 2024.12.2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나무위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에서 정리

몫을 차지하는 학교개건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 안에 전국 모든 학교를 일신할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교통운수

살림집 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등 건설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됨에 따라 건설자재 수송수요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도와 배수송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IV. 2025년도 건설부문 전망과 시사점

가. 가시적 성과도출 가능한 사업 추진

올해는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므로, 자원을 집중하여 5개년계획의 부문별 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살림집 등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건설사업에 보다 더 집중하여 이어지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경

제발전5개년계획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표명하고자 할 것이다.

나. 기본건설투자사업과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이행

기본건설투자사업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사업이다. 2025년의 기본건설 투자사업은 평양시 5만세대 및 검덕지구 살림집 마무리,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이다.

살림집건설은 경제발전5개년계획 기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사업이다. 지방경공업공장 건설은 2024년 1월에 정책이 발표된 이후 2월에 20개 시군 모두 착공식을 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지만 연내 준공은 1곳 뿐이었다. 2025년에는 2024년 착공하고 준공되지 않은 시군의 경공업공장의 준공, 그리고 새로 지정될 20개 시군의 경공업공장 착공과 건설이 이어질 것이다.

2025년 국가예산지출계획에서도 기본건설투자를 전년대비 1.2% 증가시켰다. 2023

년 및 2024년에 전년대비 0.3%, 0.5% 증가시킨 것과 대조된다.

다. 기본건설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사업 활성화

기본건설사업의 활성화는 지속적인 마감재 수요로 이어지므로 마감건재 생산시설의 신규확충과 개건 등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에서 살림집 건설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건설자재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추진한 바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건설된 지방 경공업공장의 조업을 위해서는 원료기지 확보도 선행되어야 한다. 경공업공장의 조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원료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원료기지 조성사업도 경공업공장 건설 및 가동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본건설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자재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교통물류인프라 개건 및 신규조성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24년 하반기에 청년이천선(황해북도 평산역~강원도 세포청년역) 전구간 침목교체, 일부 시군의 교량건설, 군단위 연결하는 도로 보수 등이 진행된 바 있다.^{10,11}

라. 지역 개발방식의 변화

지금까지 지방건설, 농촌건설의 주된 사업이 살림집 위주였다면, 2025년에는 생산시설 건설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특히 지방 공업공장 건설에 3대 필수대상 건설이 추가되면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종합적인 문화생활거점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였다.¹² 이에 따라 살림집, 경공업공장, 보건, 양곡시설, 과학문화거점을 결합시킨 마을개발 또는 지역개발이 북한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모색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¹³

마. 특구개발 및 관광활성화

2025년에는 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또는 정비도 진행될 것이다. 2024년 초 러시아의 북한 관광이 시작되었다. 2024년 7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시 현지도에서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두산을 개발하는 것이 삼지연시의 추가개발 방향과 목표라고 한 바 있다.¹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2014년 6월 개발 계획이 발표돼 2016년 7월 착공했으나 코로나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24년 말 완공보도와 함께 2025년 개장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다.¹⁵

10 교통연구원, 2024, “북한 기사브리프”, 『동북아북한 교통물류웹진』, Vol.06, p.33

11 생산된 제품의 이동을 위한 수송수요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 참고로 2025년 1월초까지 준공한 4개 지역(성천군, 재령군, 속천군, 은파군)의 생산품이 소주, 참기름, 된장, 간장 등 모두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는 생산품의 지역간 이동이 거의 없음을 의미함(자료: SPN, 2025.01.11, “[노동신문 돋보기]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근본적 문제”)

12 노동신문, 2024.09.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3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도서관이 각종 편의 봉사 제공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상업 봉사시설들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하기도 함(자료: 자유아시아방송, 2024.09.17,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과학기술보급중심과 종합 문화생활거점”)

14 통일뉴스, 2024.07.14,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15 통일뉴스, 2024.12.31, “김정은 위원장, 준공 완료된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설 시찰”

바. 속도전 등의 재개 가능성

자본 부족 등으로 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이 낮은 북한이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 인력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속도전 등을 채택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북한은 2020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마무리와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2020년 10월 10일부터 80일 전투를 전개한 바 있다. 올해도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마무리와 내년에 개최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속도전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건설사업이 많아 동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종규, 2025, “총괄:북한경제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p.16
- 최은주, 2024, “2024년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의 평가와 함의”, 세종포커스(<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seq=12040>, 검색일, 2025.01.30.)
- 토지주택연구원, 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 1,2분기』
- 한국교통연구원, 2024, “북한 기사브리프”, 『동북아북한 교통물류웹진』, Vol.06
- 한국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올해 북한 식량작물 478만 톤 생산, 전년 대비 4만 톤 감소,”(<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6732&pWise=sub&pWiseSub=C3>, 검색일, 2025.01.31.)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Country Summary, <<https://ipad.fas.usda.gov/countrysummary/?id=KN>>(검색일: 2025.01.31.)
- 노동신문, 2023.12.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노동신문, 2024.0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노동신문, 2024.01.19.,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진행”
- 노동신문, 2024.01.31, “《우리산골군에도 희한한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에 접한 여러 시, 군인민들의 걱정의 목소리“
- 노동신문, 2024.08.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 노동신문, 2024.09.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 노동신문, 2024.11.27,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시대의 문화농촌”
- 노동신문, 2024,12,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노동신문, 2025.0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 자유아시아방송, 2024.09.17,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과학기술보급중심과 종합 문화생활거점”
- 조선신보, 2024.01.2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진행”
- 통일뉴스, 2024.01.19, “북,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 결정”
- 통일뉴스, 2024.07.14,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 통일뉴스, 2024.09.17, “북, 지방공업공장 정상운영 사업 본격 추진”
- 통일뉴스, 2024.12.31, “김정은 위원장, 준공 완료된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설 시찰”

김정은시대 평양시 살림집건설 현황과 종합평가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김정은 체제의 살림집 건설은 지배체제의 정당성과 당위성, 권력자의 위상과 위민정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정치 사업이다. 특히 2010년대 주요 건설정책은 김정은체제의 엘리트층을 비롯한 특정 상위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행위였다면, 2020년대 건설정책은 일반계층,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민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택 건설정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애민정치보다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건설정치라는 점이다. 2020년대 들어 본격화한 대상건설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농촌주택건설이다.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2021년부터 매년 1만세대씩 2025년까지, 농촌혁명 강령으로 추진되는 농촌주택은 2022년부터 2024년 기준

총 11만 3,700여세대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¹

김정은 체제의 최근 살림집 건설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면, 농촌주택 건설은 농촌의 현대적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다.²

북한의 계획경제 목표로 발표되는 대상건설과 달리 지방에는 자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주택건설 계획이 존재한다. 지방건설은 지역마다 인구규모, 주택수요, 지역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계획경제와 달리 지방자체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 사업은 북한의 통상적인 주택건설 발표에 나타나지 않아 실질적인 공급내용을 파악하

1 노동신문(2024.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이다”

2 농촌주택 건설은 도시와 농촌 간 격차에 따른 농촌의 위축을 견제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농촌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내 노력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³

따라서 본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살림집 건설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4년 1,2분기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된 살림집 건설의 비교분석(대상건설, 일반건설의 제도적 특징, 건설특징)에 이어 주요 일반 살림집 건설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연구의 범위를 평양시로 제한해서 접근, 둘째, 조사 시기는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주요 살림집건설에 한정, 셋째, 연구의 대상을 김정은 집권 이후 인구증가 완화를 위한 대상건설과 일반건설 현황을 중심으로 접근, 넷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영상을 비교해 접근할 것이다.

II. 김정은 시대 살림집 건설 특징

1. 대상건설 현황과 특징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는 김정일 시대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전인 2011년 5월 착공 후 정제되었던 창전거리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2012년 6월 완공되었다.⁴ 이러한 성과는 천리마 속도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건설정치가 종결되고 만

리마 속도의 김정은 시대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

만리마 속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젊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을 사전에 통제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젊은 정치를 인식시켜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권 등장 초기부터 건설정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평양시를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경도시로 전환하는데 있다. 평양시를 선경도시로 전환하는데 크게 2가지 차원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오래된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전환하는 재개발 사업, 둘째, 평양시 인구체중을 해소하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양시의 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연계한 건설 사업으로 은하과학자지구, 위성과학자지구, 미래과학자지구, 려명거리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건설정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설 사업은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건설대상의 대부분이 재개발 성격에 가깝고 인구체중보다는 평양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경제위기로 악화된 과학, 기술, 교육 분야를 회복하고 경제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는 인텔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북한도시포럼 2023(통일연구원),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있다.

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서 각 키워드를 검색,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검색일: 2024.11.9.).

5 김 혁,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살림집 건설’,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연구총서 23-27, 통일연구원.

그림 1 2010년대 재개발 지구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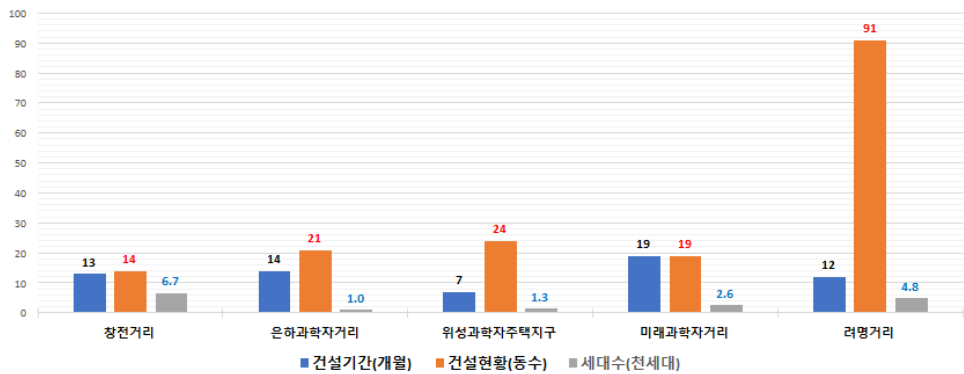


표 1 2010년대 지구개발 특성과 건설현황

특성	지구명	완공년도	건설부지(ha)	건설기간(개월)	건설현황(동수)	세대수(세대)
재개발	창전거리	2012	24.5	13	14	6,666
재개발	은하과학자거리	2013	24.8	14	21	1,000
재개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	38.9	7	24	1,344
재개발	미래과학자거리	2015	27	19	19	2,584
재개발	려명거리	2017	90	12	91	4,800
합 계	소계		205.2	65	169	16,394
	평균		41	13	33.8	3,279

*창전거리는 건설이 본격화된 2011년 말부터 건설기간 산정

그림 2 평양시 주요 대상건설 위치



출처: Google Earth Pro활용 필자 작성(노랑색‘완공’, 파랑색‘건설중’, 빨강색‘예측지역’)

건설정치 성과는 창전거리를 포함해 총 5개 지구가 완공되었다. 전체 개발현황을 보면 2012년 창전거리를 시작으로 2017년 려명 거리까지 완공하는데 소요된 총 기간은 65개월, 평균 건설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되었다. 전체 개발면적은 205.2ha에 달하며, 평균 건설부지는 41ha로 나타났다. 건설규모를 보면 전체 건설동수는 169개동, 평균 33.8개동이 건설되었으며, 총 세대수는 16,394세대, 평균 세대수는 3,279세대에 이른다.

2010년대 건설정치의 특성이 재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20년대 건설정치의 특성은 위성도시를 건설해 평양시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평양시 도심의 인구체증을 완화하는 정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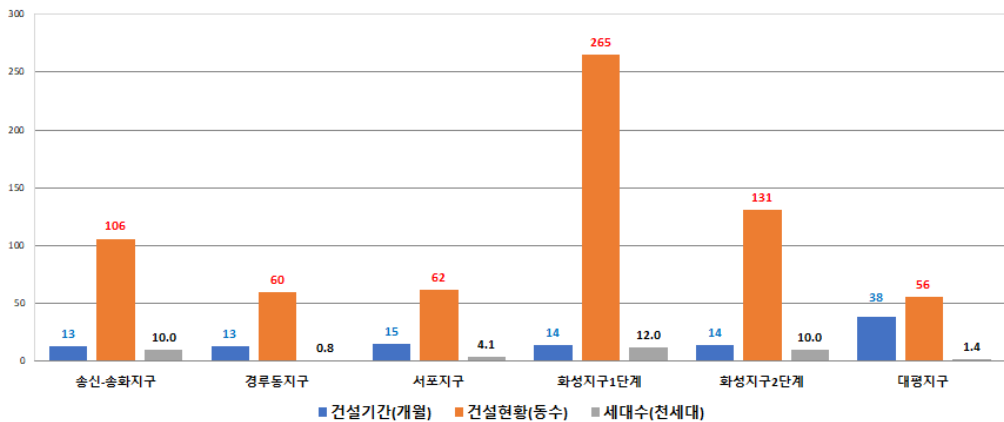
평양시 인구변화를 보면 1970년 98.7만 명, 1980년 184.2만명, 1990년 252.6만명, 2000년 277.7만명, 2010년 286.1만명, 2020년 308.4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⁶ 반

면, 평양시는 1980년대 광복거리(약 25,000호), 1990년대 통일거리(약 20,000호), 2008~2012년 10만호 건설목표를⁷ 통해 인구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가한 평양주민의 주택수요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고 김정일 체제 후반기 추진된 10만호 건설사업도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10만호 건설목표는 2만호로 하향 조정되고 성과는 500여 세대 건설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⁸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창전거리를 제외하면 급격하게 증가한 평양시 인구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성도시 건설이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기간 평양시에 5만세대 살림집을 건설을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특히 위성도시 건설은 상대적으로 건설이 용이한 평양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현대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도심

그림 3 2020년대 위성도시 건설 및 재개발 현황



6 통계청, 북한통계: 주요도시인구 (검색일: 2024.11.20.)

7 DailyNK(2008.1.18.), “조선신보 ‘北, 평양에 5년간 주택 10만호 공급’”

8 연합뉴스(2011.6.20.), “北 ‘평양 10만호 사업’ 2만 세대로 축소”

표 2 2020년대 지구개발 특성과 건설현황

특성	지구명	완공년도	건설부지 (ha)	건설기간 (개월)	건설현황 (동수)	세대수 (세대)
위성도시	송신-송화지구	2022	56	13	106	10,000
재개발	경루동지구	2022	14	13	60	800
위성도시	화성지구1단계	2023	150	14	265	12,000
재개발	대평지구	2023	21.3	38(12)	56	1,400
위성도시	화성지구2단계	2024	64.5	14	131	10,000
재개발	서포지구	2024	73.3	15	62	4,100
합계	소계		379.1	107	680	38,300
	평균		63.2	17.8	113.3	6,383

재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2020년대 들어서 평양시 주택건설 전체 현황을 보면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기준 위성도시는 총 3곳이 완성되었고 3곳은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상건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개발은 농경지를 활용한 위성 과학자, 대평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에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구개발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2020년대 들어 조성된 지구개발 현황을 종합해보면 전체 부지면적은 379ha, 건설기간은 107개월, 평균 17.8개월이 소요되었다. 물론 건설기간에서 대평지구를 건설이 본격화한 2021년 6월 이후 12개월로 가정하면 평균 건설기간은 13.5개월에 그쳐 2010년대와 비교해도 비슷한 건설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존 공급세대규모 16,394세대 대비 38,300세대로 건설량은 2.3배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만큼 2010년 대비 2020년 건설 사업이 위성도시 건설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국가의 계획경제 목표에 따라 건설되는 대상건설로

추진되어왔다. 대상건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요 건설인력, 건설자재, 건설장비가 대규모로 동원되고 건설기술이 총 집합된다는 점에서 일반 살림집 건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건설요소도 살림집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교육시설, 공원, 지역 공공시설까지 모든 조건을 아우른다. 반면 뒤에서 다루겠지만 평양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은 살림집 건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2. 일반살림집 지방건설 특징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은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상건설과 달리 평양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이다. 평양시관리법(2014)은 평양도시구획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대상을 의미한다면 살림집법(2022)은 지방(시, 군)의 살림집 건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살림집법을 토대로 평양시의 일반살림집 건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⁹

살림집법 내용에는 살림집 건설계획, 건설허가, 건설계약, 건설시공 등으로 나눌 수

9 국가정보원(2024), “북한법령집 上”, 평양시관리법, p. 217. “북한법령집 下”, 살림집법, p. 105.

있다. 건설계획 단계는 살림집 건설을 위한 설계기관에 기업소, 단체가 설계안을 요청하면 설계전문기관은 건설설계를 작성하고 건설허가 단계는 시공기관이 설계안을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해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설계약부분에서는 건설주와 시공기관이 시공계약을 맺고 건설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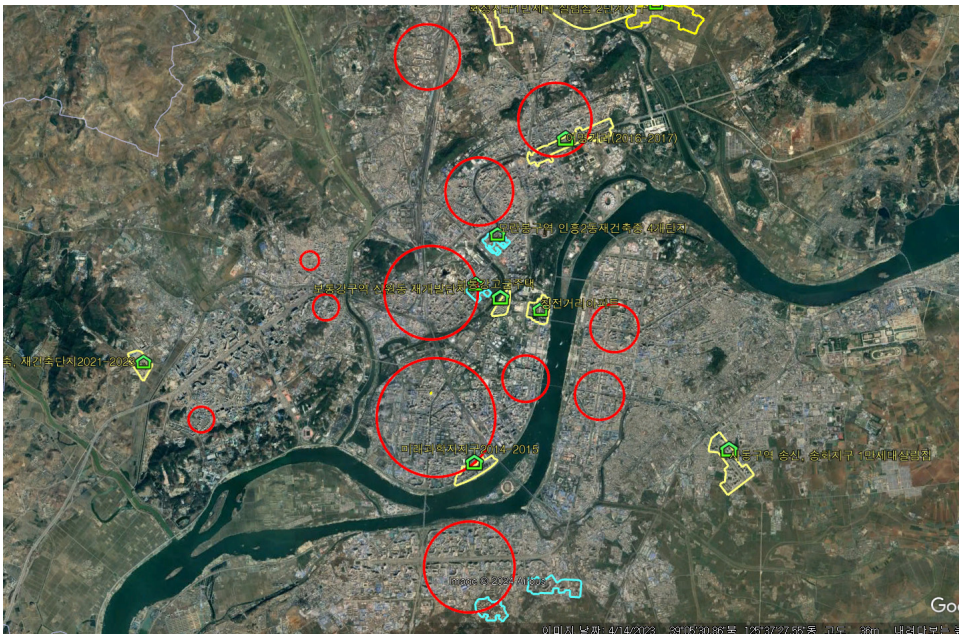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책임경영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살림집법에서 나타나는 건설주는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로 시공기관, 기업소와 합의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계획을 인민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 추진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주는 돈주, 물주 등 시장자본으로부터 투자받아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방의 살림집 건설 흐름은 김정

은 집권 이후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위성영상(Google Earth Pro) 기간인 2000년부터 2023년 4월 기준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완공된 아파트 건설을 추적한 결과 일반건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평양의 중심지역인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순으로 그 변화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은 크게 산업적 특성, 정치적 위상, 관광산업, 지역의 살림집 노후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점, 정치적 위상과 문화관광의 집중지역은 지역의 위상과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현대식 아파트를 조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의 아파트 수요와 공급, 아파트의 노후화에

그림 4 평양시 일반건설 집중지역 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 활용 필자 작성

* 일반건설(빨간색), 일반건설 대단위(파란색), 대상건설(노란색)

따른 재개발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평양 도심지역에서 산업적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구는 평천구역이다. 평천구역은 비교적 평양의 중심지역과 접해있고 평양화력발전연합, 하수처리정화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양조차장, 김정숙제사공장, 평천전재공장 등 주요 공장기업소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평천구역 전체 면적(약 740 ha)에서 주요 공장기업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2/3에 달할 정도로 산업부지가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문화생활기반, 관광기반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정치적 위상이 영향을 미치는 지구는 중구역이다. 중구역은 만수대의사당,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선로동당당사, 내각기관을 비롯한 정치, 행정 권력기관의 중심지이며, 김책종합대학, 평양의과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창광원,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 김일성광장, 양각도호텔, 창광산호

텔, 능라도, 양각도 등 문화예술, 관광체육기관 다수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중구역은 구획화된 도로망과 고층형 아파트, 현대적인 거리가 조성되어 아파트 건설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제한적으로 건설되는 특성을 보인다.

평천구역과 중구역의 아파트 건설에서 차이점은 평천구역은 대부분 아파트가 단지내 잉여부지, 소규모 공장, 사업소 부지에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반면, 중구역은 도로망을 따라 체계적으로 조성되거나, 내부 잉여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주변 아파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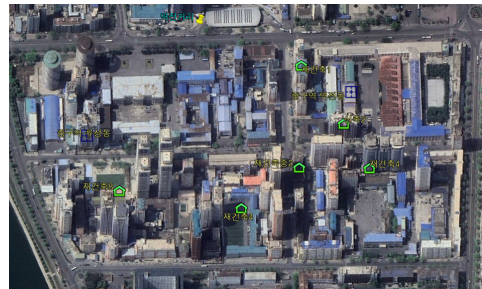
한편 관광자본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살림집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보통강구역과 모란봉구역, 대성구역이 있다. 예컨대 보통강구역은 평양의 동서남북 도로망, 철도망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혁신거리를 따라

그림 5 평천구역, 중구역 아파트건설 형태(사례)



평천구역(봉남, 봉지, 북성동 주택단지)

출처: Google Earth Pro(영상일자: 2024.3.17.)활용 필자 작성



중구역(역전동 주택지구)

그림 6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아파트건설 형태(사례)



보통강구역(류경호텔인근)



모란봉구역(개선문인근)



대성구역(여명거리인근)

출처: Google Earth Pro(영상일자: 2024.3.17.)활용 필자 작성

북동쪽으로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려명거리로 이어진다. 특히 보통강구역에는 평양의 랜드마크인 류경호텔, 정주영체육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평양수예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대성구역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금수산기념궁전, 대성산유회장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교통관광 중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아파트 건설에서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보통강구역은 신원동지구를 포함해 블록화한 공간에 대칭적이고 체계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반면, 모란봉구역은 인흥2동 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대칭적이고 난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성구역은 여명거리와 접하는 도로변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단지 내 건설된 아파트는 난해하고 분산되어 건설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 중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난해하게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만경대구역에서 비교적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동상동, 장훈동지역은 도로변으로부터 떨어진 경사지 단층집들을 일부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형제산구역 서포지구는 서포2동에 2009년부터 착수해 10년 후인 2019년에 단지조성을 완료한 이후 주변정리나, 추가적인 건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락랑구역은 통일거리 남단 외곽지역에 2009년 착공해 일부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아파트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건

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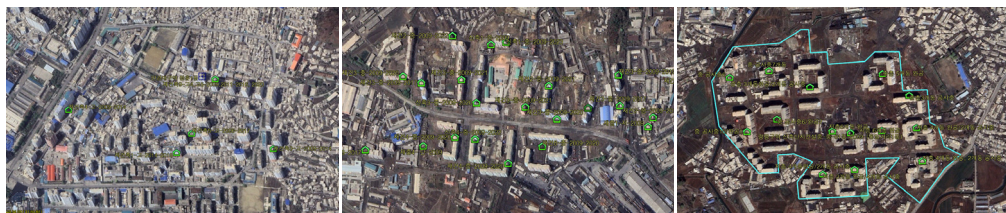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지역의 따라 건설되는 평양시 살림집은 지역의 특성, 지리적 위치, 지역적 위상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중앙이 주도하는 평양시 도시 총 계획에 따른 대상건설과 달리 지역의 살림집 수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아파트건설이 허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건축형태는 대단지 조성 지역을 제외하면 가구 수를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단독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살림집법에서 제시된 주변 경관이나,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 건설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장과 기업소 차원에서 건설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택공급 계획량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 인민위원회 차원에서 부족한 주택공급 해결방안의 부재, 건설주와 돈주를 비롯한 시장자본의 수익창출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반살림집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 현황

위성영상을 활용해 전수조사한 평양시 아파트 일반건설 현황은 2000년부터 총 1,196

그림 7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아파트건설 형태(사례)



만경대구역 장훈지구

형제산구역 서포지구

락랑구역

출처: Google Earth Pro(영상일자: 2024.3.17.) 활용 필자 작성

개동이 착공되었으며, 이중 완공된 아파트는 917개동, 건설중인 아파트는 279개동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총 건설수는 2010년 이후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 및 집계한 내용으로 착공시점은 2000년부터, 완공시점은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평양시 구역별 일반건설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구역은 락랑구역, 룡성구역, 형제산구역으로 확인된다. 락랑구역, 룡성구역, 형제산구역의 공통점은 평양시 외곽지역이면서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아파트건설이 본격화 되었다.¹⁰ 그러나 건설자재 및 건설역량 부족 등으로 아파트 건설이 방치되다가 2010년대 초 일부 건설이 재개되면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사가 완공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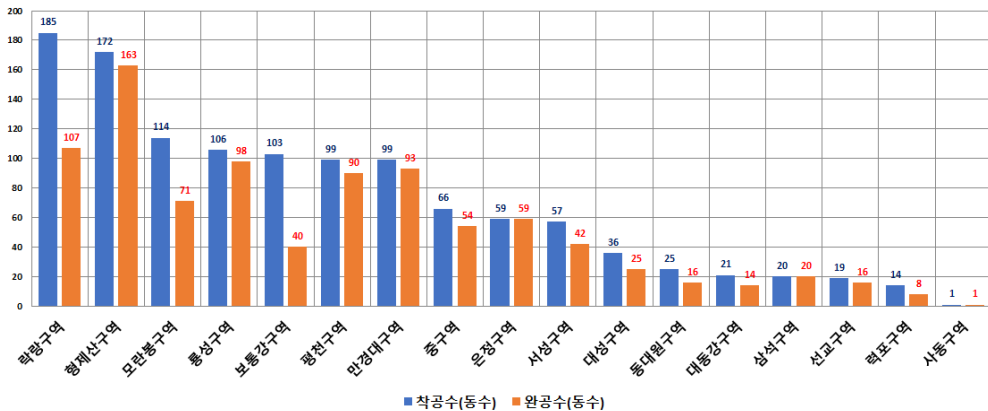
락랑구역, 룡성구역, 형제산구역에서 주목되는 공통점은 아파트가 완공되었음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다수라는데 있다. 특히 락랑구역 동산동,

정오동, 통일거리1동, 형제산구역 서포2동지구, 룡성구역 룡문동지구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필요한 주거환경이 대부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의 시기별 착공현황을 보면 2009년 착공한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룡성구역 건설동수는 각각 172개동, 185개동, 106개동으로 구역의 전체 건설동수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형제산구역, 룡성구역은 2009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착공한 이후 아파트 건설이 정체되어 있으며, 락랑구역은 일부 지역에서 최근까지 건설착공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착공이 활발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체된 지역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은정구역, 사동구역, 삼석구역이 착공동향이 파악되지 않으며, 형제산구역, 룡성구역, 선교구역 등은 간헐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급된 구역들의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구밀집도가 제한적이며,

그림 8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현황(동수)



1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검색일: 2023.10.9.).

표 3 시기별 착공현황(동수)

구역명 \ 년도	'00	'05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구역별
평천구역			5	2	10	1	27	11	5	11	3	5	8	2	7	1	1			99
중구역				1	1	2	4	3	3	17	13	7	11	2		2				66
서성구역					10	3	1	4	5	9	1	5	9		3	6			1	57
모란봉구역			3		4	15	1	9	25	1	2	4	10		22	18				114
형제산구역					166				1		1	2				2				172
보통강구역					3	4	5	4	10	3	6	3	1	6	11	37		7	2	103
은정구역			37			22														59
룡성구역		27			66		8			1		2	2							106
대성구역					6	3	3		2	4			8	2	4		1	1	2	36
사동구역					1															1
삼석구역																		20		20
만경대구역			9		26	2	30	3	9	1		1	10		4	4				99
력랑구역			7		154	5	6	4	1	3	1	2				1		1		185
력포구역					12		2													14
선교구역	1		4		6	1			7											19
동대원구역					6	1	2	2	2	1	1	3	1		1	5				25
대동강구역					6			1	1	4			2		6	1				21
합 계	1	27	65	3	470	59	89	41	71	55	28	34	62	12	58	77	2	29	5	1,196

*삼석구역은 농촌형 다세대주택으로 20개동이 건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2020년대 아파트착공이 파악되는 지역은 평천구역, 중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이다. 이중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은 대동강을 사이로 중구역과 마주하고 있어 도심 지역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아파트 건설이 용이한 건설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착공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대성구역, 만경대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평양의 도심을 이루면서 산업단지가 집중되고 높은 정치적 위상으로 거주지 인구밀도가 높아 아파트 수요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정체되었던 평양시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별

로 완공모습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표 4>와 같이 아파트 건설의 완공은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평양의 외곽 지역인 사동구역, 삼석구역, 력포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아파트 완공모습이 확인된다.

시기별 아파트 완공현황을 보면 2011년 평천구역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동대원구역, 2013년 대성구역, 2014년부터 형제산, 룡성구역, 만경대구역이, 2015년에는 은정구역 등 삼석구역, 사동구역, 력포구역을 제외하면 2010년대 초중반까지 전 지역에서 완공현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표 4 시기별 아파트 완공현황(동수)

구역명 \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구역별
평천구역	4	1	11	12	4	16	8	10	4	4	2	6	8	90
중구역		1	5		3	1	9	2		27		6		54
서성구역		1	1	4	3	6	3	2	1	11	3	1	6	42
모란봉구역		1	8	5		6	12	1	5	2		25	6	71
형제산구역				6	16	8	35	13	17	28	17	12	11	163
보통강구역		3	2	1	2	2	8	1		16		2	3	40
은정구역					37						22			59
룡성구역				1		13	45	30		9				98
대성구역			1	4	1	5			1	7			6	25
사동구역							1							1
삼석구역													20	20
만경대구역				27	1	7	16	14	1	14	3	7	3	93
락랑구역						3	10			10	3	10	71	107
력포구역										8				8
선교구역						1	2	2		5	3		3	16
동대원구역		1	1	2			1	3		3	2	1	2	16
대동강구역						2			1	1	2	2	6	14
합 계	4	8	29	62	67	70	150	78	30	145	57	72	145	917

아파트완공 동향이 초기부터 확산되는 모습은 김정은 집권이후 아파트 건설에 대한 시장자본의 잠식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구역은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룡성구역, 만경대구역 순이다. 해당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평양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정책에 따라 대규모 단지로 착공되었다가 건설이 중단된 지역으로 대부분 저층형(3~5층)이나, 중층형(5~10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지역에 착공되었다가 정제된 다수의 지역들은 만경대구역을 제외하면 인구밀도가 낮아 건설투자가 제한적임에도 빠른 기간에 완공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초굴착공사가 완공되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중단되었다는 점, 따라서 적은 건설자본의 투자로 완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점차 건설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천구역, 중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만경대구역 등은 지리적으로 평양의 중심지역을 이루는 본평양과 서평양에 위치해 있고 도심의 인구밀도가 높아 고층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평천구역과 중구역, 보통강구역은 평양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로 아파트 수요가 많고 개발 가능한 잉여부지가 부족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주거용 부지, 소규모 사업소 부지를 재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상당수가 고층형(11~20층)이나, 초고층형(21층 이상)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다.

2023년 4월 16일 기준 위성영상에서 최

그림 9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층별 현황(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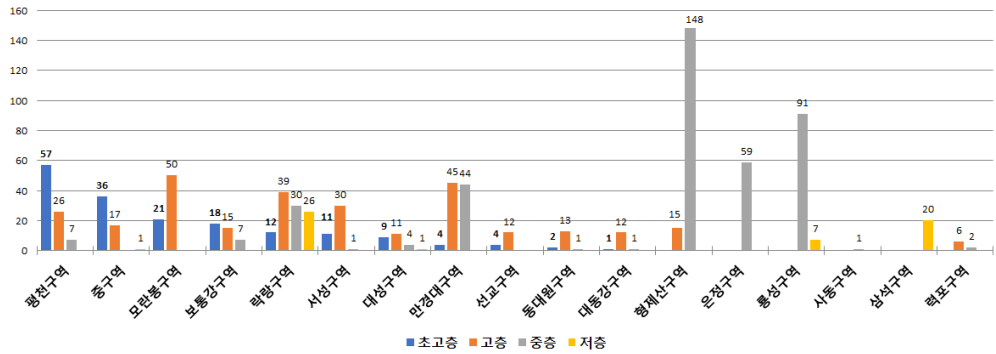


표 5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 현황(동수)

구역명 \ 년도	0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보통강구역	1				1	2			5	11	34		7	2	63
력포구역	6														6
형제산구역	7										2				9
룡성구역	8														8
락랑구역	69	3	2	1		1					1		1		78
평천구역					1	2	1	1		1	1		1	1	9
중구역			3				5	2		2					12
서성구역					5			2		1	6			1	15
모란봉구역				1				3		21	18				43
대성구역								3		4		1	1	2	11
만경대구역										2	4				6
선교구역				3											3
동대원구역				1		1	3	1			3				9
대동강구역								1		5	1				7
합계	91	3	5	6	7	6	9	13	5	47	70	1	10	6	279

중 확인되는 건설중인 아파트 현황은 총 279개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락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순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착공기간이 10년이상 된 지역은 보통강구역, 력포구역, 형제산구역, 룡성구역, 락랑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10만세대 살림집 건설로 착수되었다가 상당수 완공된 형제산구역과 달리 락랑구역은 대부분 정제되어 있다.

살림집 건설 기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1.3년이 소요되는 대 상건설과 달리 일반건설에서는 전체 평균 건설 소요기간이 6.6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역별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선교구역, 락랑구역, 은정구역으로 평균 건설기간이 10년 이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1개 동수에 불과한 삼석구역을 제외하면 중구역, 평천구

그림 10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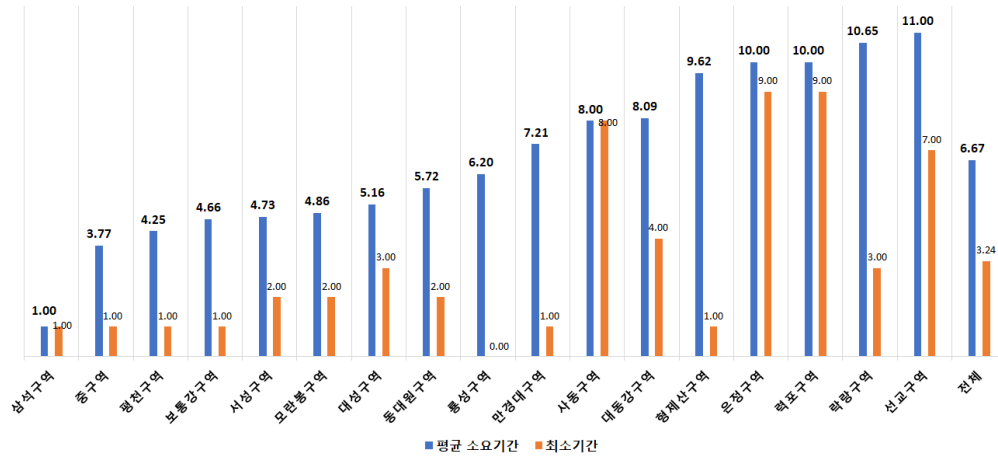


표 6 일반건설 평균소요기간 및 초고층 건설 비율

구분		'00~'06	'07~'10	'11~'14	'15~'18	'19~'23	합계
평균건설기간(년)		10.8	8.38	5.18	4.07	2.86	6.25
착공동수		93	539	257	136	171	1,196
완공동수		0	0	103	365	449	917
초고층	동수	0	23	93	51	8	175
	착공비율(%)	0	5.2	38.6	49.5	21.6	19.0%

역, 보통강구역 등은 3.7년에서 4.8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간이 다른 구역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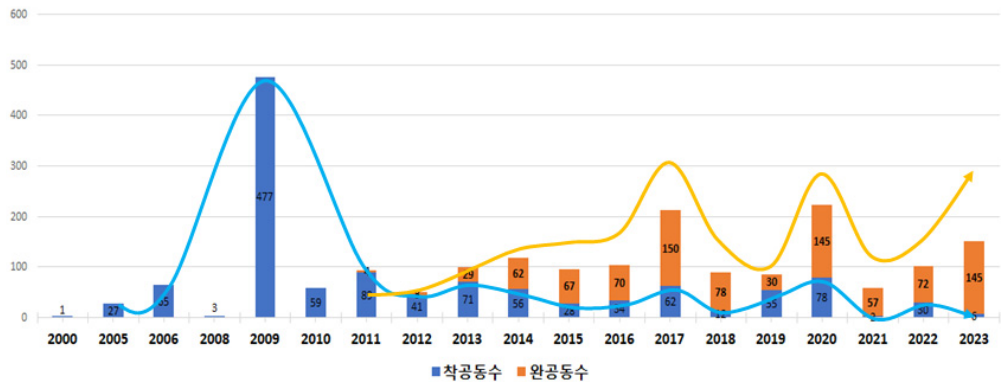
아파트 건설소요 기간이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건설자본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건설자본이 집중되는 지역은 주민들의 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평양의 중심지역, 인기가 많은 지역에 근접할수록 투자가 활발하고 고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타의 지역에 조성되는 아파트들 보다 상대적으로 고층형, 초고층형 아파트가 대거 건설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아파트 건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착공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던 미완공아파트 건설이 재개되고

새롭게 착공한 아파트들과 완공된 아파트들의 동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증가하는데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아파트 완공동수가 점차 증가하고 건설기간도 과거와 달리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년부터 23년 사이에는 평균 2.86년으로 건설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21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가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공장기업소 자율경영체제의 강화되고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자본이 부동산 건설자본으로 옮겨가는데 있었다.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추이를 보면 2011년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가 자율경영제가 시작된

그림 11 평양시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동수)



2013년부터 아파트 착공수와 완공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건설자본이 건설주와 시공권을 가진 공장기업소와 연계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확대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평양시의 아파트건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8년을 기준으로 착공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착공하지 않는 지역들이 다수 나타나고 2019년에는 일부 착공수가 증가하지만 반대로 완공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착공수와 완공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착공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은 2017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연료, 장비 등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착공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대외무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대내적 요인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되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상

대적으로 지방차원에서의 건설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 보면 2021년 송신-송화지구건설이 본격화되고, 2022년에는 경루동, 대평지구, 화성지구1단계, 2023년에는 화성지구2단계, 서포지구 건설이 추진되면서 건설인력, 장비, 건설자재가 대량 건설로 유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김정은 시대 살림집 건설 성과와 한계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정치행위이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주민들에게 북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직접적인 체감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며,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개발해 과도하게 증가한 인구과밀화를 해소하는 건설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위성도시 건설은 인구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한 도심지역을 현대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추진된 5만세대 살림집 건설로 거주인구가 중심지역에서 외곽으

로 분산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상건설로 추진한 위성도시는 32,000세대, 여기에 재개발 지구로 건설한 6,300세대를 포함해 2024년 현재까지 총 38,300세대가 공급되어 인구과밀화를 해소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완공을 앞두고 있는 화성지구3단계와 2025년 4단계지구까지 2만호가 추가로 완성된다면 5만세대 건설 목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건설정치와 달리 일반건설은 시장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변화해왔다. 사실상 시장자본에 의한 평양 판 부동산 건설 붐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까지 이어져 왔으나, 대상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건설장비, 건설인력 등 모든 면에서 대상건설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장자본에 의한 지방건설역량이 대상건설(동원)로 흡수되면서 일반건설의 정체, 약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평양시 살림집 건설이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짧은 기간 재개발, 위성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된 결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대부분 아파트는 평양화력발전소의 온수공급에 의존하는 중앙난방식으로 건설되어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전력공급이 어려워 승강기 이용과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동수단이 열악한 위성도시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차원에서 추진한 일반살림집도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부족한 살림집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건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건설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난개발식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상건설과 달리 일반아파트는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악한 전력공급 문제, 온수사용 문제, 승강기나, 생활용수 공급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차원의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문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허가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 건설과정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낮은 질의 시멘트, 철근, 용접봉 등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재를 빼돌리거나,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는 문제, 기초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 등 부실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도 상존한다.

계층에 따른 입주의 차별화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평양시 중심지역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주요거리나, 재개발지구는 입주대상이 일반인보다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도계층에 속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창전거리, 경루동 등은 과학계, 언론계, 교육계, 당정관료 등 평양주민 중에서도 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반면 평양시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위성도시는 외곽지역에 조성되고 대체로 일반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평양시 공장, 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혁명렬사 가족, 다자녀 가구, 전사자, 피살자가족을 비롯해 평양시 일반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평양주민의 계층적 특성에 따라 평양시 생활권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평양 인구체증을 고려하면 향후 위성도시 건설은 제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위성도시 건설규모가 평양시 인구체증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양시 인구를 가구로 환산하면 살림집 공급이 정제된 2000년대 이후 1가구 4.2인 기준 약 66.1만 가구에서 2020년 현재 약 73.4만 가구로 약 7만3천세대가 증가했다. 2010년대부터 2024년까지 건설된 주택규모는 54,694가구로 향후 건설될 2만 가구를 포함하면 일부 재개발규모를 제외하더라도 인구 체증은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평양시 재건사업 이후 건설된 노후화된 살림집이 평양시 중심지역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상건설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일반살림집 건설을 포함하면 2010년대 급격하게 확산된 건설동향과 달리 소규모 형태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 살림집 건설에 대한 규제, 투자와 입주자격, 아파트 불법거래 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소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국제정세에 따라 북한의 전쟁특수가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일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이다. 살림집 건설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김정은 집권이후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0년대 후반 거시경제가 위축되고 시장화가 악화되면서 등 위민 정치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점,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의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평양시 현대화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2024), 『북한법령집 上』
- 국가정보원(2024), 『북한법령집 下』
- 김 혁(2023), “천리마와만리마의공존:평양살림집건설”,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연구총서 23-27, 통일연구원.
- 김 혁(2024.11.22.), “북한 살림집 건설 특징과 지역개발전망” 한국지역개발학회, LH연구원 공동 주최, 202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토지주택연구원(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년 1,2분기)』
- 통일연구원(2023), “북한도시포럼”
- 통계청, “북한통계: 주요도시인구”(검색일: 2024.11.20.)
- 노동신문(2024.6.10.),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인다”
- DailyNK(2008.1.18.), “조선신보 ‘北, 평양에 5년간 주택 10만호 공급”
- 연합뉴스(2011.6.20.), “北 '평양 10만호 사업' 2만 세대로 축소”
- Google Earth Pro(영상일자: '00.11.06-'24.3.17.)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www.nkinfo.unikorea.go.kr

PART 2

건설·개발 주요동향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s



I.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

2024년 초부터 전국 20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성천군 준공 등 일부 지방공업공장의 외관은 완성단계로 보이나, 공장의 정상적 가동 가능 여부는 미지수

1. 정책 개요

- 북한은 지방공업공장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 발표
 -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방공업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지방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
 - 당중앙위원회, 내각, 지방 당조직, 인민군대 등이 주요 주체로 참여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 정책의 열개
 - (정책 명칭) 지방발전 20×10 정책
 - (추진 기간)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 (주요 목표) 지방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 전면적 균형 발전
 - (핵심 주체) 당중앙위원회, 내각, 지방당 및 행정기관, 인민군대
 - (주요 지역) 전국 200개 시·군 중 20개 시·군(연차별 추진)
 - (정책 슬로건)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

2. 정책 추진 배경

-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시·군 단위의 경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음
- 지방 발전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특히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자원의 조달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방에서의 자급자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 부각
- 정책의 필요성
 - (지방과 수도 간 불균형 해소) 지방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 (기본 생필품 공급 확대) 지방에서도 의류, 신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원활히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의 자립 경제 구축) 각 군 단위에서 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 시스템 마련
 -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원 활용 극대화) 지방에서 생산 가능한 원료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효율성 제고

3. 지방공업 공장 건설운영의 계획 및 원칙

-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을 모델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재, 설계,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공장 건설·운영의 핵심 원칙
 - 인구수, 경제 실태, 자연지리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 입지 선정
 - 지역 내 원료 기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
 - 전기, 공업용수, 물류 및 교통망 등 부대시설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장 가동력 확보
 - 중앙비상설추진위원회 및 도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의 체계적 관리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행력 제고
 - 생산설비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4.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및 조치

- 재정 및 자재 지원
 -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시멘트, 강재, 목재 등)를 국가 차원에서 전량 공급
 - 철도 및 물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 강화

- 원자재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자재 조달 문제 해결
- 지방 정부가 중앙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체적인 자재 확보 방안 마련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 행정적 지원
 - 도, 시, 군 단위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경제실무적 조치 마련
 - 지방 정부 차원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시스템 정비
 - 지방공업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
- 정책 홍보 및 독려
 - 지방발전정책 관련 대대적 선전·교육 강화
 - 주요 당 간부 및 내각 인사의 현지 방문을 통한 독려
 -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홍보 강화
 - 언론 및 선전매체를 활용하여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
 -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모범 사례를 전파

5. 2024년 하반기 추진 현황

- 상반기 추진 사항을 기반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본격화
- 20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골조공사 진행
- 성천군, 장풍군, 구성시, 온천군, 동신군, 고산군 등에서 공사 진행
- 군인건설자(조선인민군 제124연대) 투입하여 신속한 공사 진행
-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별 작업 속도 증가
- 원료기지 조성 확대
 - 공장 운영을 위한 원료 확보를 위해 기름작물 및 종이원료림 조성
 -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등의 원료기지 건설 본격 추진
 - 철도 및 설비 조달을 위한 지원 강화(김책제철련합기업소, 평양탄광기계공장 등 협력)
 -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 장기적인 생산 안정성을 위해 원료기지의 지속적 확충 추진

6.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12.20.)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12월 20일 개최
- 올해 추진된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유일하게 준공

- 당초 2024년 내에 대부분을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준공 지연(2025년 초 상당수 준공 예정 보도)
- 김정은 총비서 준공식 참석 및 연설
 - 기름생산실, 간장, 된장생산실, 밤줄임생산실, 빵생산실, 음료생산실, 비누생산실, 목재 가공작업반을 비롯한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의 여러 생산공정 시찰 및 요해
 - 현대적 생산공정들을 활용하여 인기제품, 지방고유의 특색이 살아나는 명상품들 생산 주문
 -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운영에서 기본은 생산정상화와 질제고
-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활동과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
 -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확대
 - 제품검사 체계를 확립
 - 생산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
 - 제품포장에서 편리성과 실리성을 철저히 보장

7. 평가 및 향후 전망

-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연내 준공은 성천군이 유일
 - 종합병원과 양곡 시설 등 다른 국가적 대상 건설사업의 동시 추진, 건설 후 운영기반 확보의 미흡, 자연재해 대응 등의 사유로 준공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
- 다만 김정은은 성천군 준공식에서의 연설에서 성천군 이외에 작년에 추진된 나머지 시군 들에서 “새해(2025년) 시작과 함께 수십 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 일시에 준공”된다고 언급
 - 상당수의 시군에서 공장건물의 외관은 완성단계로 파악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이 2024년초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천명한 것이며, 향후 수년간은 준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년 20개 시군을 발표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이러한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건설된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
- 트럼프의 재선 등 급변하는 작금의 국제질서는 북한 지방발전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트럼프 1기 시절까지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하 노이에서의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국가 경제 운영방향을 지방 자립형으로 선회
 - 만약, 북핵 문제의 해소,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등으로 북한에서의 국제관광 유입 확대, 외자도입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자급자족형 지방발전 노선을 다시 선회하거나 대외 개방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 2010년대에 전국에 걸쳐 30여개 가까이 지정되었던 경제개발구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만큼 상황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II. 2024년 3,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¹

2024년 전국 살림집 완공은 약 83천 세대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52천 세대의 1.6배 수준임, 농촌 살림집은 2024년 44.7천 세대를 완공, 2023년(24천 세대)의 1.9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21년 이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살림집 건설사업에서는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지방경제의 전반적 발전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1.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거리 건설사업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 세대, 매년 1만 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년째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행 중
- 2024년 2월 23일 착공한 화성지구 3단계 사업은 7월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², 11월 이후 소층, 고층 살림집과 봉사망, 시설물, 학교 건설 등을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³

표 1 2021년 이후 평양 새거리 건설사업 현황(2024년 12월 기준)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노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살림집, 봉사망, 시설물 등 마감 단계 진행 중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변	2022.4.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1 2024년 1, 2/4분기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의 “1, 2/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3, 4/4분기 사업 실적과 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2 노동신문(2024.07.14.), “〈새 기적, 새 신화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화성전역〉 새시대 천리마를 타고 달린다 - 련일 놀라운 공사실적 기록, 내외부미장 성과 계속 확대”

3 노동신문(2024.11.08.),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 건설
 - 처음 2년 동안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 이후, 2023년에도 다층 및 소층 살림집 수천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노동신문, 2023.08.25)
- 검덕지구에 매년 5,000세대 살림집 건설 중이며, 2024년에도 지속 추진 중
 - 2024년 초, 단천시 대흥 1동과 무학동에 1천여 세대 소층, 다층 살림집을 완공하고(노동신문, 2024.1.20.), 룡천동에도 선경마을이 일어섰다고 보도(노동신문, 2024.1.23.)
 - 룡천동, 수백 세대 살림집 입사모임(노동신문, 2024.12.08.)
 - 남풍동, 본산동, 전진1동, 2동, 천수백 세대 살림집 새집들이(노동신문, 2024. 12.27)

그림 1 검덕지구 살림집 전경



출처: SPN(2024.12.27.), “北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천수백 세대 살림집 건설, 입사모임”(원출처: 노동신문/뉴스1)

3.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 개요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이후 본격 시작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의 농촌마을에서 추진
- 이하, 1, 2/4분기의 농촌살림집 사업실적 등은 이전 추정방법과 결과를 유지하고, 이 추정방법을 3, 4/4분기 실적 분석에도 적용하였음

□ 2024년 농촌살림집 실적 추정

- 노동신문 기사⁴에서 2024년 6월 초 기준 농촌살림집 사업 실적 ‘종합자료’를 제시

- 현재까지 농촌살림집이 완공된 농장 수는 수백 개이며, 세대 수는 4만 4천여 세대
- 2024년 상반기 기간에 60여 개 농장에서 18,000여 세대 완공
-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은 113,700여 세대

-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추정한 총 농촌살림집 완공 세대수, 2024년 1, 2/4분기 실적 추정치와 '종합자료'를 비교해 보면, '종합자료'가 추정치의 '0.843배'임
 - '종합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때, 신문 기사 기준 추정치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수천 세대, 수백 세대, 백 수십 세대를 각각 4,000세대, 400세대, 140세대"로 가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이외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군 지역의 농촌살림집은 건당 230세대, 시 지역은 건당 150세대로 기존에 알려진 지역별 농촌살림집 평균 세대수를 적용한 것도 과다 추정의 이유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오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종합자료'에서 제시한 2024년 1, 2/4 분기의 완공 농촌살림집 18,000세대를 기준으로 기존 신문 기사로 추정한 자료에 '0.843'을 곱하고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0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실적치를 추정하였음
- 2024년 3/4분기에는 18,500세대, 4/4분기에는 8,200세대 준공한 것으로 추정됨

4. 2024년 전체 살림집 사업 완공 실적 추정

□ 2024년 살림집 사업 규모

- 2024년 북한의 살림집 건설사업 총 완공 건수는 8만 3천여 세대로 추정됨
 - 평양시는 1만 세대 건설사업 등 기사화한 사업의 2배로 추정(1만 세대 사업 이외 일반 사업 포함)하였으며, 검덕지구는 당초 계획 물량인 연간 5,000세대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 농촌살림집 사업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총 44,700세대로 추정
- 농촌살림집이 약 45천 세대, 평양시 살림집이 28천여 세대, 기타 약 5,400세대 순임
-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약 38,000세대로 준공 물량이 가장 많았음
 - 이는 2/4분기에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전년도 농촌살림집 사업이 이 시기에 다수 완료했기 때문으로 보임
 - 다음으로 3/4분기에 19,500세대, 4/4분기에 14,700세대, 1/4분기에 11,100세대 준공

표 2 2024년 살림집 준공 실적 추정(종합자료로 보정)

(단위: 세대)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83,300	11,100	38,000	19,500	14,700
평양시 살림집 사업	28,200	8,200	20,000	-	-
검덕지구 살림집	5,000	2,500	-	-	2,500
농촌살림집	44,700	400	17,600	18,500	8,200
기타	5,400	-	400	1,000	4,000

* '기타'는 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 등임. 기타 살림집 사업, 체육관 숙소 등 기사에 규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건당 200호로 추정
* 평양시 살림집 사업과 기사 실적은 기사의 세대수를 각각 2배한 값임. 북한의 살림집 건설은 '대상건설'과 '일반건설'로 구분, 신문에 실리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건설에 국한됨⁵. 대상건설과 일반건설 물량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2023년 대비 2024년 살림집 완공 실적 약 1.6배

- 2024년 전국 살림집 완공은 약 83천 세대로 2023년의 52천 세대에 비해 1.6배 수준
- 농촌 살림집은 2023년 약 24천 세대에서 2024년 44.7천 세대로 약 두 배로 증가
- 기타 사업량 증가는 2024년 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수 살림집이 건설되었기 때문

표 3 2023년, 2024년 1,2분기 살림집 준공 실적 추정치 비교

(단위: 세대)

구분	2023년	2024년	B/A
합계	52,000	83,300	1.6
평양시 살림집 사업	22,800	28,200	1.2
검덕지구 살림집	5,000	5,000	1.0
농촌살림집	24,100	44,700	1.9
기타	100	5,400	54.0

5. 시사점

- 2021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살림집 사업에서 무난히 달성 중
 - 평양시 살림집 사업 매년 1만 호씩, 검덕지구도 5천 호씩 진행 중
 - 2022년부터 추진한 농촌 살림집 건설도 전국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매년 확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천 호, 2023년 24천 호, 2024년 44.7천 호로 약 두 배씩 증가
- 코로나 위기 극복,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통한 교류지원 확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 이후 생활환경 개선 추진 등 대내외 조건 변화, 그리고 살림집 사업이 시멘트와 노동력 등 내부적으로 동원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지방발전 20×10 정책' 연계, 지방경제 전반의 발전까지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5 김혁(2023),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 2023 북한도시포럼: 평양의 도시레짐, KINU, pp.15-56.

III. 북한 스마트건설과 건재 기술개발 동향

북한에서의 스마트건설 동향을 살림집에 대한 조립식 건설공법 적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건재와 관련된 기술동향을 관련 문헌을 통해 정리하였음

1. 북한 스마트건설 동향: 조립식 건설공법

- 북한에서는 디지털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수자경제’를 사용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오래전부터 언급해왔음
 -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자화, 수자경제 등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으며, 이러한 동향은 이전 시대의 정보화, CNC 등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최근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 관련 보도건수를 근거로 현재의 기술성숙도를 ‘수자경제의 본격 진입단계’로 평가한 연구사례도 있었음⁶
- 남한의 건설부문에서는 디지털전환에 대해 일반적으로 스마트건설의 개념을 사용
 - 스마트건설에 적용되는 기술에는 BIM, 클라우드, IoT, 센서,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OSC(모듈러공법, PC공법), 로봇릭스, 3D 프린팅 등이 있음
- 최근 다수의 북한 기사 또는 기술 문헌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례, 개발현황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조립식건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함
-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립식 건설공법 도입의 효과와 기존 수립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 과거 전후 살림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1962년 조립식 주택 건설 비중이 72.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었음⁷
 - 조립식과 결합된 천리마운동의 주 관심사는 “얼마나 빨리”와 “얼마나 많이”로, 하나의 구호로 나타나 것이 14분에 1채씩 건설하는 “평양 속도”였음
 - 부재수의 최소화가 중요한 사안이였으며, 1956년 첫 조립식 주택의 구성요소가 127종류였으나, 2년 후 외량식(편복도) 다층 살림집에서는 30-35 정도로 축소
 - 대표적 공법이 통방부재였으며,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 등 단위실을 단일 부재로 만드는 것으로 기존 패널 부재 결합보다 간단하며 신속한 설치를 가능하게 함
 - 당시 소음, 단열, 누수 등의 하자, 기타 여러 이유로 기존 공법으로 회귀한 바 있음
-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을 위해 살림집에 조립식 건물 시공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 공법 개발을 위해 ‘조립식건물구조설계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함⁸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건설협회의 주최로 6월 11일부터 이틀동안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됨

6 강호진과 양문수(2024), “북한 ‘수자경제’ 수준 평가와 특성”, 『평화학연구』, 25(3): 107-131

7 건축사신문(2018.09.01), “기획연재 (1) 전후 복구와 공동 살림집(아파트) 건설” (홈페이지, <http://archinews.net>)

8 SPN 서울평양뉴스(2024.06.13), “북 ‘조립식건물구조설계에 관한 연구토론회’...조립식건물 시공 증가”

-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설계총국, 평양건축대학 등 여러 단위에서 참석하였으며, 조립식건물구조설계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고 내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찾고자 하였음
-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공사에 새로운 조립식 건설공법이 도입돼 성과를 내고 있음⁹
 - 평양건설위원회의 여러 시공 및 건재생산 단위에서 평양건축대학 건축공법연구집단과 협동해 내진성을 높인 조립식공법을 공사에 도입함
 - 지난 시기 토막부재로만 시공하게 돼 있던 조립식 공법설계 대신 벽체와 층막을 통부재로 조립할 수 있는 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있음
 -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 건설에 이어 화성지구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조립식 시공방법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음
 - 중구주택건설사업소 등 여러 시공단위에서는 건재공장에서 생산된 질 좋은 부재를 이용해 고층살림집 건물을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손색없이 건설하고 있음
 - 이 공법의 도입으로 미장 작업량이 줄었거나 불필요하게 됐으며, 공사기일도 훨씬 단축되고 많은 노력과 휘틀(거푸집)도 절약되는 등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남한에서는 OSC 개념 하에서 모듈러공법, PC공법이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은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부재에서 PPVC로 제작단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됨
- 화성지구 초고층 주거 건축에 조립식 공법이 도입되려면 생산, 양생, 운반, 조립 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 우수한 양중장비 마련, joint, 방수, 내진 등의 요소기술 수준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공적인 적용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그림 1 조립식 건설 관련 사진



통방부재를 활용한 조립식 공법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 건설 모습

출처: (좌) 건설자 1985년 7호 표지 (건축사신문(2018.09.01)에서 재인용)

(우) SPN 서울평양뉴스(2023.11.13), “북한, 고층살림집 기술혁신 선전...전문가 “공정 빠르지만 문제 많아””

⁹ SPN 서울평양뉴스(2023.06.15), “北,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공사...“새로운 조립식 건설공법 도입 성과””

2.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북한 경제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중에 질적 측면에서도 건재를 비롯한 투입요소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당 기술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간략히 검토함
- 문헌 상의 부문을 기준으로 건설, 수송, 기계, 전자, 건재, 경공업, 화학 등에 대해 총 65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23건이었음
 - 각 논문을 별도로 설정한 분야와 유형에¹⁰ 따라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이 건축 분야 관련 문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음
- 건설 관련 논문 65건에 대한 제목과 해당 분야 등 개략적인 정보는 <표 3>과 같음

표 1 문헌 상의 부문에 따른 건수

문헌 부문	구 분	건 수
건설·수송 (36건)	건 설	33
	수 송	3
기계·금속채취 건설전력 (7건)	기 계	4
	건 설	2
	전 력	1
전자정보 (15건)	전 자	2
	정 보	13
경공업·화학 (6건)	경공업	3
	화 학	3
농업·수산	수 산	1
총 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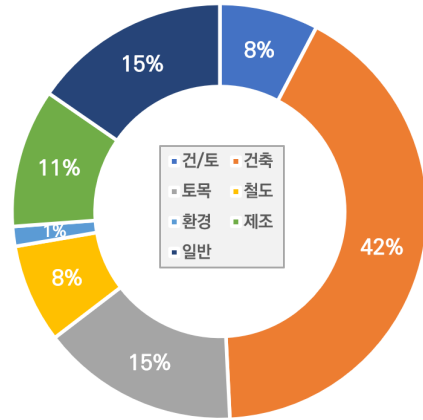


표 2 분야·유형별 관련 문헌 건수(총 65건)

분 야	유 형	건 수
건 축	계 획	1
	구 조	3
	자 재	15
	공 법	5
	설 비	3
	소 계	27
건축/토목	공 법	5
환 경	공 법	1
제 조	자 재	7

분 야	유 형	건 수
토 목	자 재	1
	공 법	4
	설 비	3
	관 리	2
	소 계	10
	공 법	1
철 도	수 송	4
	소 계	5
일 반	기업공통	10

10 분야는 일반, 건축, 토목, 철도, 제조, 환경 등으로, 유형은 계획, 구조, 자재, 공법, 설비, 수송, 관리, 기업공통 등으로 분류함

표 3 건설 관련 문헌 목록(2023년 발간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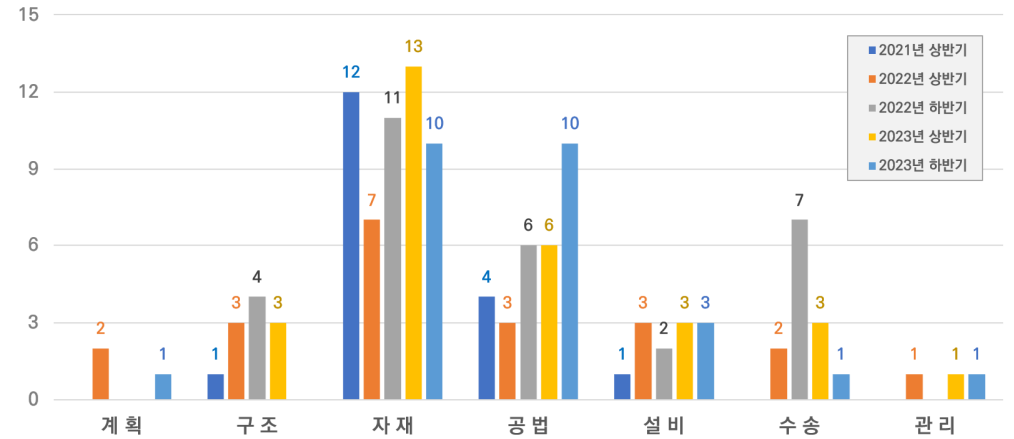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문	분야	유형
2023년 1월호	23-01-①	나무가루-폴리염화비닐복합건재판생산에서 나무가루함량을 높이는 방법	11	경공업	건축	자재
	23-01-②	방수형장력계	33	수산	토목	자재
2023년 2월호	23-02-①	지능형LED가로등구동장치	12~13	전력	토목	설비
	23-02-②	금강약돌과 그래핀, 전기석을 리용한 기능성타일 제조	23~24	경공업	건축	자재
	23-02-③	광전식연기수감부의 감도측정장치	42~43	전자	건축	설비
	23-02-④	매물형처리기를 리용한 수자식세멘트세기축정장치	46	전자	건/토	공법
2023년 3월호	23-03-①	그래핀과 전기석에 의한 금강약돌타일의 항균특성 개선	13	건설	건축	자재
	23-03-②	콘크리트속박을 리용한 마디점구역의 자름면늘이보강방법	14	건설	건축	구조
2023년 4월호	23-04-①	다기능성녹막이칠감제조방법	16~17	화학	건축	자재
	23-04-②	세멘트생산에서 류화철미광의 리용과 그 효과	31~32	건설	제조	자재
	23-04-③	저품위철광석을 리용한 세멘트생산방법	32~33	건설	제조	자재
	23-04-④	화학착색법을 리용한 평삭단판의 장식성 개선	33~34	건설	건축	자재
	23-04-⑤	가로등지리정보체계의 공간자료기치 구축	34~35	건설	토목	설비
	23-04-⑥	생활오수정화에 토착미생물을 리용	35	건설	환경	공법
	23-04-⑦	지식관리상태에 대한 평가방법	43	정보	일반	공통
2023년 5월호	23-05-①	레루안내식점판압자동부림기	17	기계	제조	자재
	23-05-②	속빈대형부재에 의한 조립일체식다리기동시공방법	30~31	건설	토목	공법
	23-05-③	콘크리트판휘틀에 의한 철도다리기동의 세굴막이무늬이 시공방법	31~32	건설	토목	공법
	23-05-④	류산염건달성포르틀란드세멘트 생산방법	32~33	건설	제조	자재
	23-05-⑤	경소마그네사거품보온재를 리용한 건구판 생산	33~34	건설	건축	자재
	23-05-⑥	전기기관차에 새형의 접지장치 도입	34~35	수송	철도	수송
	23-05-⑦	철길로반과 교량사이 이행구간의 길이 결정	35~36	수송	철도	수송
	23-05-⑧	Maya와 Unity 3D를 리용한 반자동길차지장치기술관리 실습지원프로그램	36	수송	철도	수송
	23-05-⑨	지식자원의 확보방법	41~42	정보	일반	공통
	23-05-⑩	Unity 3D를 리용한 측량모의실습프로그램	42~43	정보	토목	관리
2023년 6월호	23-06-①	집중집이 작용하는 고리형보에서의 내력 결정	36~37	건설	건축	구조
	23-06-②	평면곡선요소에서 등가마디집 결정	37~38	건설	건축	구조
	23-06-③	혼합배치형식을 리용한 새로운 경사로라식철근교정기	38~39	건설	건/토	공법
	23-06-④	에틸렌글리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리용한 기와형틀 분리제	39~40	건설	건축	공법
	23-06-⑤	합판장식인쇄를 위한 흰색도포액 제조	40~41	건설	건축	자재
	23-06-⑥	쉽게 만들수 있는 백색세멘트	41	건설	건축	자재
	23-06-⑦	기업체들에서 지식관리에 대한 조직지휘방법	51~52	정보	일반	공통
	23-06-⑧	지식관리에 대한 리해방법의 중요성 확정	52	정보	일반	공통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문	분야	유형
2023년 7월호	23-07-①	민족건축물의 건축요소들을 실측하기 위한 수자사진해석	37~38	건설	건축	계획
	23-07-②	길이와 세기가 서로 다른 말뚝들을 배치하여 연약한 지반의 일상태 개선	38~39	건설	건축	공법
	23-07-③	둥근모양의 투수공크리트 제조	39	건설	토목	공법
	23-07-④	석로의 UPS방전시 출구부하제한장치	40	건설	건축	자재
	23-07-⑤	공기조화기냉동계통의 컴퓨터모의방법	46~47	정보	건축	설비
	23-07-⑥	중첩신경망에 의한 Landsat OLI자료의 전정색융합방법	48~49	정보	토목	관리
2023년 8월호	23-08-①	소형팔기중기권양작업과정의 동력학적모형 작성	38~39	건설	건축	공법
	23-08-②	소형팔기중기의 합리적인 구조선정과 전복안전성 분석	39~40	건설	건축	공법
	23-08-③	갈탄버력을 리용한 세멘트 생산	40	건설	제조	자재
	23-08-④	색기와생산용 열풍건조기	41	건설	건축	자재
	23-08-⑤	PLC를 리용한 기와양생공정의 자동온도조종체계	41~42	건설	건축	자재
	23-08-⑥	모호종합평정에 의한 철도국의 합리적인 분계역배치방법	50	정보	철도	수송
	23-08-⑦	사무원실적평가체계의 개발	52	정보	일반	공통
2023년 9월호	23-09-①	수직로에서 중간송풍이 세멘트의 질에 미치는 영향	36~37	경공업	제조	자재
2023년 10월호	23-10-①	건설기업소에서 재정회계업무처리의 정보화	27~28	건설	일반	공통
	23-10-②	시각정보처리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측정방법	28	건설	건/토	공법
	23-10-③	화강암연마용 탄화규소연마석 제조	29	건설	건축	자재
	23-10-④	채인쇄에 의한 경소마그네샤출입문장식방법	29~30	건설	건축	자재
	23-10-⑤	책상 겸 침대다기능가구에서 회전기구요소의 기구학적원리와 치수 결정	30~31	건설	건축	자재
	23-10-⑥	제품자료관리체계에 의한 품질관리	43~44	정보	일반	공통
	23-10-⑦	기업체들에서 재자원화정형에 대한 경향성분석방법	44	정보	일반	공통
2023년 11월호	23-11-①	초음파충격처리에 의한 압력철관로 용접부의 응력완화 방법	9	기계	토목	설비
	23-11-②	철길에서 레루의 밀림막이	9~10	기계	철도	공법
	23-11-③	공크리트혼합장치의 자동조종 실현	10~11	기계	건/토	공법
	23-11-④	금속이온침투법에 의한 화강암골재의 착색	17	화학	건축	자재
2023년 12월호	23-12-①	쑥-박하향의 공기소독효과	27~28	화학	건축	설비
	23-12-②	자동측량기에 의한 건축물의 실측방법	36~37	건설	건축	공법
	23-12-③	연약한 지층에서 지보보강에 의한 굴진방법	37~38	건설	건/토	공법
	23-12-④	류화철과 소석화를 리용하여 합성석고 생산	38	건설	제조	자재
	23-12-⑤	경화제와 물의 주입에 의한 오염토양의 원위치경화기술	39	건설	토목	공법
	23-12-⑥	재자원화에 의한 제품생산의 경제적탄산방법	52	정보	일반	공통
	23-12-⑦	기업체들에서의 에네르기관리체계수립절차 확립	53	정보	일반	공통

- 2021년 이후 건설 관련 논문들의 추이를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표 4>와 같음
 - 전체 건수 가운데 자재 관련한 문헌이 39.6%를 차지하였고, 공법 관련 논문도 전체의 2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기술혁신」 수록 건설 관련 문헌의 유형별 건수 추이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2년		2023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 수	비 율
계 획		2			1	3	2.2%
구 조	1	3	4	3		11	8.2%
자 재	12	7	11	13	10	53	39.6%
공 법	4	3	6	6	10	29	21.6%
설 비	1	3	2	3	3	12	9.0%
수 송		2	7	3	1	13	9.7%
관 리		1		1	1	3	2.2%
기업공통				4	6	10	7.5%
총 계	18	21	30	33	32	134	100%



- 건재를 중심으로 주요 문헌들의 기술개발 내용을 정리함

[23-02-②] 금강약돌과 그라펜, 전기석을 리용한 기능성타일 제조

- 금강약돌을 주원료 하던 먼적외선(원적외선)복사타일에 그라펜 0.5~1%, 전기석 1~2%, 기타 첨가제를 이용하여 성능이 개선된 기능성타일을 생산함
- 새로운 타일은 파괴힘(N), 구부림세기(MPa), 먼적외선복사능 특성이 높아지고, 흡수률(%)이 낮아져 한층탕에서 땀내기속도와 로페물배설 효과 향상이 기대됨

[23-03-①] 그라펜과 전기석에 의한 금강약돌타일의 항균특성 개선

- 먼적외선방출, 강한 흡착작용, 압전효과, 열전효과에 따라 건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금강약돌과 전기석에 항균, 촉매, 유허특성을 지닌 그라펜을 첨가함
- 그라펜과 전기석을 첨가한 기능성타일의 시편에서 균이 모두 또는 상당부분 억제되었고, 시편으로 처리한 물의 균농도가 대조타일 대비 훨씬 낮게 나타남

[23-04-②] 세멘트생산에서 류화철미광의 리용과 그 효과

- 공업폐설물인 류화철미광을 세멘트생산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텡철광과 류화철미광로 각각 대조구, 시험구를 제조하여 특성을 비교함
- 류화철미광을 리용한 세멘트크랑카에서 용중(kg/m³)은 5.2%, 유리석회함량(%)은 29.15% 작아졌고, 소성로의 생산성(t/h)은 7.97%, 단위질량당 열소비량(kJ/kg)은 6.77%, 단위질량당 석고소비량(kg/t)은 35.48% 줄어 생산원가 절감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3일~28일 누름세기(MPa)도 향상되었음

[23-04-③] 저품위철광석을 리용한 세멘트생산방법

- 저품위철광석을 이용한 세멘트 생산에서 소성온도가 높아지고 유지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반응석회 함량이 줄어 크랑카형성과정이 정상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 저품위철광석을 이용한 세멘트의 응결시간, 누름세기(MPa) 특성이 일반세멘트와 비슷하게 나타나 세멘트생산에 있어 정상화 전망을 확보함

[23-05-④] 류산염건달성포르틀란드세멘트 생산방법

- 첨가제로 초무연탄+형석과 류화철+형석을 첨가하여 혼합한 원료를 분쇄한 다음 소성, 숙성, 분쇄공정을 거쳐 류산염건달성포르틀란드세멘트를 생산함
- 첨가제 혼합 세멘트의 180일류산염건달성결수는 0.88 이상, 최대 0.93으로서 일반세멘트 0.81 대비 높게 나타나 항만, 해상구조물건설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

[23-05-⑤] 경소마그네샤저품보온재를 리용한 건구판 생산

- 높은 세기, 보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백질거품제(머리갈, 짐승털/가죽)로 공극을 형성한 경소마그네샤저품보온재를 두 경소마그네샤판 사이에 첨가한 건구판 생산
- 활성MgO함량 80%이상 경소마그네샤, 경화제인 20~25%염화마그네시움용액, 함수를 10~15% 톱밥, 유리섬유포, 내수성첨가제, 단백질거품제 등으로 생산

[23-06-④] 에틸렌글리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리용한 기와형틀분리제

- 기와생산에서 형틀분리제는 기와표면의 평활성, 내오염성을 개선하고 형틀의 수명을 늘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함
- PET수지의 재자원화 과정에 분해생성물로 나오는 에틸렌글리콜을 원료로 에틸렌글리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제조하여 첨가제로 리용한 형틀분리제를 생산함

[23-08-④] 색기와생산용 열풍건조기

- 색기와와 생산은 세멘트로 성형한 기와에 색감을 칠하고 1차건조한 다음 광택제를 칠하고 다시 열풍건조하는 방법으로 진행
- 열풍건조기는 사슬콘베아를 움직이는 전동기, 전동기속도조종을 위한 인버터, 건조기 온도측정을 위한 온도수감부, 온도현시 및 온도조절기, 계전기, 80W송풍기, 자동개폐기, 전원스위치, 비상단추, 두위치스위치, 전압계, 신호등으로 구성됨

[23-08-⑤] PLC를 리용한 기와양생공정의 자동온도조종체계

- 기와양생공정에서 양생로의 온도를 합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생산성과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따라 PLC를 리용한 자동온도조종체계를 구성함
- 기본생산공정조종용PLC는 보조PLC의 CPU모듈, 통신모듈, 상사입구모듈, 상사출구모듈을 사용하며, 손접촉식대면부와 보조PLC는 RS-485방식으로 통신을 진행하며, 조종용컴퓨터와는 기본생산공정조종용PLC와 하브를 통하여 망통신 진행

[23-09-①] 수직로에서 중간송풍이 세멘트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수직로들에서 소성대의 열분포가 불균일하여 크링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송풍장치를 수직로에 도입하여 로운영방법을 개선하였음
- 중간송풍장치는 크링카 생산량을 7~10% 높였고, 크링카속 C3S함량 증가와 C4AF함량 감소에 따라 세멘트 세기가 2~3MPa 높아지고 유리석회함량은 2% 낮아짐

[23-10-④] 채인쇄에 의한 경소마그네샤출입문장식방법

- 경소마그네샤출입문의 바탕도색은 종전의 유성칠감대신 수성칠감으로, 무늬장식은 수성채인쇄잉크로 채인쇄를 진행한 다음 용매형광택제로 마감함
-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부착세기(MPa), 물건딜성, 세척견딜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없애고, 장식시간(h)을 대폭 줄여 원가를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임

[23-11-④] 금속이온침투법에 의한 화강암골재의 착색

- 금속이온침투법은 Fe, Cu, Pb, Ni, Co, Mn, Cr과 같은 금속의 염용액을 물이나 유기용매에 용해시키고, 유기물질착색법 같은 방법으로 착색용액을 석재, 골재의 공극속에 침투시킨 다음 다시 발색처리를 진행하여 여러 색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임
- 착색한 골재의 내수성과 내알카리성은 48 이상으로 종전의 40시간, 42시간보다 기술적특성이 훨씬 개선되었으며, 그 질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IV. 2024년 국가예산 집행결과와 2025년 국가예산 계획¹¹

2024년 예산지출은 살림집 건설 등 기본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 큰물피해복구 등에 집중,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 예산계획은 인민경제사업, 사회문화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높은 지출증가율 계획

1. 2024년 국가예산 집행결산의 주요 내용

- 경제제재 등 대외적 압력, 큰물피해 등 어려움에 맞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 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국가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 국가예산수입집행률은 1.6%, 규모는 4.3% 증가하여, 전년보다 집행률과 규모 모두 증가함
- 국가예산 지출은 전년에 비해 3.2% 증가함
 - *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 큰물피해복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 인민적 시책부문들, 12개 중요고지점령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관련 부문에 많은 예산을 지출
 -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최우선 보장
 - * 자립적 국방공업발전과 군사기술강군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 국방공업혁명 추진 지원
 - 기본투자를 전년보다 0.3% 늘려 보장
 - * 수해피해복구 자금과 지방공업공장건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룡성기계연합기업소현대화대상 등 중요대상건설 지원
 - 예산지출총액의 13.9%를 인민경제사업비로 할당
 -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너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등 정비보강사업에 집중
 - * 2023년에 대폭 증가(15%)시켰던 농업사업비는 전년보다 0.1% 늘려서, 이미 늘어난 규모를 유지 또는 상회한 상태에서, 영농물자구입, 관개시설완비, 농촌살림집건설 등에 보장
 -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9.6% 늘려 과학기술이 경제와 국방은 물론,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역할을 기대
 -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37.7%를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서 집행
- 2024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평가
 - 공장, 기업소들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기업관리와 재정관리를 해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생산과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침

2. 2025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 2025년 국가예산 편성 방향
 -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위해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집중, 인민생활향상과 과학, 교

11 노동신문, 2025.0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육, 보건,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함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보다 2.0%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¹²
 - 거래수입금은 전년보다 0.6% 증가, 국가기업이익금은 전년보다 2.5% 증가 계획
 - * 이 두 항목은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으로 수입총액의 84.3% 예상(전년도 84% 예상)
 - 이외의 예산수입항목들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1% 이하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함

표 1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수입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수입 전체	8.7	4.1	4.3	3.7	4.1	3.1	3.2	3.7	4.2	0.9	0.8	1.0	2.7	2.0
국가기업이익금*	10.7	6	7.9	4.3	4.5	3.5	3.6	4.3	1.2	1.1	0.9	1.2	3.2	2.5
협동단체이익금*	5.3	5.3	4.8	3.2	1.5	1.6	0.9	1.1	0.4	0.4	0.4	0	0.2	0
고정재산감가상각금	2.3	2.8	-	-	-	-	-	-	-	0.1	0	0.7	1.5	0.7
부동산사용료	1.7	3.4	9.5	0.7	4	2	1.8	0.3	0.1	0	0.3	0	2	0
사회보험료	1.7	-	5.1	2.8	1.1	1.2	1.2	0.2	0	0.3	0.2	1.0	2	1
거래수입금	7.5	3.5	4.5	2.6	3.3	2.4	2.5	4.1	-	0.8	0.6	0.3	0.5	0.6
재산판매및가격 편차수입	-	-	-	1.4	2.5	-	0.5	-	0.3	0.1	0	0.1	0.3	0.1
집금 수입	-	-	-	-	-	-	-	-	-	-	580.0	0.2	0.4	0.2
기타 수입	-	-	-	0.8	1.3	1.2	0.8	0.5	0.2	0.6	0.2	0	0.1	0
특수경제지대수입	-	-	-	3.6	4.1	1.2	2.5	1.6	-	0.2	0	0.3	0.6	0.3

자료: 2015년까지는 김석진(20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9 재구성, 2016년부터는 노동신문에서 구성
 * 2021년까지는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명명, 2022년부터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변경함

-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하는 수준에서 계획
 - 사회주의경제건설 투자를 전년보다 3.2% 늘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돌림
 - 국방비 할당 비율을 예년 15.9%에서 15.7%로 줄임
 - 기본투자 지출을 전년보다 1.2% 늘림
 - * 올해 기본투자 사업: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등
 - 인민경제사업비를 전년보다 1.6% 늘려 전력공업,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적극 추동하고, 새로 건설한 기업소들의 조업개시 준비 등에 지출
 - * 농업사업비를 전년보다 1.7% 늘려 영농물자보장, 농촌건설, 관개체계의 정비보강 등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리고, 농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전년보다 9% 늘려 경제부문의 정비보강, 생산물 질제고에서 역할 기대
 - 교육은 전년보다 6.4%, 보건 5.6%, 문화 5.7%, 체육 5.4% 늘림

12 2025년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2.3%(전년도 73.7%) 차지

표 2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지출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지출전체	10.1	5.9	6.5	5.5	5.6	5.4	5.1	5.3	6.0	1.1	1.1	1.7	3.4	3.8
인민경제발전	-	-	-	-	-	-	4.9	5.4	6.2	0.6	2.0	1.0	0.4	1.6
-공업(선행부문)			5.2	5.1	4.8	4.5								
-농업	9.4~ 12.1	5.1~ 7.2	5.1	4.2	4.3	4.4	5.5	5.7	7.2	0.9	-	14.7	0.1	1.7
-수산업														
-산림				6.8	6.9	6.8								
-기본건설	-	-	-	9.6	7.5	7.2	4.9	6.6	-	-	-			
과학기술*	12.2	5.8	4.3	8.7	13.7	2.6			-	-	-	0.3	0.5	1.2
사회주의문화	10.9	6.7	3.6	5.0	5.2	8.5	7.3	8.7	9.5	1.6	0.7	0.7	9.5	9
-교육											0.4			
-보건	9.2	6.8	5.6	6.3	8.1	9.1	5.9	5.5	5.1	3.5	2.6	0.7	6	6.4
방역 사업	8.9	5.4	2.2	4.1	3.8	13.3	6	5.8	7.4	2.5	0.7	0.4	5.5	5.6
-사회보장											33.3	0	0	0.2
-체육	7.0	3.7	1.4	-	-	-	-	-	5.8	-	-	-		
-문화	6.9	6.1	17.1	6.9	4.1	6.3	5.1	4.5	4.3	1.6	0.8	0.1	5	5.4
	6.8	2.2	1.3	6.2	7.4	4.6	3	4.1	-	2.7	0.3	0.3	5	5.7

자료: 2015년까지는 김석진(20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9 재구성, 2016년부터는 노동신문에서 구성
 *: 2023년까지 인민경제발전의 하위 항목, 2024년부터는 독자 항목으로 분리함

3. 시사점

- 국가예산계획의 수입증가율은 줄었지만, 지출증가율은 늘어 경제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예년(15.9%)보다 낮은 수준 국방비 할당(15.7%)으로 다른 부문 지출 확대 여건 마련
-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의 목표연도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본건설과 농업부문, 주민복지와 밀접한 교육, 보건, 문화 등에서 전년도보다 높은 지출증가율을 계획
 -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시군보건 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력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지방건설이 살림집건설은 물론, 여러 기능을 복합한 거점건설 등으로 확대 가능
- 과학기술발전사업비는 올해도 9%의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 계획(전년도 9.5%)
 - 2024년에는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을 강조한데 비해 2025년에는 경제부문의 정비보강과 생산물의 질제고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성과적 마무리 지원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시설 등의 개건 및 조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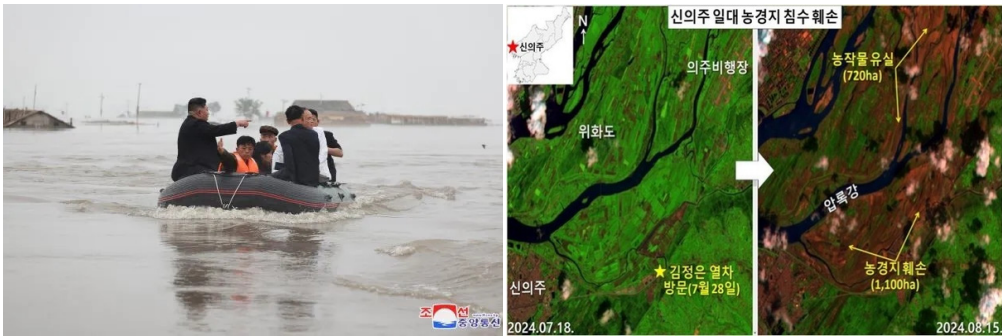
V. 평안북도, 자강도 홍수 피해 및 복구 현황

2024년 7월 27일, 북부국경지역에 기록적 폭우로 압록강 범람. 이로 인한 평안북도 및 자강도 지역, 대규모 살림집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 김정은 위원장은 수 차례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전국 군인 동원을 통한 살림집 복구, 수해지역 주민들의 평양 초대 및 임시 거처 제공 등 적극적인 수해 복구 활동은 북한 내부 관리 및 당의 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임

1. 북부 국경지역 홍수 및 피해 현황

- 2024년 7월 27일, 북중경계지역인 자강도 및 평안북도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 하류 신의주시, 의주군 등에서 약 5,000명 이상 침수위험구역 고립
 -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은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약 4,100여 세대 살림집과 약 30km²(약 3,000정보, 9백만평)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¹³(조선신보, 2024. 08. 05자).
 - 그 외 공공건물 및 시설물, 도로, 철길 등 다수 시설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 2024년 7월 28일, 양강도 김정숙군 장항리 지역도 150여명 주민이 폭우로 고립
 - 김정숙군의 장진강물 범람으로 주민 고립되어 공군 구조 작전 추진으로 주민 구조

그림 1 평안북도 홍수 피해 현황



출처: (좌) 조선중앙통신(2024.07.28.)

(우) 우리온(2024.08.20.), “신의주 일대, 여의도 10배 면적 훼손, 작황우려”,
<https://www.woorio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51>

2. 김정은 위원장의 홍수피해 복구 현지 지도 및 비상확대회의 소집

- (7월 28일) 김정은 위원장 7월 28일, 대규모 피해지역인 신의주시 및 의주군 현지 지도
 -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 신의주시와 의주군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당과 군 지도간부들 급파
 - 공군, 해군 및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 등을 통해 주민 구조활동으로 약 4,200여명의 주민 구조 완료

¹³ 조선신보(2024. 08. 05), “김정은원수님께서 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진두지휘”

- (비상확대회의의 소집)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2024년 7월 29일~30일에 신의주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의 소집
 - 신의주시 및 의주군을 비롯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연안 시군 지역을 ‘특급 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
 -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살림집 복구 및 철길, 공공건물의 시급한 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정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 데 대하여》를 채택¹⁴
- (8월 8일 현지 지도) 평안북도 의주군 수재민 방문 및 복구사업 지도
 - 수재민들의 임시 거처 방문 및 수해지역 복구 기간 중 학생 교육 및 보육을 위해 학생 가족 중심으로 평양 초청 지시
 - 그 외 노인, 환자, 영예군인 및 영유아 보호자 등을 평양으로 초청, 국가적 보호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 발표
- (9월 29일 현지 지도) 평안북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건설 사업에 대한 현지 지도
 - 현지 지도에서 최단기간 건설 요구 및 살림집 건축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
 - 피해 복구 사업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별도의 격려행사 진행 및 현장 지원물품 전달 등으로 건설 속도 증대 견인
- (10월 21일 현지지도) 자강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 지도
 - 10월 중순 현재, 철야전을 벌여 살림집 기본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가 마감단계라고 보도¹⁵
 - 수해지역 살림집 재건축 및 신규 건설에 대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을 고수하고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강조
- (11월 4일 현지지도) 평안북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 건설현장 현지 지도¹⁶
 - 평안북도 수해지역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결대 지휘관 지도
 - 당국이 주요하게 추진해 오던 ‘농촌문화도시’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수해지역 복구 사업에서도 살림집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
 - 12월 당 전원회의의 개최 이전 복구사업 완료 목표를 강조하며 작업 속도 독려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복구전역은 이번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주타격전방이며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용감히 열어온 올해의 투쟁을 승리로 맺는가 못 맺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바로 건설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¹⁷

¹⁴ 노동신문(2024. 07. 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의 진행”

¹⁵ 조선신보(2024. 10. 30),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¹⁶ 노동신문(2024. 11. 05),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¹⁷ 노동신문(2024. 11. 06) “평안북도 피해복구에 동원된 건설자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3. 살림집 복구 중심의 홍수 피해 복구

- 2024년 7월 29일~ 30일 양일간 신의주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정서에서 홍수 피해 지역의 살림집과 공공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복구사업을 추진 할 것을 밝힘
- 평양지역 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수해지역으로 파견되어 복구 사업의 속도를 높임
 - 자강도 피해복구지역에는 평양시, 황해북도, 강원도 등에서 당원 연대가 파견되어 살림집 건설 및 복구에 기초작업인 기초국착 및 기초콘크리트치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했다고 보도됨¹⁸
- 10월 말, 평안북도 수해지역에 파견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는 여러 호동의 고층살림집 골조 공사를 완료 했다고 보도¹⁹
 - 이후 내외부 미장 및 외벽타일붙이기 작업 추진
 - 살림집 외 학교, 체육관건설을 위한 기초공사 추진 중 보도²⁰
- 12월 하순 개최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전, 수해복구 건설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연말, 수해복구 사업 속도를 높임
 - 수십km의 제방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고 살림집 공사는 내외부 미장과 하부망공사, 시설물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²¹
- 12월 21일, 홍수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²²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수해지역에 살림집 복구 사업이 마무리되어 ‘농촌문화도시’가 완성되고 의의깊은 준공식이 개최되었다고 보도
 - 수해 복구 사업 완공을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또 다른 성과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자력갱생을 통해 130여 일 만의 빠른 성과를 강조
 - 향후 백년 간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방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시형 농촌살림집이 완공됨으로써 기존보다 개선된 ‘사회주의이상마을’임을 강조
 - 약 념달의 짧은 기간 내에 약 6,000여 세대 살림집 보수 완료. 그 외 시설로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 건설. 압록강 제방공사, 강하천정리, 철길, 도로, 다리복구 등 통해 서북부 지역이 이전의 모습보다 개선되었음을 강조²³

¹⁸ 조선신보(2024. 09. 20) “살림집기초공사 3일동안에 결속”

¹⁹ 조선신보(2024. 10. 30) “평안북도 수해복구, 살림집골조공사 결속”

²⁰ 노동신문(2024. 11. 03) “피해지역 살림집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²¹ 조선신보(2024. 12. 09) “수해복구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

²² 노동신문(2024. 12. 22)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 노동신문(2024. 12. 22) “자강도, 량강도의 수재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살림집입사식과 새집들이 진행”

²³ 노동신문(2024. 12. 23) “건설사의 기적으로 길이 빛날 위대한 인민사랑의 결정체”

그림 2 평안북도 수해 복구 살림집 완공



출처: SPN서울평양뉴스(2024.12.22.), “김정은, 평북 수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참석 ...” 재해방지기관 허술 반성해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47>

4. 수해 지역 지원 현황 및 수재민의 평양 초청

- 올해 수해 복구 사업에는 전국에서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의 수해 복구 사업에의 참여 독려 및 지원 선동이 다각적으로 진행됨
- 평안북도 및 자강도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별도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이후 중앙당 및 각 지역에서 여러 물자 및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²⁴
 - 평양직할시 모란봉구역 공업품 종합상점, 병원 등 100여개 단위 근로자와 주민들이 식량, 의복류, 의약품 지원
 - 양강도 김형직군 김형직 사범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위문편지와 다양한 물품 지원
 - 함경도, 황해북도, 강원도 여러 시군 주민이 다양한 물자를 지원
 - 중앙당 제약공업관리국에서는 소독약 등 긴급 생산 및 보급 추진, 철도성에서는 피해 복구 물품 최우선 수송을, 전력공급성은 특급재해비상지역 우선 전력 송전 등
 - 황해북도 상원군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시멘트 증산 및 수해 지역에 우선 공급
 - 백두산건축연구원 설계전문가 및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설계전문가를 수해지역으로 파견, 복구 사업에 참여
- 한편, 8월 8일~9일 양일간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평안북도 현지 지도를 통해 수해지역의 학생, 노인, 환자, 영예군인, 영유아 보호자 등 약 13,000여명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교육의료 복지 혜택 제공²⁵
 - 2024년 8월 16일부터 약 130일 간 평양 4.25 여관과 열병훈련 기지에서 생활
 -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복 및 가방류를 제공하고 새학기 수업 준비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 등 수재민 지원에 대한 중앙당의 적극성을 보려주려 함
 - 수재민들에게 수영장(문수물놀이장, 능라물놀이장 등),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금강산, 묘향산,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에 방문 및 이용 기회를 제공²⁶

²⁴ 노동신문(2024.08. 00) “각지 인민들이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지성어린 물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²⁵ 조선신보(2024.08.23.) “4.25여관에서 수재민들과 상봉”

- 그 외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등에 참관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교양 사업도 함께 진행

그림 3 평양시에서 체류 중인 수재민들



출처: (좌)노동신문(2024.08.17.), “평양에 체류하는 수해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수도의 봉사기자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었다”
(우)한겨레신문(2024.08.17.), “김정은, 수재민 어린이 수업 참관... 연일 ‘애민’ 이미지 띄우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54086.html>

5. 시사점

- 살림집 중심의 수해 복구 사업 추진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 강조 및 가시적 성과 홍보
 -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살림집 복구 및 건설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전국에서의 물자 및 인적자원 동원 추진
 - 국제적 지원 없이 북한 자체 역량으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음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동요를 관리하고 북한 내부 경제 여건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특히 짧은 시간 내 수도권 외에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김정은 시기 주요 정책 부각
- 수재민 평양 초청 체류 등 김정은 ‘애민’ 이미지 강조를 통한 내부 단속
 - 김정은 위원장의 잦은 수해 지역 현지 지도와 더불어 지역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체류하게 함으로써 수해 지역 민심을 통제 또는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
 -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어버이 수령 이미지를 공고화하는 북한 내부 정치의 특유한 정치적 선전 방법으로 판단됨
- 한편, 이와 같은 홍수 피해 복구 대책의 실효성과 복구 사업에 소요된 자금(전자재 생산 및 수입 등)의 출처, 완공된 살림집의 주민 활용 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추적할 필요 있음

PART 3

건설 · 개발동향 분석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Analysis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¹

- 2024년 3,4 분기 건설동향 관련 최종 분석 대상(‘개발’ 기준) 보도건수는 327건임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생활시설(117건)이었으며, 공장시설(51건), 농림어업시설(33건), 교육복지시설(31건), 문화휴양시설(18건), 국토지역개발(26건), 광업자원시설(17건), 교통물류시설(12건), 환경방재시설(12건), 공급시설(10건)순으로 집계됨

표 1 분석대상 사업의 시설유형별 기사 건수 분포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12
공급시설	10
발전시설	9
발전시설 외	1
공장시설	51
도시생활시설	117
살림집	114
살림집 외	3
국토지역개발	26
특구/개발구	2
특구/개발구 외	24
문화휴양시설	18
교육복지시설	31
광업자원시설	17
농림어업시설	33
환경방재시설	12
합 계	327

1 노동신문과 조선신보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대부분 노동신문 기사이고 일부 조선신보 기사가 분석에 포함

표 2 유형별 주요사업 목록

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 출처 일자
교통물류시설	■ 청년이천선, 철길 침목 교체공사 완료	08.02
	■ 함경북도 길주군, 남원다리 준공	09.25
	■ 전국, 철길강도 개선을 위한 침목 교체 등 공사 진행	11.29
	■ 황해북도 상원군, 명당역 구내 철길 보수 완료	12.16
공급시설	■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진행	10.13; 11.19; 12.31
	■ 남포특별시, 생활용수용 가압펌프장 신규 건설	09.28
	■ 함경남도 함흥시, 태양광발전소 완공	12.06
	■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	12.19
공장시설	■ 전국, 지방발전 20x10 정책 사업 추진 중	07.13; 07.20 등
	■ 전국, 여러 학생신발공장 건설 완공	09.02
	■ 함경북도 청진시, 건재생산기지 조성공사 완료	10.12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즉석국수공장 준공	12.10
도시생활시설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건설 중	09.03
	■ 전국, 농촌살림집 완공	11.27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준공	12.22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천수백세대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	12.27
국토지역개발	■ 평안북도,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중	08.10; 08.23 등
	■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간석지 1차 물막이 공사 완료	11.03
	■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완공	12.31
문화휴양시설	■ 나선특별시, 해안공원 완공	07.07
	■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군체육관 준공	12.20
	■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승마구락부 준공	12.29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4월15일 소년백화원 개선	07.14
	■ 양강도, 10여개 표준약국 준공	10.20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	12.12
	■ 함경북도, 180여개 분교와 수십개 학교 개건 일신	12.15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북창군,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	10.23; 12.20
	■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청년탄광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식 진행	10.24; 12.20
	■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청년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 신규 건설 완료	08.17
농림어업시설	■ 양강도, 종자가공기지들 완공	11.20
	■ 강원도, 통천수산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 완공, 준공식 진행	12.19
	■ 강원도, 세포지구에 소목장 준공식 진행	12.20
	■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진행	12.30
환경방재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재해방지 사업 추진	07.07
	■ 전국 임업부문, 수해 예방 사업 추진 중	07.24
	■ 함경북도 길주군,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 완료	08.15
	■ 황해남도 안악군, 저수지건설공사 적극 추진	12.24

* '대표 출처 일자'는 노동신문 기사 일자임.

II.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1. 교통물류시설

- 청년이천선, 철길 침목 교체공사 완료(노동신문, 08.02)
- 함경북도 길주군, 남원다리 준공(노동신문, 09.25)
- 전국, 철길강도 개선을 위한 침목 교체 등 공사 진행(노동신문, 11.29)
- 황해북도 상원군, 명당역 구내철길 보수 완료(노동신문, 12.16)

가. 청년이천선, 철길 침목 교체공사 완료(노동신문, 08.02, 5면)

- (내용)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이 청년이천선 침목교체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함
 - 청년이천선은 70년대 건설된 동부, 서부 연결 중요철길로 평산역에서 세포청년역까지 수백리 전구간의 나무침목을 콘크리트침목으로 교체하여 화물수송능력 향상

나. 함경북도 길주군, 남원다리 준공(노동신문, 09.25, 3면)

- (내용) 길주군 읍에서 합포리와 십일리로 가는 경로 상에서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길이 130여m의 남원다리 건설을 4월 초에 시작하여 6월 19일에 결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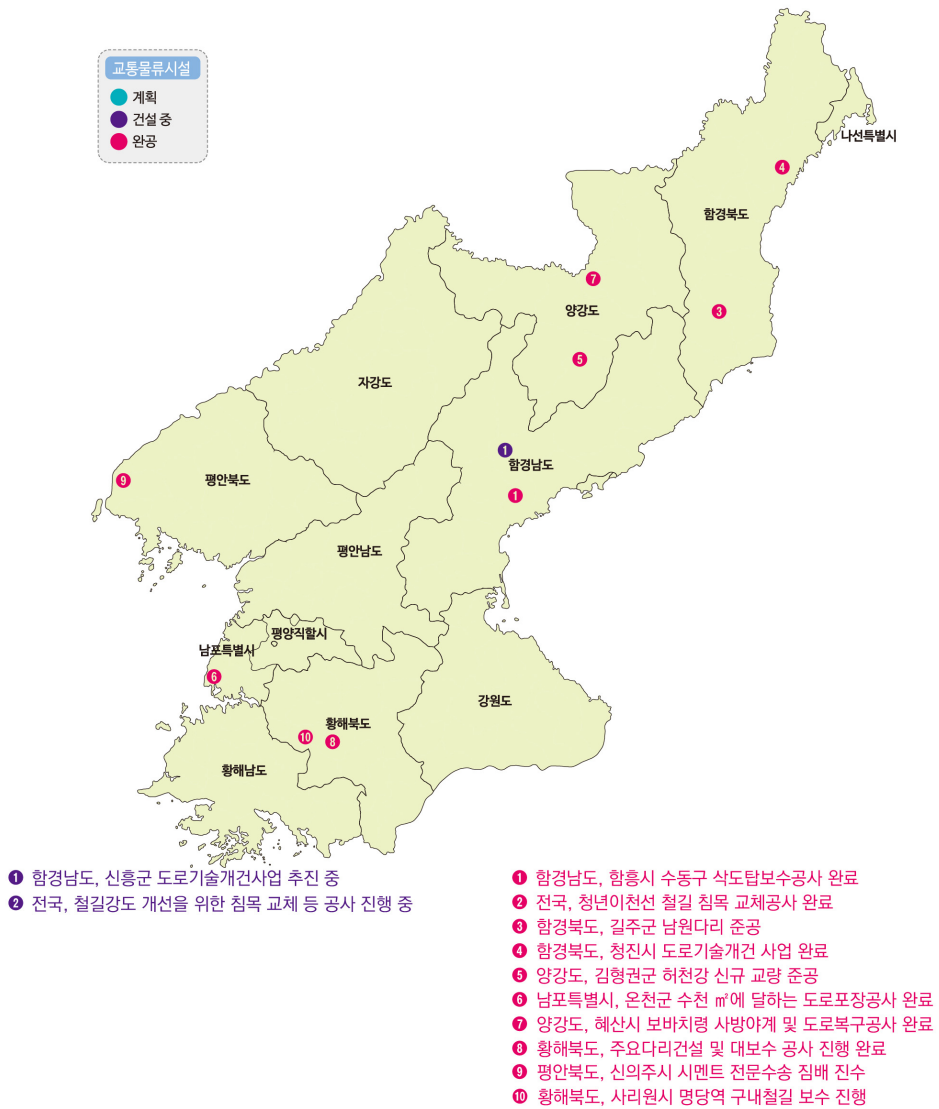
다. 전국, 철길강도 개선을 위한 침목 교체 등 공사 진행(노동신문, 11.29, 1면)

- (내용) 철도성적으로 연간 콘크리트침목생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97만여정의 침목을 교체함
 - 철도성은 콘크리트침목생산의 강재, 세멘트 우선 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콘크리트 침목생산과 침목교체에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 시행
 -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 승호콘크리트침목공장은 설비 기술개진을 선차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앞선 기술들을 적극 받아 생산능력을 올려 연간 생산계획 초과 달성
 - 각 철도국의 콘크리트침목생산단위에서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능률적인 자갈선별기와 파쇄기, 혼합물다짐기 등을 제작설치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여나갔음
 -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은 불리한 지형조건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일평균작업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고, 청진철도국, 개천철도국은 현대적 기공구들을 창안도입하여 침목다짐, 곡물잡기, 자갈깔기를 시공지도서 요구대로 진행함

라. 황해북도 상원군, 명당역 구내철길 보수 완료(노동신문, 12.16, 5면)

- (내용) 명당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연 5,000여m의 구내철길 보수를 진행함
 - 철도성, 평양철도국, 상원군,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수백정의 콘크리트침목과 수천㎡의 깎자갈을 비롯한 자재와 로력, 운수기재동원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보수작업을 해제겨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철길보수 결속함

그림 1 교통물류시설 건설개발 동향



2. 공급시설

-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진행(노동신문, 10.13; 11.19; 12.31)
- 남포특별시, 생활용수용 가압펌프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9.28)
- 함경남도 함흥시, 태양광발전소 완공(노동신문, 12.06)
-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가.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진행(노동신문, 10.13 4면; 11.19 5면; 12.31 5면)

- (내용) 단천 전역 군민건설자들이 1호발전소 압력철관로조립공사 결속(10.13)
- (내용) 주타격대상인 백수십리 물길굴공사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1단계 건설을 올해안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음(11.19)
 - 진행중에 있는 30여개 개의 물길굴피복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9월말까지 수천m 전 구간의 물길굴피복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함
- (내용) 1단계 기본물길굴공사, 발전설비, 압력철관로조립이 결속됨(12.31)
 - 통산려단은 양수설비 증설, 작업갱수 증대로 물길굴확장과 버력처리속도를 제고하여 물길굴공사를 기한전에 완성하였고, 자강도려단, 대흥무역지도국려단은 자체로 부속품, 지구들을 제작하여 공사기일을 단축하였음
 - 금강무역지도국려단, 라선시려단은 갱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였으며, 남포시, 함경북도, 함경남도려단에서도 합리적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개선함으로써 기본물길굴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함
 - 수력설비조립사업소는 짧은 기간에 발전설비조립을 결속하고, 건설건재공업성려단 등도 권양기, 용접기를 기술적으로 운영하여 제기일에 압력철관로조립 결속

나. 남포특별시, 생활용수용 가압펌프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9.28, 5면)

- (내용)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 계획된 가압펌프장건설, 수지관늘이기공사 등이 성과적으로 결속됨
 - 가압펌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수만m구간의 수지관늘이기 등 방대한 작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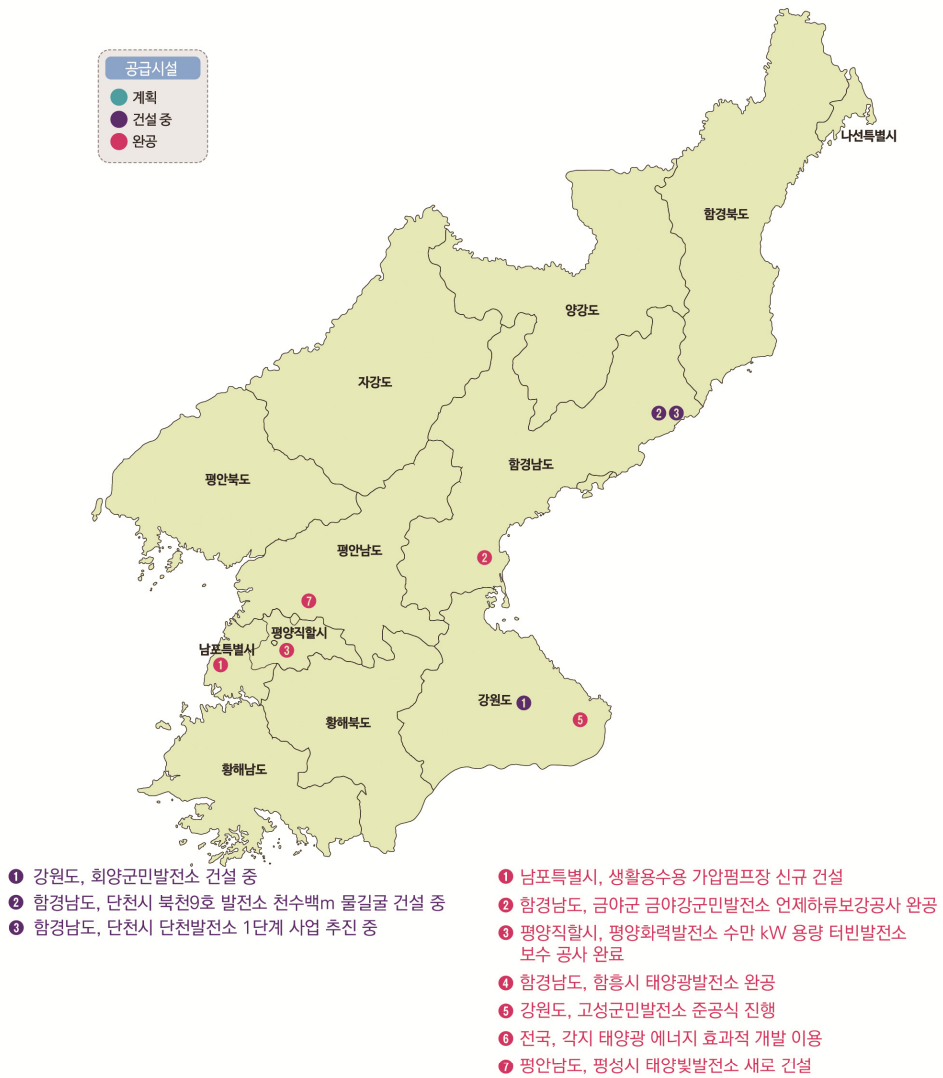
다. 함경남도 함흥시, 태양광발전소 완공(노동신문, 12.06, 5면)

- (내용) 함흥시는 태양빛발전소를 두달의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전력생산 정상화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태양빛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건설자재와 태양빛전지판, 전주확보를 선행시켰음

라.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1면)

- (내용) 강원도는 제일 어렵고 방대한 금강언제와 물길굴, 발전기설들에 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결하고,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을 18일 현지에서 진행함

그림 2 공급시설 건설개발동향



3. 공장시설

- 전국, 지방발전 20×10 정책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13; 07.20; 08.26; 09.12; 12.21 외)
- 전국, 여러 학생신발공장 건설 완공(노동신문, 09.02)
- 함경북도 청진시, 건재생산기지 조성공사 완료(노동신문, 10.12)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족석국수공장 준공(노동신문, 12.10)

가. 전국, 지방발전 20×10 정책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13. 1면; 07.20. 1면; 08.26. 1면; 09.20. 5면, 12.21. 1면 외)

- (내용)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첫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전국 20개 시군지방공업공장들의 지붕공사가 결속, 타일붙이기 등 마감단계
 - 9월 12일 기사 기준 지방공업공장 건축 공사 90% 수준 완료
 - 12월 21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 (위치) 전국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20개 사군

나. 전국, 여러 학생신발공장 건설 완공(노동신문, 09.02, 5면)

- (내용) 남포시, 원산, 평성, 사리원, 혜산, 함흥, 청진 등 전국의 학생신발공장이 새로 준공
 -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에서는 타 지역의 학생신발공장 건설의 경험을 발판으로 생산공정 완비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
- (위치) 전국

다. 함경북도 청진시, 건재생산기지 조성공사 완료(노동신문, 10.12, 5면)

- (내용)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건재생산기지 조성을 완료하고 수집종의 건제품 생산을 진행
 - 생산품의 질 보장 및 신속한 생산을 위해 제대군인들을 생산과정 전면에 배치
 - 생산된 건제품은 지역 및 인근에 농촌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지고 있음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라.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족석국수공장 준공(노동신문, 12.10, 1면)

- (내용) 지방 도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시설로 사리원족석국수공장 준공
 - 현대적 설비와 위생적 생산공정이 보장된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지방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빠른 속도로 건설 완료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그림 3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_섬유의복, 석유화학, 음식료(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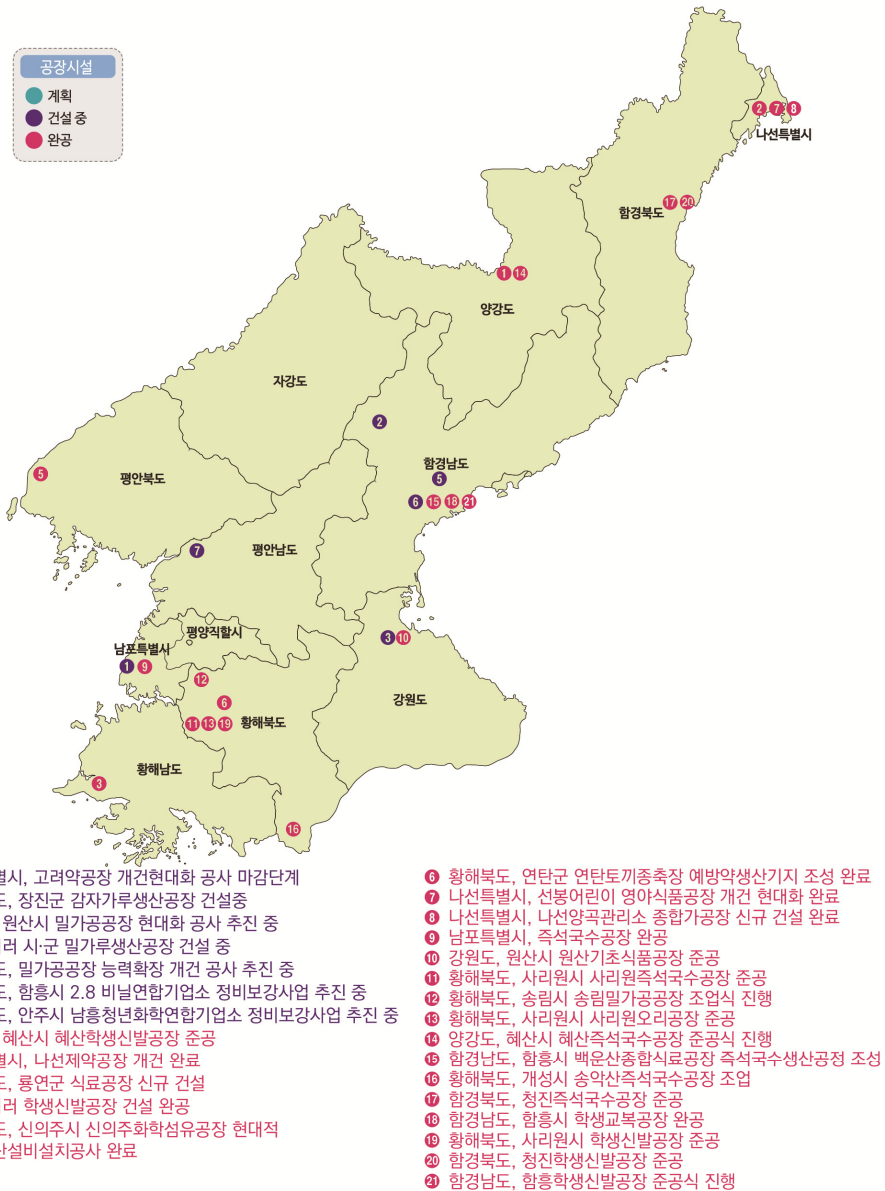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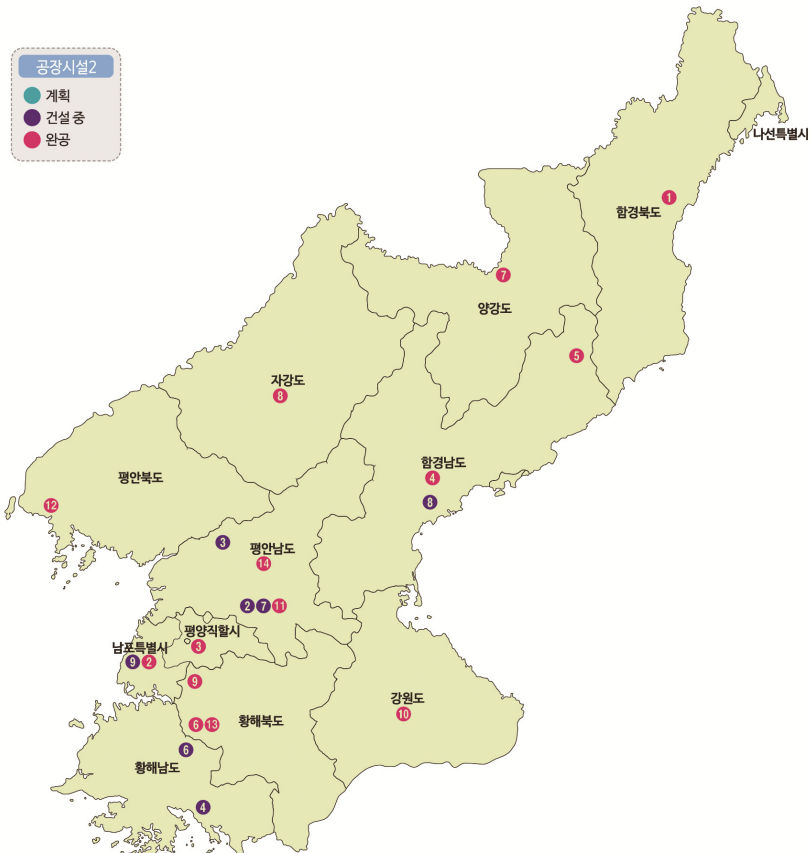


그림 4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_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기타(중분류)



- ① 전국, 지방발전20X10 사업 추진 중
- ②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③ 평안남도, 개천시, 설비조립사업소 건설 중
- ④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농기계공장 개건공사 마감단계
- ⑤ 전국, 금속공업성 산하 연합기업소 각종 보수공사 진행중
- ⑥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⑦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⑧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추진
- ⑨ 남포특별시, 금성트랙터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추진 중

- ① 함경북도, 청진시 건재생산기지 조성 공사 완료
- ② 남포특별시, 온천군 온천타일공장 개건현대화 완료
- ③ 평양직할시, 평양도자기공장 개건
- ④ 함경남도, 여러 마감건재공장 시설 확충 완공
- ⑤ 함경남도, 단천시 콩크리트전주생산기지 신규 건설
- ⑥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타일공장 준공
- ⑦ 양강도, 해산기계공장 철제일용품생산공정 조성 완료
- ⑧ 자강도, 보간산소공장 준공
- ⑨ 황해북도, 송림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절약형산소열병용광로 준공식 진행
- ⑩ 강원도, 문평제련소 배소-류산공정개건대상 준공식 진행
- ⑪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 ⑫ 평안북도, 염주군 염주그물공장개건보수대상 준공
- ⑬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 준공
- ⑭ 평안남도, 평성즉석국수공장, 개천설비조립사업소 준공

4. 도시생활시설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건설 중(노동신문, 09.03)
- 전국,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11.27)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12.22)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천수백 세대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12.27)

가.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건설 중(노동신문, 09.03, 4면)

- (내용)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음
 - 기능공 대렬을 늘이고 그 역할을 제고
 - 살림집 내부미장을 비롯한 다음 공정 추진에서도 성과가 이룩

나. 전국,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11.27, 1면)

- (내용)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1,500여 개의 선경마을들이 도처에 일떠서 농촌의 급속한 진흥을 실증
 -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
 - 각지에 타일공장들과 경소마그네사판 생산기지들 완공으로 생산이 활성화
 - 전국적으로 800여 개에 달하는 마감전재생산기지들이 신설 및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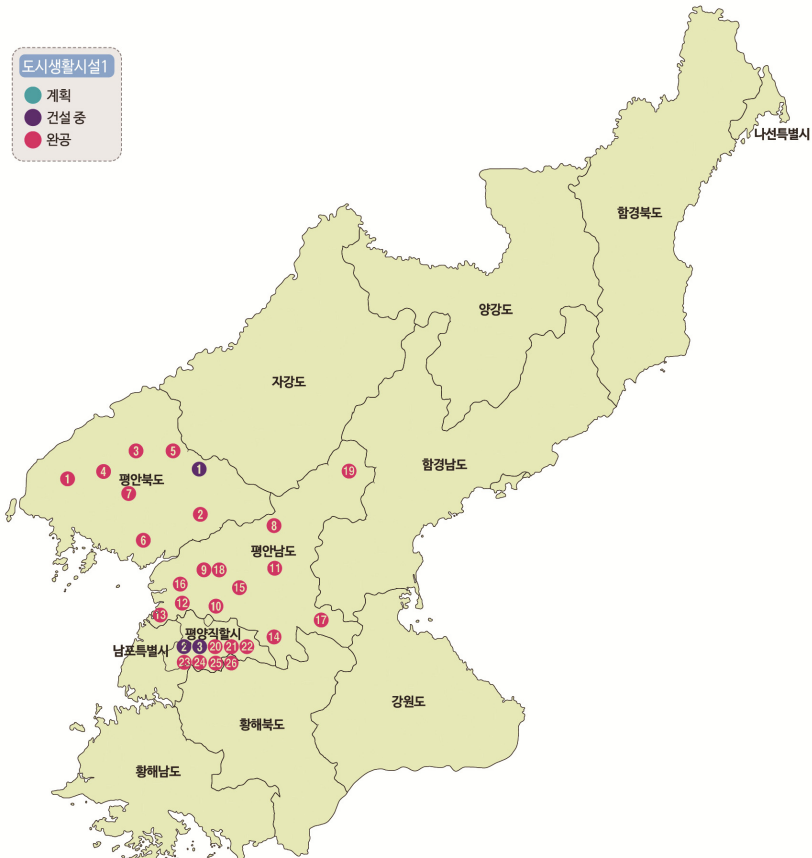
다.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12.22, 1면; 5면)

- (내용)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이상적인 농촌문화도시, 선경마을들이 즐비하게 솟아올라 의의 깊은 준공을 맞이
 - 제방들과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 건설
 -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12월 21일에 성대히 진행
 - 새로 일떠선 성간군 읍지구와 광명지구, 김형직군 읍지구를 비롯한 자강도와 량강도의 선경마을들에서 살림집 입사식이 각각 진행

라.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천수백 세대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12.27,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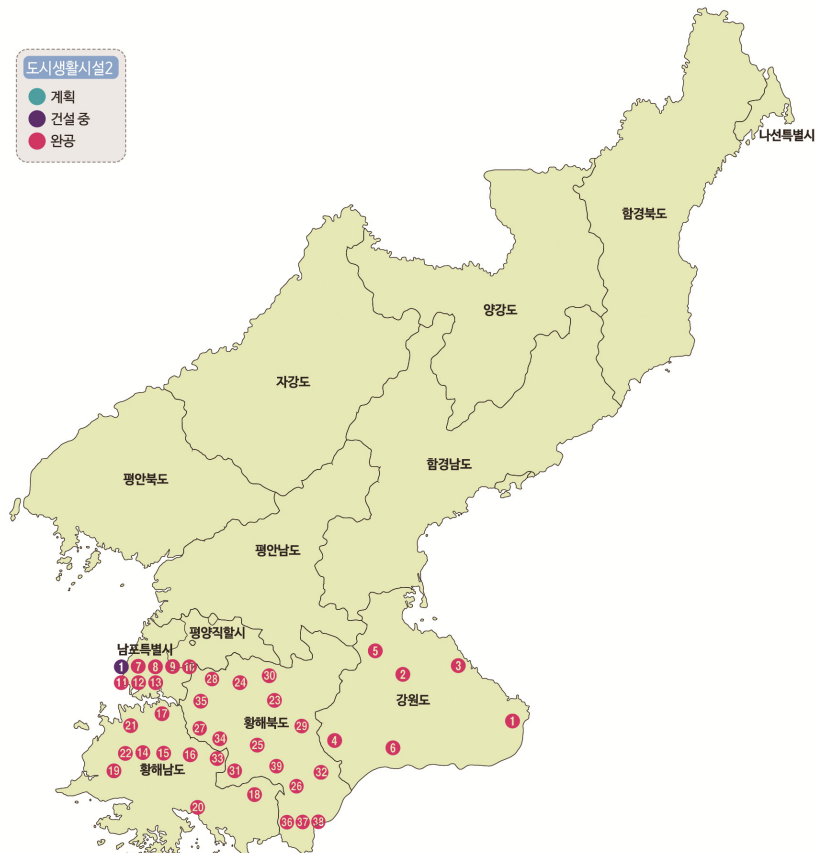
- (내용)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로 변모되고있는 검덕지구에 또다시 새집들이 경사
 - 단천시 남풍동, 본산동, 전진1동, 2동에 특색있게 건설된 천수백 세대의 살림집들
 -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음
 -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

그림 5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평양직할시, 평안남·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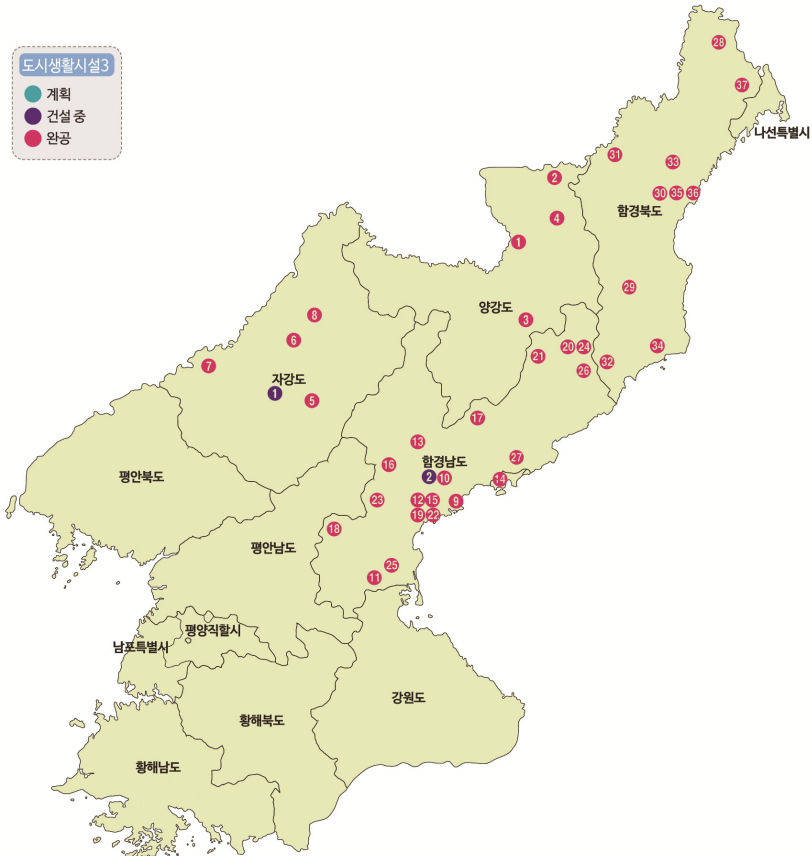
- ① 평안북도, 운산군 농촌살림집 골조공사 완료
- ②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건설 중
- ③ 평양직할시, 농촌살림집건설 마감단계
- ④ 평안북도, 피현군 삼상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⑤ 평안북도, 영변군 원음농장 살림집 완공
- ⑥ 평안북도, 대관군 살림집 완공
- ⑦ 평안북도, 천마군 신시농장 살림집 완공
- ⑧ 평안북도, 동창군 룡두농장 살림집 완공
- ⑨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⑩ 평안북도, 수해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
- ⑪ 평안남도, 덕천시 신성농장, 성천군 삼원공예작물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⑫ 평안남도, 문덕군 입석농장에서 새집들이
- ⑬ 평안남도, 평성시 농촌살림집 완공
- ⑭ 평안남도, 북창군 남상농장 살림집 완공
- ⑮ 평안남도, 대동군 서제농장 새집들이
- ⑯ 평안남도, 증산군 만풍농장, 석다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⑰ 평안남도, 회창군, 신지동농장, 신성농장 살림집 완공
- ⑱ 평안남도, 은산군 살림집 완공
- ⑲ 평안남도, 속천군 약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⑳ 평안남도, 양덕군 수백세대 살림집 완공
- ㉑ 평안남도, 문덕군 살림집 건설 및 개건보수
- ㉒ 평안남도, 대흥군 천리성농장과 냉위군 마근담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㉓ 평양직할시, 력포구역 소신남새농장 새집들이
- ㉔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살림집 완공
- ㉕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금천새농장과 철골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㉖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㉗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㉘ 평양직할시, 구서농장과 성일농장 새집들이
- ㉙ 평양직할시, 송금축산농장, 봉문 축산분장 살림집 새집들이

그림 6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강원도, 황해남·북도, 남포특별시)



- ①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백수십세대 농촌살림집 건설 추진
- ② 강원도, 고성군 100여 세대의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
- ③ 강원도, 고성군 연호리, 설봉리 새집들이 진행
- ④ 강원도, 통천군 명고리 살림집 완공
- ⑤ 강원도, 이천군 읍축산농장 살림집 완공
- ⑥ 강원도, 병동군 작동농장 살림집 완공
- ⑦ 강원도, 평강군 읍축산농장, 지암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⑧ 남포특별시, 온천군 은덕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⑨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⑩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지사농장, 우산농장 살림집 완공
- ⑪ 남포특별시, 통강군 통흥농장 살림집 완공
- ⑫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살림집 새집들이 진행
- ⑬ 남포특별시, 룡강군 룡호농장, 후산농장 살림집 완공
- ⑭ 남포특별시, 덕흥농장 두번째 살림집 입사모임
- ⑮ 황해남도, 삼천군 고현리 새집들이
- ⑯ 황해남도, 신천군 리목농장 살림집 준공
- ⑰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⑱ 황해남도, 은천군 마두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⑲ 황해남도, 봉천군 석사농장 살림집 완공
- ⑳ 황해남도, 정연군 석정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㉑ 황해남도, 해주시 장방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㉒ 황해남도, 은률군 이도포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㉓ 황해남도, 송화군 구탄농장, 악산농장 살림집 완공
- ㉔ 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농장과 곡산군 룡양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㉕ 황해북도, 상원군 살림집 완공
- ㉖ 황해북도, 서흥군 새집들이 진행
- ㉗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농장, 계정농장 새집들이
- ㉘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산리 새집들이 진행
- ㉙ 황해북도, 중화군 마운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㉚ 황해북도, 신계군 원교농장 살림집 완공
- ㉛ 황해북도, 연산군 옥덕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㉜ 황해북도, 인산군 석련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㉝ 황해북도, 토산군 양사농장 살림집 완공
- ㉞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살림집 완공
- ㉟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
- ㊱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농장 살림집 완공
- ㊲ 황해북도, 개성시 농촌경리위원회 신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㊳ 황해북도, 개성시 동내농장 새집들이
- ㊴ 황해북도, 개성시 덕암농장 및 장풍군 대덕산농장 새집들이
- ㊵ 함경북도, 평산군 청학농장, 와현농장 살림집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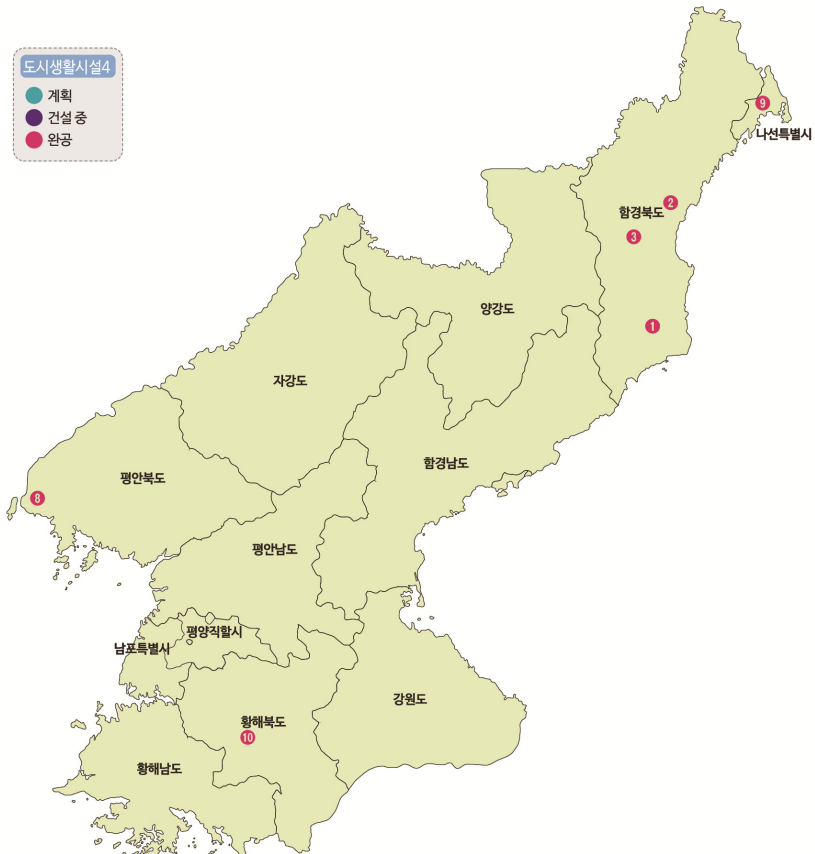
그림 7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_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기타)



- ① 자강도, 홍수피해 살림집 복구 사업 추진 중
- ② 함경남도, 농촌살림집건설 마감단계
- ③ 양강도, 보천군 다층살림집 준공
- ④ 양강도, 대흥단군 농사동농장 및 삼정농장 살림집 완공
- ⑤ 양강도, 갑산군 사평농장 새집들이
- ⑥ 양강도, 백암군 민정농장 수백세대 살림집 완공
- ⑦ 자강도, 용림군 고운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 ⑧ 자강도, 강계시 은정남새농장과 두흥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⑨ 자강도, 초산군 압도농장과 련성농장 살림집 완공
- ⑩ 자강도, 장강군 성장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⑪ 함경남도, 낙원군 은솔농장과 사동농장 살림집 완공
- ⑫ 함경남도, 가림천 기슭 다층살림집 준공
- ⑬ 함경남도, 고원군 여러종류 살림집 완공
- ⑭ 함경남도, 함흥시 부민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⑮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농장 새집들이
- ⑯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농장 살림집 완공
- ⑰ 함경남도, 함흥시 영광농장, 조운농장, 동흥농장 새집들이 진행
- ⑱ 함경남도, 영광군 및 함흥시 수백세대 살림집 완공
- ⑲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사과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⑳ 함경남도, 요덕군 임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 ㉑ 함경남도, 함흥시 흥신농장 살림집에 입사
- ㉒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남새농장, 달전농장 살림집 완공
- ㉓ 함경남도, 하천군 공공건물 및 아파트 개건 보수 완료
- ㉔ 함경남도, 함흥시 수도농장 살림집 새집들이
- ㉕ 함경남도, 함주군 조양농장, 붉은별농장 새집들이
- ㉖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룡천동 새집들이
- ㉗ 함경남도, 금야군 읍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천수백세대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 ㉙ 함경남도, 북청군 용진과수농장 당우분장 새집들이 진행
- ㉚ 함경북도, 경원군 성내농장 새집들이 진행
- ㉛ 함경북도, 명간군 양천농장 살림집 새집들이 진행
- ㉜ 함경북도, 청진시 라북농장과 룡암남새농장, 라남구역 새집들이
- ㉝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농장 살림집 새집들이
- ㉞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축산농장 살림집 완공
- ㉟ 함경북도, 부령군 사하농장 새집들이
- ㊱ 함경북도, 화대군, 부전군 새집들이
- ㊲ 함경북도, 청진시, 근동남새농장 및 농포남새농장 살림집 완공
- ㊳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농장 새집들이 진행
- ㊴ 함경북도, 경흥군 송향농장 살림집 완공

그림 8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살림집_함경북도, 기타(전국), 살림집 외 시설)



- ① 함경북도, 명천군, 연사군 살림집 완공
- ② 함경북도, 청진시 봉사건물 및 살림집 보수공사 추진
- ③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수백세대 문화주택 준공
- ④ 전국, 농촌살림집 완공
- ⑤ 전국, 자강도 및 양강도 수재민 새집들이 진행
- ⑥ 전국,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 진행
- ⑦ 전국, 1,500여개의 선경마을들을 새로 건설
- ⑧ 평안북도, 용천군 송배전소 청사개건확장 공사 완료
- ⑨ 나선특별시, 해안관 개건 완료
- ⑩ 황해북도, 체육인 숙소 건설 완공

5. 국토지역개발

- 평안북도,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중(노동신문, 08.10, 08.23, 09.07, 09.14, 10.29, 11. 03 外)
-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간석지 1차 물막이 공사 완료(노동신문, 12.26)
-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완공(노동신문, 12.31)

가. 평안북도,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중 (노동신문, 08.10, 7면; 08.23, 5면; 09.07, 3면; 09.14, 3면; 10.29, 4면; 11.03, 3면 外)

- (내용) 7월 27일 기록적 폭우로 평안북도 지역에서 5,000명 이상 고립 주민 발생, 4,000 세대 이상 살림집 침수, 약 3,000정보 이상 논밭 침수 등 상당 규모 피해. 이후 수해지역 복구사업 적극 추진
 -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길 정리 사업 추진, 논밭 물빼기, 병예방 위한 소독, 농작물 영양상태 개선 사업 등 추진
 - 홍건도, 애도 등 간석지 방조제 공사 적극 추진
 - 수해지역 대규모 살림집 건설 추진
 - 임시철길 및 철도시설 복구 사업 추진 등 수해 복구 사업을 도 전반적으로 추진
- (주체) 농업성, 철도성,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 도당일군들과 군인들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 등 압록강 하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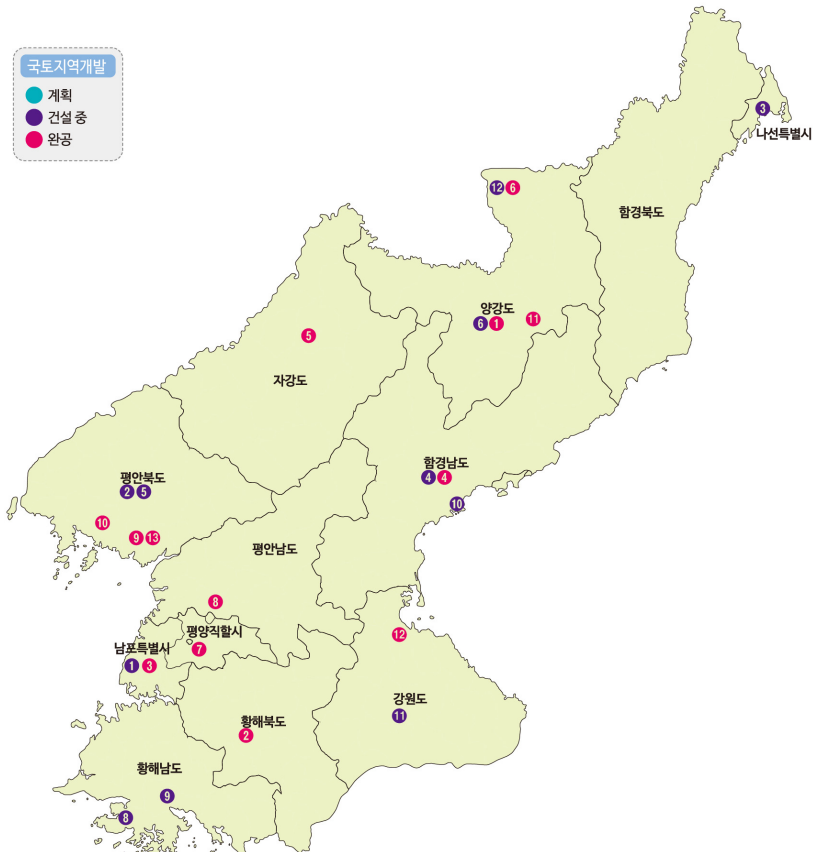
나.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간석지 1차 물막이 공사 완공(노동신문, 12.26, 1면)

- (내용) 남창간석지건설 1차 물막이 공사 완공
 - 압축기,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만가동, 방조제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
 - 무른 감탕층에 의한 압출침하와 지반패임현상으로 방조제가 내려앉고 수습차분의 막돌과 흙이 단변에 유실되는 등 악조건 극복
- (주체) 조선인민군 강순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간석지

다.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완공(노동신문, 12.31, 1면)

- (내용) 인민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아래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다양한 주요 봉사기지들이 완공
 - 많은 호텔과 여관, 해수욕봉사시설과 체육시설, 오락시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완공
 -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 개발을 통해 지방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의 토대 구축 강조

그림 9 국토지역개발 건설·개발동향



- ① 남포특별시, 강하천정리 및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중
- ② 평안북도, 습해방지 물길정리 건설
- ③ 나선특별시, 주요 대상건설 추진 중
- ④ 함경남도, 단천시 주요 대상사업 추진 중
- ⑤ 평안북도, 수해 피해지역 복구 사업 진행 중
- ⑥ 양강도, 홍수 피해 지역 복구사업 진행 중
- ⑦ 전국, 가을철국토관리사업
- ⑧ 황해남도, 웅진군 대동만 간석지 3구역 1차 물막이 공사 완공
- ⑨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간석지 1차 물막이 공사
- ⑩ 함경남도, 락원군 소재지꾸리기 사업 진행
- ⑪ 강원도, 법동군, 고성군 국토관리사업 추진
- ⑫ 양강도, 삼지연시 세계적인 산악관광지구로 개발

- ① 양강도, 수십km구간의 중소하천들을 정리
- ② 황해북도, 금산군 유원지, 여관 및 교량공사 완료
- ③ 남포특별시, 도시 정비 및 주요 건축물 완공
- ④ 함경남도, 북청군 양여장, 온실, 축사, 버섯재배장, 살림집 등 개건
- ⑤ 자강도, 강계시 야간조명 활용 도시 미관 사업 추진
- ⑥ 양강도, 삼지연시 올해 계획된 토지정리과제 완수
- ⑦ 평양직할시, 국토관리사업 성과 달성
- ⑧ 평안남도, 평성시 도시관리 사업 추진
- ⑨ 평안북도, 정주시 애도간석지 중요 방조제 공사 완공
- ⑩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 2단계 포전정리 마무리
- ⑪ 양강도, 갑산군 강하천정리공사 및 새마을사업 추진
- ⑫ 강원도, 원산시 국토관리 사업 추진
- ⑬ 평안북도, 정주시 소재지꾸리기 결속
- ⑭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완공

6. 문화휴양시설

- 나선평별시, 해안공원 완공(노동신문, 07.07)
-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군체육관 준공(노동신문, 12.20)
-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12.29)

가. 나선평별시, 해안공원 완공(노동신문, 07.07, 4면)

- (내용)나선평에서 해안공원을 일신시켜 운영 중
 - 바닷가 풍치와 어울리는 수중과 꽃관목 식재하여 원림경관 조성
 - 여러 유희오락시설과 입체울동영화관, 동물사 등이 갖추어져 있음
 - 대규모 야외물놀이장이 인기, 야간에는 춤추는 분수가 여러 색깔의 조명장식과 함께 이채로운 환경조성
- (위치) 나선평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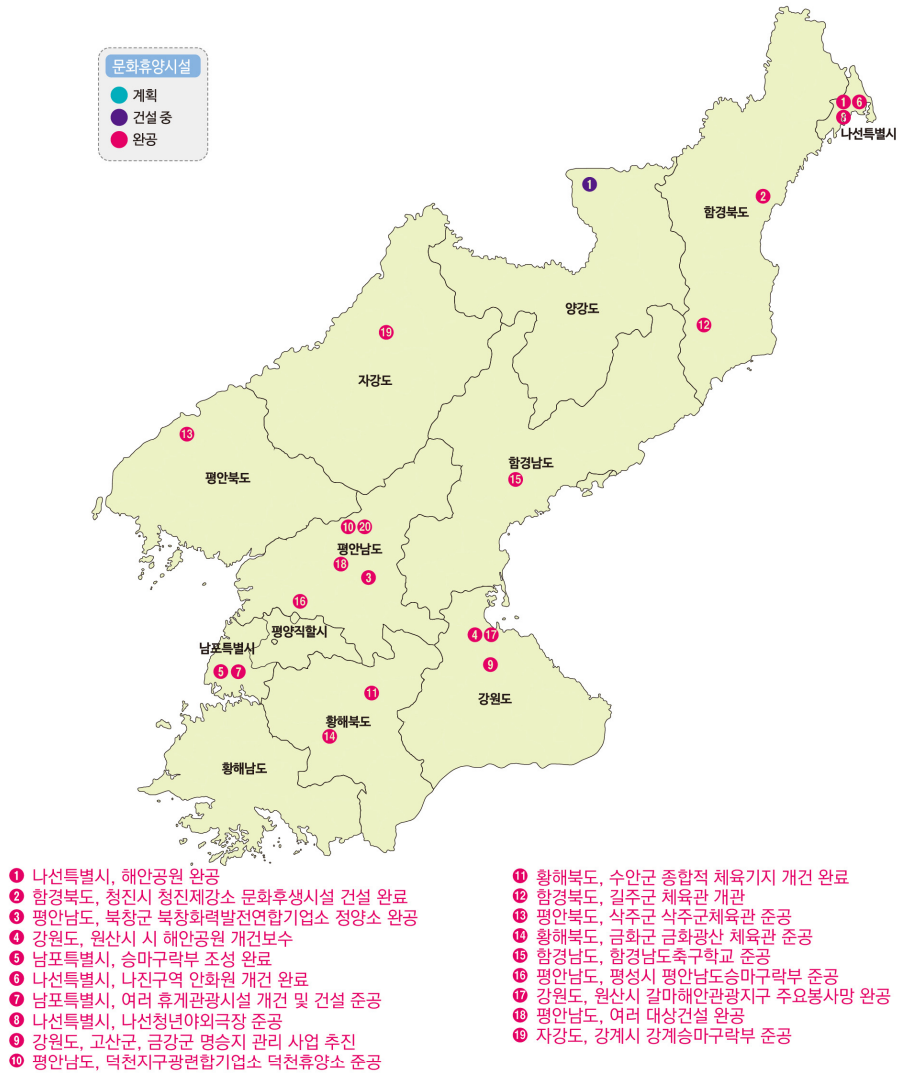
나.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군체육관 준공(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체육 대중화 및 생활화 방침에 따라 삭주군에 현대적 체육관 준공
 - 다기능화된 경기장, 과학기술보급실, 운동실, 전자오락실, 이발실 등 체육문화 및 편의시설로 구성
 - 체육 및 편의시설 외 체육관주변 녹지 조성, 야외운동장 조성
 - 야간 조명을 활용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로 건축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다.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12.29, 9면)

- (내용) 경치수려한 곳에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승마주로와 조마장, 기초훈련장 등을 갖춘 대중 승마봉사기지 건설 완료

그림 10 문화휴양시설 건설·개발동향



7.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4월15일 소년백화원 개선(노동신문, 07.14)
- 양강도, 10여개 표준약국 준공(노동신문, 10.20)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노동신문, 12.12)
- 함경북도, 180여개 분교와 수십개 학교 개건 일신(노동신문, 12.15)

가. 평양직할시, 4월15일 소년백화원 개건(노동신문, 07.14, 5면)

- (내용) 희귀한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는 소년백화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공사가 마무리
 - 아열대와 열대, 온대와 한대식물 관찰 가능한 전시관 조성 완료 및 안내 로봇 해설 진행. 다매체편집물 시청 시설 제공
 - 분수시설 및 음료봉사건물, 꽃상점, 화초생산온실 등 10여동의 건설대상이 새롭게 완공

나. 양강도, 10여개 표준약국 준공(노동신문, 10.20, 4면)

- (내용) 양강도 해산시, 백암군, 대흥단군 등 각 지역에서 10여개의 표준약국 완공
 - 표준약국은 판매구역, 처방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약품 사용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한 사항도 게시
- (위치) 양강도 해산시, 백암군, 대흥단 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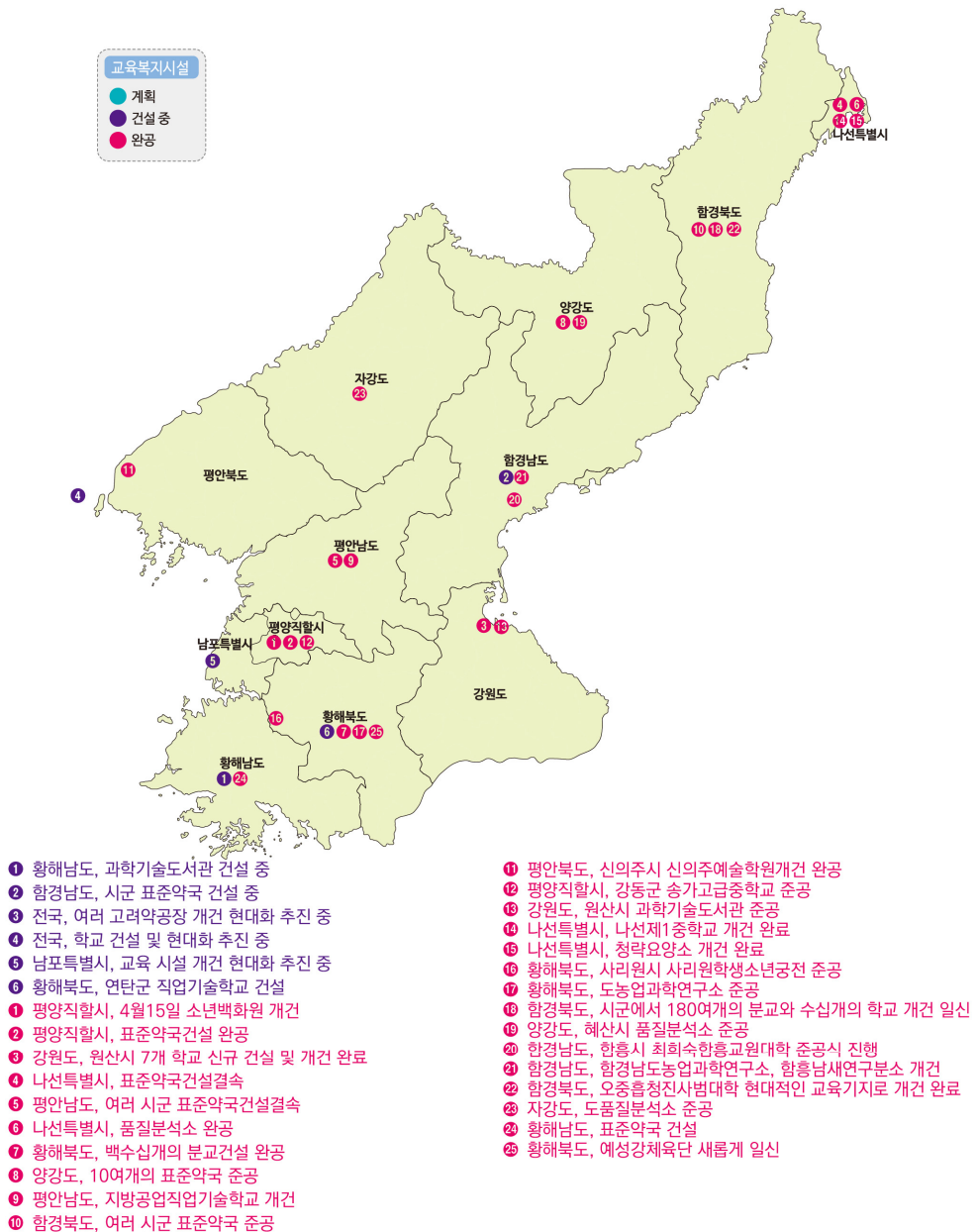
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노동신문, 12.12, 1면)

- (내용) 민족기악소조실, 성악소조실, 태권도소조실 등이 갖추어졌으며, 수백석 규모의 극장과 체육관 조성
 -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종합적 과외교양기지 마련
 -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식이 12월 10일 진행

라. 함경북도, 180여개 분교와 수십개 학교 개건 일신(노동신문, 12.15, 4면)

- (내용) 올해 수백개 교육단위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킴
 - 180여개의 분교와 수십개 학교가 빠른 기간에 개건 완료. 길주기술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들이 개건 현대화공사가 계획대로 추진 완료

그림 11 교육복지시설 건설·개발동향



8.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북창군,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노동신문, 10.23; 12.20)
-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청년탄광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10.24; 12.20)
-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청년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08.17)

가. 평안남도,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 조업(노동신문, 10.23 4면; 12.20 3면)

- (내용) 인포청년탄광이 단위발전에서 큰 보폭을 내짚어 석탄싸이로를 건설하여 저탄능력을 훨씬 높이었고 운반능력을 제고할수 있는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10.23)
- (내용)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대상이 조업하였음(12.20)
 - 화력탄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된 것으로 조업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굴진공들은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앞선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갱도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
 - 가족소대원들도 경제선동과 지원사업으로 공사장마다에 활력을 더해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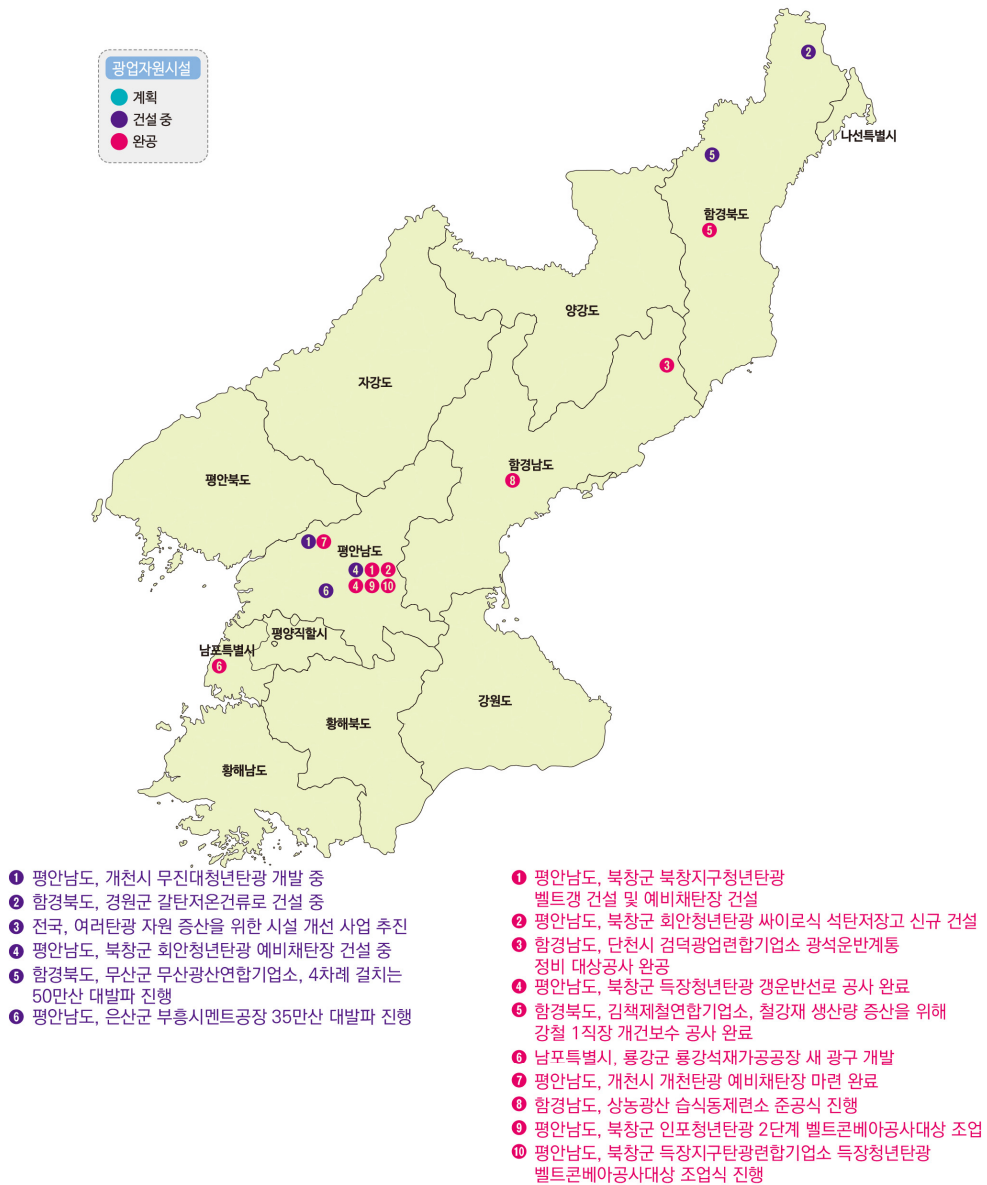
나. 평안남도, 득장청년탄광 벨트콘베아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10.24 4면; 12.20 3면)

- (내용)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000여m의 벨트콘베아설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10.23)
 - 벨트콘베아설치공사는 기본굴진과 확장굴진을 진행하여 1,000여m의 갱을 관통시키고 갱도영구화를 실현한 다음 벨트콘베아를 설치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로 100여대의 탄차가 없이도 운반능력을 1.5배이상 높이게 됨
- (내용)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벨트콘베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조업식을 19일 현지에서 진행함(12.20)
 - 청년돌격대원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굴진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에 힘을 넣어 방대한 갱도공사와 능력이 큰 싸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 완료
 - 설비설치와 부분품조립을 립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질적으로 마무리하였음

다. 평안남도, 회안청년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 건설 완료(노동신문, 08.17, 5면)

- (내용) 회안청년탄광에서 능력이 큰 싸이로식석탄저장고를 일떠세워 석탄상차에 들던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 상차시간을 단축하고 석탄허실을 줄임
 - 수백㎥의 토량을 단 하루동안에 처리하고 80여일동안에 천여㎥의 콘크리트타입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정해진 기간까지 결속하였음

그림 12 광업자원시설 건설·개발동향



9. 농림어업시설

- 양강도, 종자가공기지를 완공(노동신문, 11.20)
- 강원도, 통천수산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 강원도, 세포지구에 소목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0)
-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30)

가. 양강도, 종자가공기지를 완공(노동신문, 11.20, 5면)

- (내용) 종자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당의 방침에 따라 도 여러곳에 종자가공기지 새로 건설
- 종자보관실, 피복 및 건조실 등을 조성하고, 선별기, 건조기 등 설비들을 갖추
- 지방건재의 이용비율을 높이면서 종자가공기지건축공사를 본때있게 추진
- (특성) 정선, 피복 등의 공정을 거친 종자를 도안의 농장들에 공급할 수 있는 담보 마련

나. 강원도, 통천수산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1면)

- (내용) 개건현대화된 통천수산사업소 준공식이 18일에 진행
- 20여개의 대상들에 대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구내포장, 원림경관조성 등
- 물고기가공시설들이 갖추어진 생산건물, 냉동가공장, 사무청사, 문화회관, 정양소 등 조성
- (특성) 수산상은 준공사를 통해 고기배와 어구 현대화, 어항조건에 맞는 어로작업의 과학화수준을 제고하여 매년 수산물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할 것을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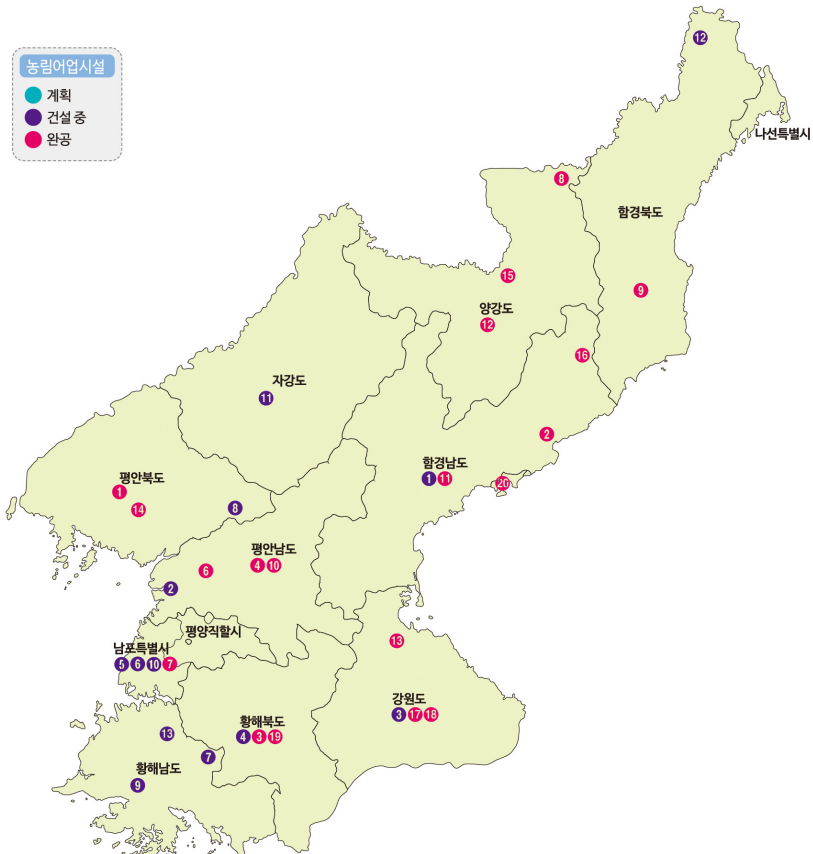
다. 강원도, 세포지구에 소목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축산에 유리한 세포지구에 축사와 사료가공실, 사료저장고, 종합조종실, 과학기술 보급실 등이 잘 갖춰진 소목장 건설로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마련, 19일 현지에서 준공식 진행
- (특성) 준공사에서 종업원들이 과학기술학습과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 선진적인 사양 관리방법 터득, 각종 수의약품들과 기구들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실무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

라.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30, 1면)

- (내용)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조성되어, 28일 준공식 진행 및 김정은 총비서 참석
- 밥조개가공장, 초급동실, 종합지휘실, 제품건본실 등 갖추
- (특성)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바다가양식업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지원을 받아 조성, 바다를 낀 모든 시, 군들의 미래 변혁상의 본보기가 됨

그림 13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함경남도, 리원군 찻집림 조성사업 진행
- ② 평안남도, 여러 시군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사업 추진
- ③ 강원도, 여러군에서 농업시설 개선 사업 추진 중
- ④ 황해북도, 여러 대상의 축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
- ⑤ 남포특별시, 안석간석지구 관개용수 제수문 신규 건설 완료
- ⑥ 남포특별시, 구역/군원료 기지사업소의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건설공사
- ⑦ 황해북도, 은파군 등 수십개 원료기지에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 등 준공
- ⑧ 평안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위한 수백정보 원료기지 조성
- ⑨ 황해남도, 내년 농사 대비 물길공사 진행
- ⑩ 남포특별시, 내년 농사 대비 관개공사 진행
- ⑪ 자강도, 누에고치 증산 위한 표준잠실건설 중
- ⑫ 함경북도, 온성군 관개공사 추진 중
- ⑬ 황해남도, 안악군 저수지 건설공사 적극 추진
- ⑭ 평안북도, 종이원료림조성
- ⑮ 함경남도, 리원군 취입보 및 잠관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 완료

- ⑯ 황해북도, 여러 시군 대용량 종자보관고 신규 건설 완료
- ⑰ 평안남도, 수심동의 누에 잠실 신설 및 개건 보수 완료
- ⑱ 전국, 종자보관창고 신규 조성
- ⑲ 평안남도, 문덕군 농경지 침수 방지사업 추진 완료
- ⑳ 남포특별시, 여러 지역에서 염소목장 건설 완료
- ㉑ 양강도, 대흥단군 감자종자저장고 준공
- ㉒ 함경북도, 수백정보 등판 개간 통해 지방공업공장 원료 지원
- ㉓ 평안남도, 내년 농사 대비 양수장 건설 골조공사 완료
- ㉔ 함경남도, 여러 시군에서 염소목장 신규 건설 완료
- ㉕ 양강도, 종자가공기지 완공
- ㉖ 강원도, 원산시 원산젖소목장 준공
- ㉗ 평안북도, 구성시 온실 신규 완공
- ㉘ 양강도, 해산시 염소목장 건설 완료
- ㉙ 함경남도, 단천시 양곡싸이로개건공사 완료
- ㉚ 강원도, 통천수산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 완공, 준공식 진행
- ㉛ 강원도, 세포지구 소목장 준공식 진행
- ㉜ 황해북도, 축산학연구소 시험장, 검문고니분장 완공
- ㉝ 함경남도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진행

10. 환경방재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재해방지 사업 추진(노동신문, 07.07)
- 전국 임업부문, 수해 예방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24)
- 함경북도 길주군,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 완료(노동신문, 08.15)
- 황해남도 안악군, 저수지건설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12.24)

가. 황해북도 개성시, 재해방지 사업 추진(노동신문, 07.07, 4면)

- (내용) 개성시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시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행동계획들을 수정보충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수립함
 - 개풍구역, 판문구역에서는 물확보, 관개물길의 위험개소들을 찾아 대책 수립 중. 송배 전단위들은 변전소들에 피뢰기 증설, 배전선로 점검, 옹벽석축공사, 접지선보수 등

나. 전국 임업부문, 수해 예방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24, 4면)

- (내용) 임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최소화에 역량 집중
 - 임업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꾼들은 각지 림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옹벽쌓기, 물도랑파기 등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과거 오류가 반복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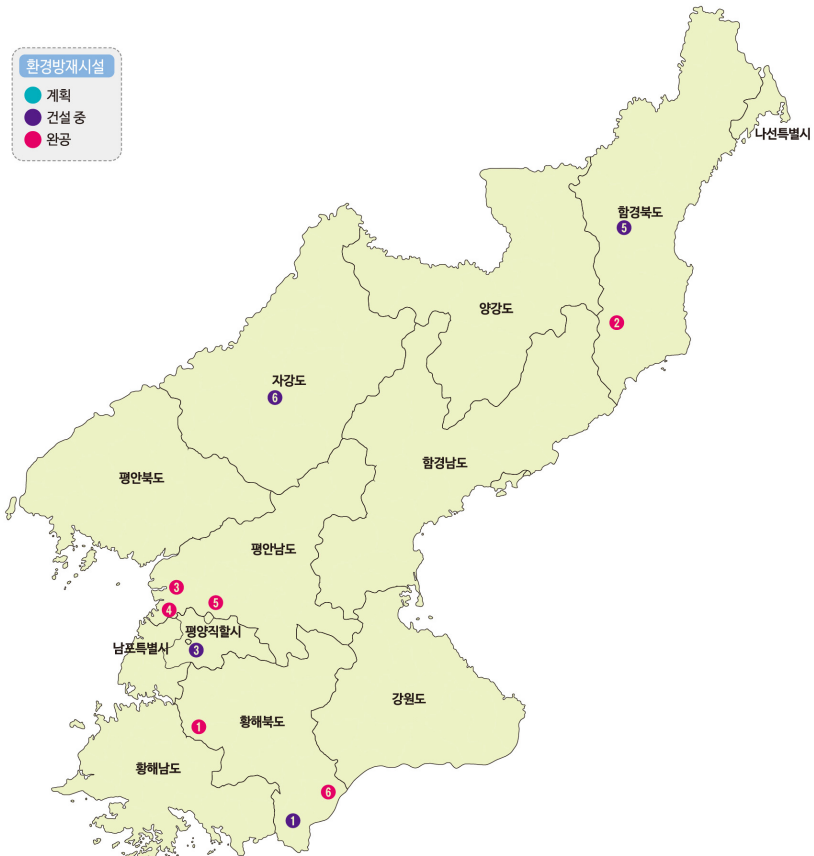
다. 함경북도 길주군,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 완료(노동신문, 08.15, 5면)

- (내용) 길주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소 20여일 소요될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를 5일만에 마침
 - 여러 하천이 합쳐지는 사하북천구간에서는 해마다 장마철에 물유출량이 많음
 - 제방쌓기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물길정리와 승수로, 배수로치기 동시 진행
- (규모) 1,100여m구간 제방앞에 보조제방 쌓기, 7천여㎥ 토량 처리, 3천여㎥ 장식쌓기 진행

라. 황해남도 안악군, 저수지건설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12.24, 5면)

- (내용) 안악군에서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대기위해 저수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군에서는 알곡증수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중산간지대에서 수확고를 높이는데 있다고 판단, 이 지대에 저수지를 새로 건설할 목표를 세움
 - 단기간에 제방기초공사를 결속하고, 제방성토공사를 추진 중임

그림 14 환경방재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황해북도, 개성시 재해방지사업 추진 중
- ② 전국, 채취공업부문 재해 예방사업 추진 중
- ③ 평양직할시, 중요건설장 재해 예방 조치 추진
- ④ 전국, 임업부문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 중
- ⑤ 함경북도, 유만천 강하천 바닥파기 진행
- ⑥ 자강도, 장자강 강하천 바닥파기 공사 진행 중

- ① 황해북도, 사리원시 습해방지 물길정리 완공
- ② 함경북도, 길주군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 완료
- ③ 평안남도, 숙천군 해안방조제 복구공사 진행
- ④ 평안남도, 평원군 물길가시기 공사 완료
- ⑤ 평안남도, 평성시 하천정리공사 진행
- ⑥ 황해북도, 창풍군 재해 방지 사업 추진 중

Ⅲ.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1. 개요

- ‘개발’(327건)대상으로 지역별·유형별 보도 건수를 보면, 함경남도 50건, 황해북도 44건, 평안남도 42건, 함경북도 30건, 남포특별시 24건, 평안북도 21건, 양강도 19건, 황해남도 18건, 평양직할시 16건, 나선특별시 12건, 자강도 11건 순으로 집계됨

표 1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¹⁾	공장 시설	도시 생활 ²⁾	국토 지역 ³⁾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16	0	1(1)	1	9(9)	1(0)	0	3	0	0	1
남포특별시	24	1	1(0)	4	8(8)	2(0)	2	1	1	4	0
나선특별시	12	0	0(0)	3	1(0)	1(0)	3	4	0	0	0
평안남도	42	0	1(1)	6	12(12)	1(0)	4	2	9	4	3
평안북도	21	1	0(0)	2	8(7)	5(0)	1	1	0	3	0
자 강 도	11	0	0(0)	1	5(5)	1(0)	1	1	0	1	1
황해남도	18	0	0(0)	3	9(9)	2(0)	0	2	0	2	0
황해북도	44	2	0(0)	9	17(16)	1(0)	2	5	1	4	3
강 원 도	22	0	2(2)	3	6(6)	3(1)	2	2	0	4	0
함경남도	50	2	4(4)	9	21(21)	3(0)	1	3	2	5	0
함경북도	30	2	0(0)	3	13(13)	0(0)	2	3	3	2	2
양 강 도	19	2	0(0)	3	4(4)	5(1)	0	2	0	3	0
기타 ⁴⁾	18	2	1(1)	4	4(4)	1(0)	0	2	1	1	2
계	327	12	10(9)	51	117(114)	26(2)	18	31	17	3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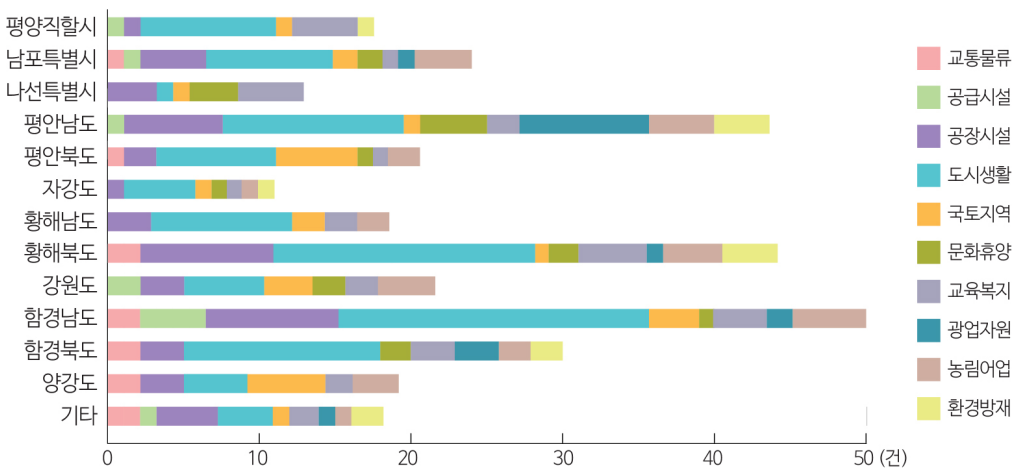
주1) 괄호는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건수임

주2) 괄호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건수임

주3) 괄호는 국토지역개발 중 특구 건수임

주4) 전국 또는 3개도 이상 걸친 시설, 또는 위치미상 시설 건수임

그림 1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2. 지역별 현황

가. 평양직할시

- 총 16건으로 도시생활시설 9건, 교육복지시설 3건, 공급시설, 공장시설, 국토지역개발, 환경방재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지구 3단계 건설 중, 4월15일 소년백화원 개건, 형제산구역 살림집 완공,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새집들이 진행 등

나. 남포특별시

- 총 24건으로 도시생활시설 8건,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4건, 국토지역개발, 문화휴양시설이 각 2건, 교통물류시설, 공급시설, 교육복지시설 및 광업자원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온천군 은덕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항구구역 우산농장 살림집 완공,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 마감단계, 생활용수 가압펌프장 신규 건설, 온천군 온천타일 공장 개건현대화 완료 등

다. 나선특별시

- 총 12건으로 교육복지시설 4건, 공장시설과 문화휴양시설이 각 3건, 도시생활시설 과 국토지역개발사업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해안공원 완공, 나선청년야외극장 준공, 청략요양소 개건 완료, 나선제 약공장 개건 완료 등

라. 평안남도

- 총 4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2건, 광업자원시설 9건, 공장시설 6건, 문화휴양시설 4건, 농림어업시설 4건, 환경방재시설 3건, 공급시설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문덕군 입석농장 새집들이, 순천시 표준약국건설 완공, 평성시 농촌살림집 완공, 북창군 북창지구 청년탄광벨트갱 건설 및 예비채탄장 건설, 개천시 무진대청년탄광 개발 중 등

마. 평안북도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8건, 국토지역개발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공장시설이 2건, 문화휴양시설과 교육복지시설, 교통물류시설이 각 1건 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평안북도 홍수 피해지역 복구 사업, 정주시 애도간석지 중요 방조제 공사 완료, 구성시 온실 완공, 삭주군 삭주군체육관 준공, 동창군 룡두농장 살림집 완공 등

바. 자강도

- 총 1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1건, 공장시설 1건, 국토지역개발 1건, 문화휴양시설 1건, 교육복지시설 1건, 환경방재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용림군 고운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강계시 은정남새농장과 두홍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강계시 야간조명 활용 도시 미관 사업 추진, 보건산소공자 준공, 도 품질분석소 준공 등

사. 황해남도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9건, 공장시설 3건, 국토지역개발, 교육복지시설, 농림어업시설이 각 2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삼천군 고현리 새집들이, 은천군 마두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은물군 이도포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용연군 식료공장 신규건설, 도 표준약국 건설 등

아. 황해북도

- 총 44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7건, 공장시설 9건, 교육복지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4건, 환경방재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과 문화휴양시설 2건, 국토지역개발과 광업자원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상원군 살림집 완공, 금천군 현내농장 및 계정농장 살림집 새집들이, 황주군 용천농장 살림집 완공, 여러 시군 대용량 종자보관고 건설 완료, 연탄군 토끼종축장 예방약생산기지 완공, 사리원즉석국수공장 준공, 도농업과학연구소 준공 등

자. 강원도

- 총 2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6건, 농림어업시설 4건, 국토지역개발과 공장시설이 각 3건, 문화휴양시설, 공급시설과 교육복지시설이 각 2건 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고성군 100여세대 살림집 보수, 원산시 7개 학교 신규건설 및 개건 완료, 이천군 읍축산농장 살림집 완공,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관공, 원산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원산 기초식품공장 준공, 금강군 명승지 관리 사업 추진, 고성군민 발전소 준공 등

차. 함경남도

- 총 50건으로 도시생활시설 21건, 공장시설 9건, 농림어업시설 5건, 공급시설 4건, 교육복지시설 과 국토지역개발 각 3건, 교통물류시설과 광업자원시설이 각 2건, 문화휴양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고원군 여러종류 살림집 완공, 함흥시 부민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신흥

군 중평농장 살림집 새집들이, 단천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석운반계통 정비대상공사 완공, 여러 시군 염소목장 신규 건설, 허천군 공공건물 및 아파트 개보수 완료 등

가. 함경북도

- 총 30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3건, 공급시설이 4건, 과 교육복지시설, 공장시설, 광업자원 시설이 각 3건, 농림어업시설과 환경방재시설, 교통물류시설이 각 2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경성군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수백세대 문화주택 준공, 경흥군 송향농장 살림집 완공, 명천군 및 연사군 살림집 완공, 청진시 도로기술개건 사업 완료, 청진시 건 재생산지기 조성 공사 완료, 길주군 체육관 개건 완료, 청진시 청진학생신발공장 준공, 청진즉석국수공장 준공 등

타. 양강도

- 총 19건으로 도시생활시설 4건, 국토지역개발 5건,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 각 3건, 교육복지시설과 교통물류시설 각 2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김형권군 허천강 신규 교량 준공, 양강도 10여개 표준약국 준공, 혜상 시 보바치령 사방야계 및 도로복구공사 완료, 백암군 민정농장 살림집 완공, 양강도 종자가공기지 완공, 혜산시 염소목장 완공, 혜산 기계공장 철제일용품생산공정 조성완료, 혜산즉석국수공장 완공 등

파. 기타, 전국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4건, 공장시설 4건, 교육복지시설과 환경방재시설, 교통물류 시설이 각2건, 공급시설, 광업자원시설, 농림어업시설과 국토지역개발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전역 수해 피해 지역 살림집 준공 사업이 대표적이며, 전국 종자보관창고 신규 조성, 전국 학생신발공장들 건설 완료, 전국 각지 태양광 에너지 개발 이용 등이 포함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계획’ 단계 0건, ‘건설’ 단계 70건, ‘완공’ 단계 257건임

2) 단계별 분포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0건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70건으로 함경남도 12건, 기타(전국)지역이 10건, 남포특별시와 평안남도가 각 8건, 황해남도 7건, 황해북도 5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각 4건, 평양직할시와 자강도, 강원도가 각 3건, 양강도가 2건, 나선특별시가 1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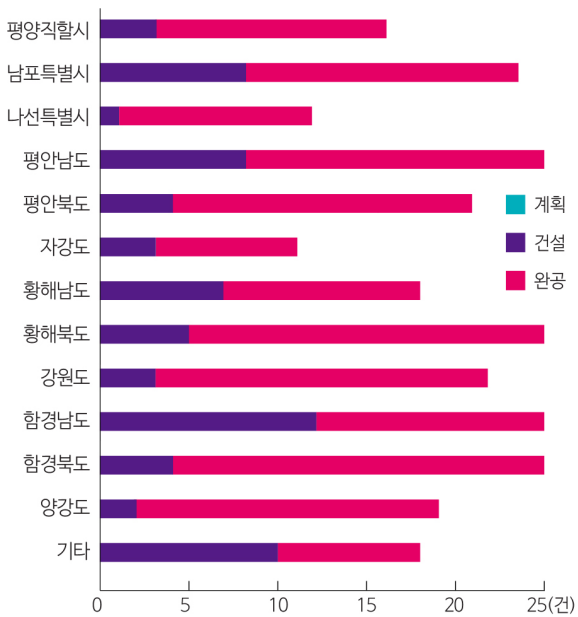
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257건으로 황해북도가 39건, 함경남도 38건, 평안남도 34건, 함경북도 26건, 평안북도와 양강도가 각 17건, 남포특별시 16건, 평양직할시 13건, 나선특별시와 황해남도가 각 11건, 자강도와 기타(전국)지역이 각 8건으로 분포

표 2 지역별 단계별 사업 분포

지역별	단계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16	0	3	13
남포특별시		24	0	8	16
나선특별시		12	0	1	11
평안남도		42	0	8	34
평안북도		21	0	4	17
자강도		11	0	3	8
황해남도		18	0	7	11
황해북도		44	0	5	39
강원도		22	0	3	19
함경남도		50	0	12	38
함경북도		30	0	4	26
양강도		19	0	2	17
전국/기타		18	0	10	8
계		327	0	70	257

그림 2 지역별 단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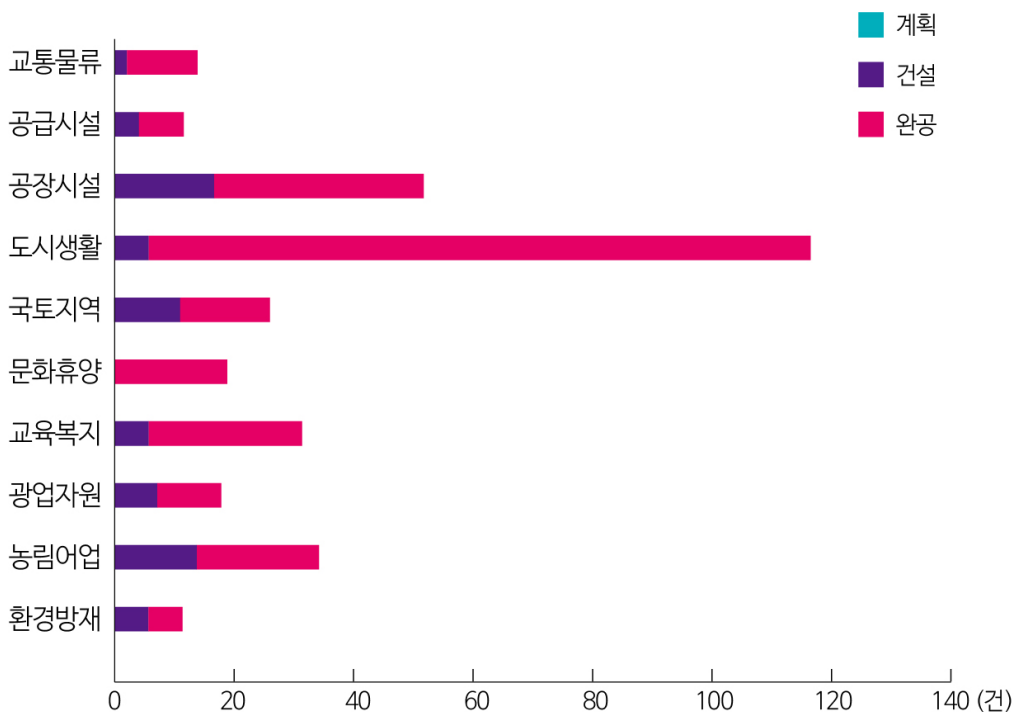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계획단계는 총 0건
- 건설단계는 총 70건으로 공장시설 16건, 농림어업시설 13건, 국토지역개발 10건, 광업자원시설 7건, 교육복지시설 6건, 도시생활시설 6건, 환경방재시설 6건, 공급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 2건, 문화휴양시설 1건 순으로 분포
- 완공단계는 총 257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11건, 공장시설 35건, 교육복지시설 25건, 농림어업시설 20건, 문화휴양시설 18건, 국토지역개발 15건, 교통물류시설 및 광업자원시설 각 10건, 공급시설 7건, 환경방재시설 6건 순으로 분포

표 3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별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70	2	3	16	6	11	0	6	7	13	6
완공	257	10	7	35	111	15	18	25	10	20	6
계	327	12	10	51	117	26	18	31	17	33	12

그림 3 단계별 시설유형 분포



PART 4

종합 및 시사점

Comprehension and Implications



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첫해인 2024년은 초기부터 전국 20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추진. 2024년 살림집 완공은 약 8만 3천 세대로 추정되며 농촌살림집은 2024년 약 44.7천 세대 완공 추정. 북한에서의 스마트건설 기술을 살림집 조립식 건설공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국가 예산 지출은 기본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 큰물피해복구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계획은 인민경제사업, 사회문화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을 계획. 2024년 7월, 평안북도·자강도 지역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홍수 피해 복구를 통해 기존의 농촌살림집 건설 추진 강화 및 내부 결속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민정치를 강조하려는 움직임 확인

1. 2024년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동향

-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지방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 2024년, 정책 추진의 첫해로 상반기 선정된 20개 시군에서 상반기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골조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성천군, 장풍군, 구성시, 온천군, 동신군, 고산군 등에서 공사 진행
- 원료기지 조성을 확대하고 철도 및 설비 조달을 위한 지원 강화
- 2024년 말, 평안남도 성청군 지방공업공장 준공(2024. 12. 20)
- (시사점)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연내 준공은 성천군이 유일
 - 타 국가 대상건설과 동시 추진, 건설 후 운영기반 확보 미흡, 자연재해 대응 등의 사유로 준공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트럼프의 재선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2. 2024년 3,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거리 건설 사업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세대, 매년 1만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년째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행 중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 2021~2025년, 5개년 동안 검덕지구 2단계 사업,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검덕지구에 매년 5,000세대 살림집 건설 중이며, 2024년에도 지속 추진 중
 - 룡천동, 수백세대 살림집 입사모임(노동신문, 2024.12.08.)
- 2024년 3,4 분기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현황
 - 노동신문 기사 활용, 추정한 농촌살림집 완공세대수와 2024년 1,2분기 실적 추정치를 비교하여 종합한 결과 3분기에는 18,500세대, 4분기에는 8,200 세대 준공 추정
- 2024년 살림집 사업 완공 실적 추정
 - 살림집 건설사업 총 완공 건수는 8만 3천여 세대로 추정
 - 이 가운데 농촌살림집은 약 44.7천 세대 추정
- (시사점) 2021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살림집 사업에서 무난히 달성 중. 2022년부터 추진한 농촌살림집 건설도 전국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매년 확장적으로 시행 중
 -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 지방경제 전반의 발전까지 가능할지 주시 필요

3. 북한 스마트건설과 건재 기술개발 동향

- 북한스마트건설 동향: 조립식 건설 공법
 - 북한에서는 디지털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수자경제’, ‘수자화’ 등의 표현을 사용
 - 최근 다수의 북한 기사 또는 기술 문헌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례, 개발현황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조립식 건설을 중심으로 현황 정리
 - 평양을 비롯, 전국적으로 대규모 살림집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립식 건설공법 도입의 효과와 기존 수립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공사에 새로운 조립식 건설공법이 도입돼 성과를 내고 있음
 - 화성지구 초고층 주거 건축에 조립식 공법이 도입되려면 생산, 양생, 운반, 조립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 우수한 양중장비 마련, joint, 방수, 내진 등의 요소기술 수준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공적 적용 여부는 추가적 확인 필요

-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2023년 발간 「기술혁신」문헌 중 건재 중심으로 세부 내용 검토
 - 문헌 내 건설 관련 65건 문헌 중 건재 관련 내용은 23건으로 파악
 - 대표적 논문으로 ‘나무가루-폴리염화비닐복합건재판생산에서 나무가루 함량을 높이는 방법’, ‘금강약돌과 그라펜, 전기석을 리용한 기능성타일 제조’ 등이 있음

4. 2024년 국가 예산 집행 결과와 2025년 국가 예산 계획

-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의 주요 내용
 - 경제재제 등 대외적 압력, 큰물 피해 등 어려움에 맞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 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국가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 국가예산수입 집행률은 전년보다 1.6%, 규모는 4.3% 증가하여 전년보다 집행률과 규모 모두 증가
 - 국가예산지출 집행률은 전년 대비 3.2% 증가.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 큰물피해복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 인민적 시책부문들, 12개 중요고지점령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관련 부문에 많은 예산을 지출
- 2025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위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자립경제 위력 발휘를 돕는 투자 집중,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 담보를 위한 편성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보다 2.0%, 예산지출은 3.8%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
- (시사점) 국가예산계획의 지출증가율이 늘어 경제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의 목표연도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본건설과 농업부문, 주민복지와 밀접한 교육, 보건, 문화 등에서 전년도보다 높은 지출증가율 계획하고 있어 관련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5. 평안북도·자강도 홍수 피해 및 복구 현황

- 북부 국경지역 홍수 및 피해 현황
 - 2024년 7월 27일, 북부경계지역인 자강도와 평안북도 지역에 기록적 폭우로 압록강 하류,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약 5,000명 이상 침수위험구역 고립
 - 약 4,100여 세대 살림집과 약 30㎢(약 3,000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
- 김정은 위원장의 홍수 피해 복구 현지도도 및 비상확대회의 소집
 - 홍수 발생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도도와 신의주시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칙국 비상확대회의 소집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압록강 연안 시군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

- 비상확대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 따라 신의주시와 의주군 피해지역 약 4,400여 세대 살림집 복구 및 건설하고, 8월과 9월 연이어 김정은위원장의 현지지도 시행
- 농촌살림집 건설과 연계한 살림집 복구 중심의 홍수 피해 복구
 - 홍수 피해 지역의 살림집과 공공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의 대상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홍수 피해지역에 파견, 빠른 복구 사업 추진
 - 연말 전 홍수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을 목표로 상당한 인력과 건축 자재가 집중 지원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연결, 농촌 살림집 건설의 주요 성과로 부각
 - 그 외, 피해지역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수도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교육, 관광, 복지 시설을 경험하게 하는 등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 모습을 강조
- (시사점) 살림집 중심의 수해 복구 사업 추진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성과로 강조, 가시적 홍보 효과 추구. 수재민 평양 초청 체류 등을 통해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 강조와 이를 통한 내부 여론 단속 시도
 - 그러나 홍수 피해 복구 대책의 실효성과 복구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 완공된 살림집의 주민 활용 여부 등은 향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 있음

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2024년 3,4분기 집계결과 분석대상 사업기사 건수는 32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252건)에 비해 약 1.3배 정도 증가. 시설유형별로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관련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농촌살림집 건설과 더불어 북부국경지역 홍수 피해에 따른 살림집 복구 및 건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함경남도 50건, 황해북도 44건, 평안남도 42건 순으로 많이 집계됨

1. 기사 건수 32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배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 사업 기사건수가 327건으로, 전년 동기(252건)에 비해 1.3배 정도로 증가. 2024년 1,2분기(191건)에 비해서는 약 1.7배 수준
 -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공사 및 실적이 다수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동년 상반기 대비 약 1.7배 이상 집계된 기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
 - 또, 전년 동기 대비 1.3배 이상 집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보이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후반 목표 달성 의지, 그리고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복구 건설 사업 기사가 다수 집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사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
 - 하반기 기간인 만큼 건설 중 집계건수(70건)에 비해 완공 집계건수(257건)가 3.6배 이상 많았으며, 올해 건설 목표를 연내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다수 확인되었음
 - 다만, 《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에 따른 지방공업공장의 20개 사업 중 연내 완공된 곳은 성천군 한 곳으로, 관련 사업의 완공 기사들이 2025년 상반기에 다수 집계될 것으로 예상됨

2.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 40건 이상 집계

- 함경남도에서 50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 건수가 집계되었으며, 황해북도와 평안남도가 각각 44건과 42건으로 많은 기사수 집계
 - 농촌 살림집 건설과 학교, 식료품 공장 등이 다수 추진 사업으로 집계되었고, 홍수 피해가 컸던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수해 복구 기사 등은 여러 개의 기사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하여 집계된 기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상반기에 비해 수도 중심 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지방 농촌건설 또는 농촌 살림집 중심의 기사가 대다수로 파악
-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북도는 전체 집계 기사 중 약 40%가 살림집 관련 기사였음
 - 살림집 기사와 더불어 함경남도와 황해북도에서는 공장시설 기사도 다수 집계됨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1,2분기에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으나 3,4 분기에는 총 12건 집계됨
- (공급시설) 총 10건(발전시설 9건)으로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사업 추진 중,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건설 외,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기사 다수 집계
- (공장시설) 총 51건으로 1,2분기 대비 약 1.3배 이상 집계 기사가 증가했으며, 도시생활시설(살림집) 다음으로 많은 기사 건수가 집계
 - 《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학생교복공장, 학생신발공장 등 경공업 공장 건설 또는 개건도 전국적으로 다수 추진 중
- (도시생활시설) 총 117건으로 건으로 이 중 114건이 살림집 관련 기사로 집계
 - 전국의 농촌살림집 건설 및 완공 소식이 3,4 분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으며, 1,2분기 살림집 건설 특징과 다른 점은 수도의 살림집 대상건설 보다 지방 농촌살림집, 농장 살림집 중심의 완공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홍수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양강도 등의 살림집 복구, 건축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
- (국토지역개발) 총 26건의 기사가 있었으며, 3,4분기 기사 특징상 국토정리사업, 도시 정비사업 완공 등 소식이 다수 보였고,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각 지역에서 간석지 건설사업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 중.
 - 특히, 원산갈마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주요 사업으로 언급, 특구개발로 추진 중
- (문화휴양시설) 총 18건으로, 1,2 분기 대비 4배 이상 증가. 나선시, 원산시 등 해안 도시들의 해안공원 조성, 극장, 명승지 관리 사업, 승마구락부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 휴양 시설이 보도됨
- (교육복지시설) 총 31건으로 상반기 대비 많은 사업이 집계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전국의 표준약국건설, 황해남도와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평양직할시 4월15일 소년백화원 개건 등
- (광업자원시설) 총 17건으로 전국 여러 탄광, 자원증산 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방공장 건설 지원 등이 특이점
- (농림어업시설) 총 33건으로 홍수 및 습해 방지를 위한 관개시설 정비 관련 기사들이 다수 집계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상반기 농사철 대비 관련 농업시설 건설 사업이 다수 집계
 - 그 외 평안북도 종이원료림 조성, 여러 시군 대용량 종자보관고 신규 건설, 강원도·양강도 감자종자저장고 준공 등
- (환경방재시설) 총 12건이었으며, 홍수 및 습해 방지 물길정리사업, 황해북도 해양방조제 공사, 평양직할시 중요건설장 재해 예방 조치 추진, 장자강 강하천 바닥파기 공사 등

Ⅲ. 3,4분기 종합 시사점

1. 목표량 달성을 위한 농촌살림집 완공 소식과 농촌살림집건설과 연계한 수해 복구

-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완공에 대한 보고 건수가 많았음
 - 연초에 제시한 농촌살림집 건설 목표 달성에 대한 보도가 3,4분기에 다수 보도됨
 - 노동신문 기사를 활용해 추정해 본 결과, 3분기에는 18,500세대, 4분기에는 약 8,200세대 준공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핵심 사업을 농촌살림집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존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외부에 경제작사회적 주체 역량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여름철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은 살림집 복구와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열악한 수재 현장에서 회복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로 활용되었으며,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살림집 건설이 더욱 강조되었음
 - 수해 복구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국제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회복했음을 강조
 - 다만, 농촌살림집의 실제 효용성과 건설 시 동원된 자재와 건축물의 질 등을 복한 발행매체만을 통해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지방발전 20×10정책》추진 첫 해,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만 준공

- 2024년 상반기, 대대적으로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하반기 들어 상반기 추진 사항을 기반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본격화
 - 20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성천군, 장풍군, 구성시, 온천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건설 진행
 - 군인건설자들과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집중하여 작업 속도를 높이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원료기지 조성을 확대
 - 본보기 대상으로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이후, 2024년 12월말 성천군 지방공업공장이 준공
 - 그러나 연초 목표와 달리 연내 준공 완료한 공장은 성천군 공장이 유일. 기타 지역 공장은 2025년 초 연이어 준공 소식 알릴 것으로 예상
 - 지방공업공장 외, 수도권 살림집 대상건설 사업과 더불어 종합병원, 양곡시설, 평안북도 및 양강도 수해지역 복구 사업 등 국가적 대상 건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 되면서 준공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

-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과 별개로 각 공장들의 운영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

3. 경공업 중심 공장시설 개간확대로 주민 생활 향상 강조와 내부 결속 강화

- 3,4분기 공장시설 집계 건수는 51건으로 도시생활시설(11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집계
 - 지방공업공장 관련 보도 기사 외 공장시설은 식음료(16건)공장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다음으로 석유화학 공장과 기계공장, 섬유 의복 공장 순이었음
 - 식음료, 석유화학, 섬유 의복공장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생활 향상을 강조
 - 특히 학생교복, 학생신발 공장과 밀가루가공공장, 즉석국수공장 등 주민들의 의식주에 밀접한 경공업 공장들을 전국에 다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내부 주민들의 결속과 당의 역량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임

4. 2025년, 국가예산 지출 증가 계획과 과학기술국가방위 강조

- 2024년 국가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25년 국가예산지출 또한 전년 대비 3.8%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
 - 2024년 국가예산 지출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 지출계획의 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인 것으로 추정
 - 2025년 국가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국가방위력에 대한 강조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위해 인민경제 중요부분들의 자립경제 위력발휘를 강조
 - 특히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 전 분야에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지출 계획의 세부 항목 중 타 항목에 비해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9% 증액함으로써 경제발전 전반에 과학기술의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 다만, 과학기술분야 중 2024년에는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을 강조한데 반해 2025년에는 경제부문의 정비 보강과 생산물의 질제고에서 실질적 역할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차별. 이는 2025년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 계획의 성과적 마무리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그 외 교육(사회주의문화사업)은 전년 대비 6.4%, 보건은 5.6%, 문화 5.7%, 체육 5.4% 증액

부 록

A p p e n d i x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과 범위

이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글로벌/북한연구센터에서 연중 진행하며, 조사 결과는 반기별로 분석 및 보고

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 대북사업 관련 경영·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 2024년 3,4분기(7~12월)
- 공간적 범위
 -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분류 방법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4년 7월~12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¹

표 1 기사 내용 입력자료 양식

코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2. 분류 기준과 내용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¹ 기사의 기초사항 입력은 <이석기·이승엽(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 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입력방법을 응용하되, 시설유형분류와 사업내용 등은 분석대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함.

표 2 유형 분류표

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참고) 음식료(10,11,12), 섬유 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4.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기타		
5. 국토지역 개발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척지, 기타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기타		
8. 광업자원시설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기타		
9. 농림어업시설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 사업명
 - 기사 :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 대표 :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표 3 사업내용의 구분과 위계/단계 세부 내용

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III. 분석자료 추출과정

1. 3,4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525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 및 조선신보임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525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327건을 추출
 -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
 -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표 4 추출 자료 건수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461	314
조선일보	64	13
계	525	327

표 5 2단계 추출 자료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327	12	10	51	117	26	18	31	17	33	12

'24년 3,4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I. 교통물류시설

1. 도로

□ 함경북도 길주군, 남원다리 준공(노동신문, 09.25, 3면)

- (내용) 함경북도 길주군 다리건설을 계획한 날자보다 거의 한달이나 앞당겨 6월 19일에 끝냄
 - 농촌살림집건설은 물론 올해에 시작한 학생소년회관, 체육관, 수영관 등 건설이 마감단계임
- (주체) 길주군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 함경북도 청진시, 도로기술개선 사업 완료(노동신문, 09.27, 5면)

- (내용) 도에서는 실무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패료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딛
 - 청진시 청암구역이 도로기술개선사업에서 실적을 올림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양강도 김형권군, 허천강 신규 교량 준공(노동신문, 09.28, 5면)

- (내용) 김형권군에서 허천강에 새 다리를 일떠세움
 - 다리 건설로 료전기재들의 통과능력을 높이고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게 됨
 -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건설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다리를 질적으로 건설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음
- (주체) 양강도 김형권군 군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양강도 김형권군

□ 남포특별시 온천군, 수천㎡에 달하는 도로포장공사 완료(노동신문, 10.05, 5면)

- (내용) 최근 온천군에서 수천㎡에 달하는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여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킴
 - 군일군들은 공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건설자들은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공정간협동을 강화하면서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침
 - 남포시의 일군들이 세멘트 등 자재 해결해주면서 적극 독려하여 석달 남짓한 기간에 끝남
- (규모) 수천㎡
- (위치) 남포특별시 온천군

□ 양강도 해산시, 보바치령 사방야계 및 도로복구공사 완료(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각 도철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보장에서 의의가 큰 보바치령사방야계 및 도로복구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 해산시 교외에 위치하고있는 보바치령의 도로가 번듯하게 뻗어나가고 수만㎡의 면적에 사방야계구조물들이 건설됨
 - 각 도철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보바치령의 특이한 지질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도로를 개척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임
 - 시공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질보장에 큰 힘을 넣음. 216사단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과 기계화수단을 현지에 보내주며 지원함
- (규모) 수만㎡의 면적에 사방야계구조물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신흥군, 도로기술개건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10.30, 1면)

- (내용)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신흥군에서 도로기술개건사업에 큰 힘을 넣음
 - 전반적인 도로구간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 및 정리사업도 진행중임
- (규모) 수십m의 다리
- (위치) 함경남도 신흥군

□ 황해북도, 주요다리건설 및 대보수 공사 진행 완료(노동신문, 12.08,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년차별목표밑에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올해에 계획한 주요다리들의 건설 및 대보수공사를 결속함
 - 봉산군과 은파군을 연결하는 다리공사를 위해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 도와 봉산군, 은파군의 일군들은 현장지휘와 기술지도를 박력있게 전개한 결과 다리공사가 결속되게 되었으며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어 주변의 면모도 일신되게 됨

- (주체) 황해북도와 봉산군, 은파군의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

2. 철도

□ 전국, 청년이천선 철길 침목 교체공사 완료(노동신문, 08.02, 5면)

- (내용)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은 청년이천선의 전 구간 침목교체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함
 - 철도성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 함흥철도국 당조직들에서는 방대한 공사량을 자체의 힘으로 빠른 기간에 하기로 함
 - 원산철도분국, 사리원철도분국을 비롯하여 철길개건공사장에 달려나온 여러 단위의 로동계급과 돌격대원들은 침목교체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함
 - 승호콘크리트침목공장,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여러 콘크리트침목생산기지에서 철길개건에 필요한 많은 량의 침목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함
 -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공장, 평양철도차량부속품공장, 함흥차량부속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많은 철길고착품을 생산하여 철길개건공사장에 보냄
 -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철길원들은 새로 콘크리트침목을 교체한 철길의 너비, 방향바로잡기 등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
- (특성) 청년이천선의 전 구간 침목교체사업 결속으로 화물수송능력은 지난 시기에 비해 제고

□ 전국, 철길강도 개선을 위한 침목 교체 등 공사 진행 중 (노동신문, 11.29, 1면)

- (내용) 철도성에서는 콘크리트침목생산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철도성적으로 년간 콘크리트침목생산계획을 완수함
 - 여러 콘크리트침목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공정 현대화로 침목생산에 박차
 -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과 승호콘크리트침목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기술개건으로 침목생산능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년간 콘크리트침목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
 - 각 철도국의 콘크리트침목생산단위에서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능률적인 자갈선별기와 파쇄기, 혼합물다짐기 등을 제작설치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여나감
 -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로동계급은 불리한 지형조건의 영향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일평균작업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 수행함
 - 청진철도국과 개천철도국에서도 현대적인 기공구들을 창안도입하여 침목다짐과 곡물잡기, 자갈깔기를 사공지도서의 요구대로 진행함
- (주체) 철도부문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전국

□ 청황해북도 사리원시, 명당역 구내철길 보수 진행(노동신문, 12.16, 5면)

- (내용) 명당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5,000여m의 구내철길에 대한 보수를 맡아 진행함
 - 철도성, 평양철도국, 상원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로 수백정의 콘크리트침목과 수천㎡의 깬자갈 등 자재와 로력, 운수기재동원으로 보수작업을 신속히 마침
 - 철길보수는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됨
- (주체) 명당역 일군들, 종업원들
- (규모) 명당역 5,000여m
- (위치) 황해북도 상원군

3. 항만

□ 평안북도 신의주시, 시멘트 전문수송 짐배 진수(노동신문, 12.09, 2면)

- (내용) 세멘트수송용짐배 진수식이 8일 현지에서 진행됨
 - 수풍호를 끼고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산골군들에 세멘트를 전문수송하는 선단이 무어짐
 - 신의주선박공장과 수풍해운사업소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멘트수송용짐배들과 굴착선을 건조함으로써 수송조건이 불리한 지역들에서도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강력히 추진할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구축함
- (주체) 신의주선박공장과 수풍해운사업소 로동계급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4. 기타

□ 함경남도 수동구, 석도탐보수공사 완료(노동신문, 07.21, 4면)

- (내용)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떠받들려 탄광에서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20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석도탐보수공사를 3일동안에 끝냄
 - 일군들은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한쪽으로는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전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사기간 석탄수송을 위한 사업들을 예단성있게 밀고나감
 -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런 불같은 일념 안고 하반기도 석탄생산투쟁에 박차
- (주체) 함경남도 일군들, 로동자, 기술자들
- (위치) 함경남도 수동구

II. 공급시설

1. 발전시설

□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건설 중(노동신문, 09.20, 5면)

- (내용) 강원도에서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침
 - 고성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운영준비에 힘을 넣으면서 원림록화와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내딛
 - 회양군민발전소 건설자들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음
 - 도에서는 자재보장을 앞세우며 독려하고 있음
- (주체) 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강원도 회양군

□ 함경남도 단천시, 북천9호 발전소 천수백m 물길굴 건설 중(노동신문, 11.08, 4면)

- (내용) 단천시에서는 천수백m의 물길굴완공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음
 -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발전소건설 기본대상인 물길굴공사에서 성과를 확대 중임
- (특성) 단천시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중요한 발전소임
- (주체)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천수백m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함경남도 금야군, 금야강군민발전소 언제하류보강공사 완공(노동신문, 11.09, 1면)

- (내용)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일군들은 언제의 기술적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보강할 부분들을 정확히 확정하여 언제하류보강공사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결속함
- (주체) 금야군 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금야군

□ 평양직할시, 평양화력발전소 수만 kW 용량 터빈발전소 보수 공사 완료(노동신문, 11.10, 4면)

- (내용) 평양화력발전소는 전력생산계획 수행과 동시에 지난해의 2배이상의 정비보강실적 기록

- 올해에 들어와 발전소에서는 전력공업성과의 연계밑에 5호, 7호타빈발전기에 대한 대보수를 진행하면서 수백개의 타빈날개를 교체하고 원성능을 회복함
- 여러 타빈발전기의 보수도 성과적으로 결속, 4대의 보이라대보수, 운탄계통보수 등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도 뚜렷한 결실을 안음
- 현재 발전소에서는 새로 설치한 8호타빈발전기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특성) 8호타빈발전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시킴으로써 수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함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남도 함흥시, 태양광발전소 완공(노동신문, 12.06,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함흥시에 태양빛발전소건설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건설자재와 태양빛전지판, 전주화보를 선행시켜 2달만에 태양빛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도에서는 전력생산 정상화와 전력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중임
- (주체)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1면)

- (내용) 고성군민발전소 준공식 18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강원도 고성군

□ 전국, 태양광 에너지 효과적 개발 이용(노동신문, 12.21, 7면)

- (내용)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태양빛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 설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대책하고 기술적지도를 심화
- 전력공업성 자연에너지기술교류사에서 계통연결형태양빛발전소건설을 실속있게 내밀어 올해에만도 전국적으로 많은 발전능력을 새롭게 조성함
- 발전소를 해비침조건이 유리한 소비지가까이에 접근시켜 건설하고, 합리적인 태양빛발전체계 확립으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리용률을 높임
- 해비침조건과 부지면적 등으로 태양빛발전능력조성에서 제약을 받고있는 단위들과 주민세대들을 태양빛발전체계에 가입시키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있게 내밀
- 현재 잠업비단공업국, 체육성 체육추첨관리소, 평양방직기계공장, 금화광산, 선천광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단위들과 가정들에서 태양빛에너지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
- (주체) 전국 각지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발전소 1단계 기본물길굴공사 결속(노동신문, 12.31, 5면)

- (내용) 단천발전소 1단계 기본물길굴공사와 발전설비, 압력철관로조립이 빛나게 결속됨
 - 남포시, 함경북도, 함경남도려단에서도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기본물길굴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함
 -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단기간에 1단계 발전설비조립을 결속함
 - 건설건재공업성려단 등의 건설자들도 권양기, 용접기들의 관리운동을 기술적으로 하고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며 작업을 립체적으로 내밀어 압력철관로조립을 제기일에 결속함
- (특성) 여러 시공단위 돌격대원들도 공격전을 벌려 공사성과를 확대함
- (주체) 단천시 인민, 군대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평안남도 평성시, 태양빛발전소 새로 건설(노동신문, 12.31, 5면)

- (내용) 도에서는 평성천기술에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를 새로 건설함
 - 태양빛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 설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대책하고 기술적지도를 심화시키면서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 감시 및 운영실과 전력봉사실, 변압기실, 배전반실을 비롯하여 전력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발전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양빛발전체계를 확립하고 생산 되는 전기를 국가전력계통에 넣어주고 있음
 - 한편 평성시의 건물들에 불장식도 특색있게 하여 도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킴
- (특성) 태양빛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토대 구축, 자연에너지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주체)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2. 수도가스시설

□ 남포특별시, 생활용수용 가압펌프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9.28, 5면)

- (내용)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올해에 계획된 대상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함
 - 시에서 세멘트와 강재, 뿔프와 발브 등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해결
- (특성) 구역안의 많은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 (주체) 구역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남포특별시

III. 공장시설

1. 음식료

□ 황해남도 룡연군, 식료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8.26, 5면)

- (내용) 황해남도 룡연군에 현대적인 식료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25일 현지에서 준공식 진행
 - 공장에는 여러가지 기초식품과 당과류, 말린과일, 젓제품, 다시마가루 등 10여종의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공정들과 제품분석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갖추어져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종합적인 편의시설도 훌륭히 꾸려짐
- (주체) 군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황해남도 룡연군

□ 함경남도 장진군, 감자가루생산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9.05,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감자가루생산공장이 건설되면 장진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확하는 감자들을 가공하여 맛있는 갖가지 가공품을 생산할수 있음
- (특성)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지게 됨
- (위치) 함경남도 장진군

□ 강원도 원산시, 밀가공공장 현대화 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9.11,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밀생산량 증가에 맞춰 원산밀가공공장의 현대화 공사 추진
 - 도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원산밀가공공장의 개건현대화 사업을 올해 수행해야 할 중점과제의 하나로 정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개건현대화공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5월초 공사 시작
- (주체) 도당위원회, 일군 및 근로자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황해남북도, 여러 시군밀가루생산공장 건설 중 (노동신문, 09.30, 5면)

- (내용) 황해남북도 여러 시, 군 각지에 밀가공공장들이 일떠서고있음
 - 밀생산량이 많은 신계군과 강령군에 일떠서는 연건축면적이 수천㎡인 현대적인 밀가공 공장들은 밀가공뿐 아니라 밀가공제품까지 생산할수 있어 매우 실용적임
 - 신계군과 강령군에서는 밀가공공장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공사 전부 결속, 타일붙이기 공사는 80%계선을 넘었고, 설비조립을 입체적으로 추진, 신계군은 50%, 강령군은 마감단계임
- (위치) 황해남북도

□ 나선평별시, 선봉어린이 영양식품공장 개건 현대화 완료(노동신문, 11.01, 5면)

- (내용) 라선시에서 선봉어린이영양식품공장을 새롭게 개건하여 10월 31일 현지에서 조업식 진행
 - 초고온살균기와 려과기, 교반기, 반죽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과 실험 및 분석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지고, 질과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어린이영양식품 전문생산 물질기술적 토대 마련
- (위치) 나선평별시

□ 나선평별시, 나선평양곡관리소 종합가공장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11.02, 4면)

- (내용) 라선평양곡관리소 종합가공장과 라진구역 안화원이 훌륭히 일떠섬
 - 라선평양곡관리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평양기계대학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양곡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비누, 기름생산공정 등을 확립함으로써 갖가지 필수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함
- (주체) 라선평양곡관리소 일군들, 기술자들
- (위치) 나선평별시

□ 함경남도, 밀가공공장 능력확장 개건 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11.11, 5면)

- (내용) 도에서는 밀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가공능력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려 인민들에게 더 많은 밀가공품이 차례지게 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함흥밀가공공장의 능력확장공사를 진행
 - 도에서는 현행생산과 능력확장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 맞춰 나가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 남포특별시, 즉석국수공장 완공(노동신문, 12.07,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즉석국수공장을 새로 일떠세움
 - 생산공정의 자동화,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에는 물정제공정, 즉석국수생산공정, 조미료생산공정 등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잘 갖추고,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잘 꾸려짐
 - 남포시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지역의 특성과 인구수에 맞게 공장부지와 생산능력을 확정하고 설계단위와 시공단위, 운영단위의 3자합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워 공사를 적극 추진함
- (주체) 남포시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 (위치) 남포특별시

□ 강원도 원산시, 원산기초식품공장 준공(노동신문, 12.10, 1면)

- (내용) 원산시에 기초식품공장이 새로 일떠서 9일, 준공식 진행
 - 생산공정의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되고 통합자동화체계가 구축된 현대적인 공장이 건설되어 여러가지 기초식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됨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즉석국수공장 준공(노동신문, 12.10, 1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사리원즉석국수공장을 새로 건설되어 9일 현지에서 준공식이 진행됨
 -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지고 생산공정의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에는 제품생산과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 등이 훌륭히 꾸려짐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북도 송림시, 송림밀가공공장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12.17,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송림밀가공공장이 꾸려져 9일 현지에서 조업식이 진행됨
 - 공장에는 밀가루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할수 있도록 기술개진된 정선 및 세척, 제분공정과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갖추어져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꾸려짐
- (주체) 도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황해북도 송림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오리공장 준공(노동신문, 12.19,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새롭게 개진된 사리원오리공장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됨
 - 도에서는 현대적인 오리공장을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함
 - 통합생산체계와 수의방역체계를 갖춘 오리생산기지가 세워져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양강도 해산시, 해산즉석국수공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6, 4면)

- (내용) 량강도에 해산즉석국수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25일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됨
 -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에는 밀을 기본원료로 하는 즉석국수와 빵, 음료 등의 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췌히 갖추어져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손색없이 꾸려짐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함흥시, 백운산종합식료공장 즉석국수생산공정 확립(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백운산종합식료공장에 즉석국수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짐
 -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진공농축기를 비롯한 설비제작과 조립을 성과적으로 완료함
- (주체) 공장의 일군들, 노동자, 기술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북도 개성시, 송악산즉석국수공장 조업(노동신문, 12.28, 5면)**

- (내용) 개성시에서 새로 꾸린 송악산즉석국수공장이 조업함
 -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갖추어짐
 - 시에서는 생산공정설계를 앞세우고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원료보장과 기능공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함
- (주체) 공장의 일군들, 기술자들, 종업원들
- (위치) 황해북도 개성시

□ **평안남도, 평성즉석국수공장, 개천설비조립사업소 준공(노동신문, 12.28, 5면)**

- (내용) 평성즉석국수공장과 개천설비조립사업소를 새로 건설함
 - 평성즉석국수공장건설을 담당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을 활용하여 기초 및 골조공사, 마감시공을 질적으로 끝내고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각종 생산 및 분석설비들을 설치하였으며 통합경영정보체계를 구축함
 - 지방경제발전에서 설비조립사업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명심한 도안의 건설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지방공업공장들의 설비가공 및 조립을 원만히 할수 있는 공정들을 새로 확립하였으며 능률적인 설비들과 기공구들을 갖추어놓음
- (주체) 평안남도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개천시

□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즉석국수공장 준공(노동신문, 12.29, 9면)**

- (내용) 청진즉석국수공장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됨
 -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 쏘히 갖추어진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됨
- (주체)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2. 섬유·의복

□ 함경남도 함흥시, 학생교복공장 완공(조선신보, 07.03, 2면)

- (내용) 함경남도에 함흥학생교복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계절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복들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양강도 혜산시, 혜산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7.05, 5면)

- (내용) 량강도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운동신과 구두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 혜산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됨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학생신발공장 준공(조선신보, 07.08, 2면)

- (내용) 사리원학생신발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6월 20일에 준공식 진행
-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운동신과 구두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전국, 여러 학생신발공장들 건설 완공(노동신문, 09.02, 5면)

- (내용) 전국에 여러 학생신발공장들이 건설됨
- 남포시, 원산, 평성, 사리원, 혜산학생신발공장이 새로 일떠선데 이어 함흥, 청진학생신발공장도 준공을 앞둬
- 강원도,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량강도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능공들로 건설력량을 꾸리고, 평양시에서는 학생신발공장건설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틀어쥐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힘있게 추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리면서 맡은 대상공사를 다그침
- (위치) 전국

□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12.30, 3면)

- (내용) 청진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19일에 진행됨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학생신발공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8, 5면)

- (내용) 함흥학생신발공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함
 - 도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성심을 다함
- (주체) 도당위원회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3. 석유화학

□ 남포특별시,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7.12,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시에서는 남포고려약공장을 훌륭하게 변모시킨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구역, 군고려약공장에 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올해중으로 결속할 목표밑에 사업을 힘있게 내밀
 - 시적인 조직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룡강군에서 로력조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워 고려약공장개건현대화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함
 - 강서구역에서는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작업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여 건축공사를 끝낸데 이어 설비와 비품 등을 갖추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천리마구역과 대안구역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면서 공사를 내밀
- (위치) 남포특별시

□ 나선특별시, 나선제약공장 개건 완료(노동신문, 07.17, 4면)

- (내용) 나선제약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어 조업함
 - 선봉구역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는 고려약생산장, 주사약생산장, 실험분석실, 문화선전실 등 의약품생산과 종업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
 -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생산공정과 환경을 갖춘 또 하나의 의약품생산기지의 마련으로 질 좋고 효율 높은 각종 의약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수 있게 됨
- (위치) 나선특별시

□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 현대화완료(노동신문, 09.19, 1면)

- (내용) 주체적인 화학섬유생산기지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개건현대화지휘조의 과학적이며 치밀한 지도와 방조밑에 광택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종이생산설비설치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결과 교과서용종이의 질을 종전에 비해 훨씬 제고할수 있는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됨

- 개건현대화지휘조와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공정들의 전면적 료해분석을 토대로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면서 필요한 설비들을 빠른 시일안에 구입하기 위한 작전 펼침
- (주체) 개건현대화지휘조, 공장의 일군들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토끼중축장 예방약생산기지 조성 완료(노동신문, 09.24, 5면)

- (내용) 연탄토끼중축장에서 예방약생산기지를 품을 들어 잘 꾸려놓음
 - 미생물에 의한 항생소생산을 내밀어 토끼의 질병을 예방하고 있음
 - 이미 올해 봄철에 할미꽃뿌리를 비롯한 약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은 조건에서 그 보관관리를 잘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음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함경남도 함흥시, 2.8비닐연합기업소 정비보강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12.03, 1면)

- (내용) 대규모화학공업기지 2.8비닐연합기업소에서 정비보강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
 -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연합기업소일군들은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도 여러 대상의 정비보강과제를 완강하게 밀고나가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움
 - 각종 화학제품생산의 출발원료인 카바이드생산을 늘이기 위한 능력확장공사가 마감단계임
- (주체) 연합기업소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정비보강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12.04, 4면)

- (내용) 총리 현지도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서 올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계획한 정비보강사업들을 원만히 결속할데 대하여 언급함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4. 비금속소재

□ 함경북도 청진시, 건재생산기지 조성 공사 완료(노동신문, 10.12, 5면)

- (내용)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자체의 건재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농촌건설에 필요한 수십종의 건재품들을 생산보장하고 있고 있으며, 올해에 건재품의 가지수를 더 늘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함

- (특성) 지방에 흔한 원료와 자재로 질 좋고 다양한 건재품들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음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남포특별시 온천군, 온천타일공장 개건현대화 완료(노동신문, 10.17, 5면)

- (내용) 소금공업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온천타일공장을 개건현대화하여 16일 준공식 진행됨
 - 건설물의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앞선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탄장, 사무청사를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건축공사를 손색없이 완성함
 - 생산시설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타일생산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소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
- (주체) 소금공업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위치) 남포특별시 온천군

□ 평양직할시, 평양도자기공장 개건(노동신문, 11.04, 5면)

- (내용) 평양도자기공장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능력이 큰 외벽타일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함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원료를 생산할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한편 평량기와 불분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하나하나 갖추고 능력이 큰 프레스를 설치하여 타일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함
 - 특히 타일의 색도보장에서 기본인자로 되는 소성온도를 정확히 조종할수 있는 자동화장치를 새로 제작설치하고 외벽타일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원료배합비와 프레스의 성형압력, 유약배합비 등을 확정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함
- (특성) 생산된 외벽타일들이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남도, 여러 마감건재공장 시설 확충 완공(노동신문, 12.01,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시, 군들의 마감건재생산공정 현대화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평군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보온재와 석재, 칠감생산설비들을 기술개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음
 - 단천시와 홍원군, 북청군의 여러 마감건재생산단위에서는 외장재와 경소마그네샤건구, 기와를 비롯하여 십여종의 마감건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놓음
 - 함주군과 신흥군, 금야군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적극 발동하여 지역의 원료원천을 가지고 마감건재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새로 꾸리거나 능력확장사업을 잘 하고 있음

- (특성)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 질 좋은 마감건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담보 마련
- (위치) 함경남도

□ 함경남도 단천시, 콩크리트전주생산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12.05, 5면)

- (내용) 최근 단천시송배전소에 콩크리트전주생산기지가 새로 꾸려져 운영을 시작함
- 송배전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건물공사를 단기간에 결속, 이어 설비를 제작중임
- (주체) 콩크리트전주생산기지 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타일공장 준공(노동신문, 12.16, 4면)

- (내용) 경암타일공장 준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됨
- 황해북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사리원시에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현대적인 타일공장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시공력량편성과 설비, 자재 보장대책을 선행시키면서 정책적지도, 기술적지도를 강화함
- (특성)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 (주체) 황해북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평안북도 염주군, 염주그물공장개건보수대상 준공(노동신문, 12.21, 6면)

- (내용) 평안북도 염주군에 그물공장이 훌륭히 개건 준공되어 준공식이 20일 현지에서 진행됨
- (특성)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그물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나라의 수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됨
- (위치) 평안북도 염주군

5. 철강

□ 금속공업성 산하 연합기업소 각종 보수공사 진행중(노동신문, 10.02, 1면)

- (내용) 철의 기지들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올해 정비보강목표를 제기일에 완수하고자 함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중주파유도로들과 조괴 및 압연공정을 비롯한 여러 대상 건설 및 보수공사를 결속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예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계통별시운전에 진입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도 연속조괴계통증설과 용해장건물건축공사에 박차를 가하는것과 함께 60t초고전력전기기로와 수천t능력의 전극생산기지건설 중임

- 청진제강소에서는 회전로 대보수중, 보산제철소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협력밑에 미분탄 계통의 건조로 대보수를 끝내고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를 건설하고 이어 계통별, 부분별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삼화철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 마련

- (위치) 전국

□ 강원도 문천시, 문평제련소 배소-류산공정개건대상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자립적인 유색금속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문평제련소 배소-류산공정개건대상 준공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위치) 강원도 문천시

□ 황해북도 송림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0, 2면)

- (내용)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특징) 우리 식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진전 이룩, 자립경제의 활로를 줄기차게 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됨
- (위치) 황해북도 송림시

6. 기계

□ 평안남도 개천시, 설비조립사업소 건설 중(노동신문, 09.06, 1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설비조립사업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개천시에 건설되는 설비조립사업소에는 도안의 여러 부문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기술기능전습도 진행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됨
- (주체) 도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농기계공장 개건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9.22, 4면)

- (내용) 해주농기계공장 개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음
 - 도에서는 현장지휘 및 기능공력량을 강력히 꾸리고 건설장비들과 룬전기재,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따라세움
- (주체) 황해남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사업소 개건현대화 추진 중(노동신문, 12.01, 1면)**

- (내용)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룡성기계연합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실태 현지료해에서 모든 건설자들이 시공의 질을 보장하면서 공사를 일정대로 진척시킬 것을 강조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남포특별시, 금성트랙터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추진 중(노동신문, 12.04, 1면)**

- (내용) 김덕훈 내각총리는 남포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료해에서 개건현대화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는데 맞게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전반적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작전과 지휘를 심화시킬데 대하여 강조
- (위치) 남포특별시 금성트랙터공장

□ **양강도, 해산기계공장 철제일용품생산공정 운영 시작(노동신문, 12.16, 5면)**

- (내용) 해산기계공장에 철제일용품생산공정이 꾸러져 운영을 시작함
 - 지난 8월 시작된 건설에서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건축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설비들을 제작, 조립하며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줄기차게 전개함
 - 공장기술자들은 철제일용품생산에서 기본인 도금공정을 완성하기 위해련관단위 기술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간 결과 철제일용품생산공정을 계획한 기간에 확립하고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함
- (주체) 공장의 일군들, 노동자, 기술자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자강도, 보건산소공장 준공(노동신문, 12.19, 4면)**

- (내용) 자강도보건산소공장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됨
 - 도에서는 치료예방기관들에 질 좋은 의료용산소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공장을 자체로 일떠세울 목표밑에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해나감
- (특성) 산소분리기장, 산소충진장 등 의료용산소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
- (위치) 자강도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 준공(노동신문, 12.21, 6면)**

- (내용) 개건현대화된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 준공식이 20일 현지에서 진행됨
 - 황해북도에서는 농기계발전전략에 립각한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현대화를 위해 기술력량편성과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면서 공사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함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교육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170여대의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생산정상화의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

- 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일수 있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장비된 프락토프부속품공장이
일떠섬으로써 각종 농기계부속품들을 도안의 농장들에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주체)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 기술자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7. 기타

□ 전국, 지방발전 20X10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20, 1면)

- (내용) 《지방발전 20×10 정책》 관철의 첫해 진군에 분기해나선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들의 군인건설자들이 련일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지붕공사가 결속되고 타일붙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 구내길포장과 울타리공사, 원림록화 등 외부공사를 손색없이 마무리짓기 위한 작업들
과 함께 내부미장과 간벽축조를 비롯한 내부공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음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들의 군인건설자들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노동신문, 11.15, 1면)

- (내용)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관병들도 마감시공의 질제고에 총력을 집중하
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위치) 황해남도 재령군

□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1, 1면)

- (내용)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12월 20일에 진행됨
- (위치) 평안남도 성천군

Ⅳ. 도시생활시설²

1. 살림집

□ 완공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양 직할시	역포구역 소신남새농장 (소신남새농장 소재지마을과 제4작업반마을)	백수십 세대 (09.18)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 · 앞선 공법 활용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만경대구역 금천남새농장, 칠골남새농장	수백 세대 (04.01)	· 입사모임(03.31)
		(10.01)	· 현대적 살림집, 단층, 소층
		(10.31)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공동축사 건설
	시 농촌경리위원회 금대농장 남새제1작업반마을, 농산제2작업반마을(낙랑구역)	(11.10)	· 상반기에도 공급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백 수십세대 (11.12)	· 상반기에도 공급 ·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 구현, 주변환경과 조화된 문화주택
	시농촌경리위원회 구서농장, 성일농장(순안구역)	(11.29)	· 상반기에도 공급 · 지역적특성에 맞게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 구현
남포 특별시	시농촌경리위원회 송금축산농장 봉문축산분장	(12.13)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된 농촌살림집 · 공동축사
	온천군 은덕농장	(08.02)	· 서해 간석지벌에 위치, 지역특성 살림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된 문화주택 ·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임
	대안구역 다미농장	수백 세대 (08.06)	· 지역의 특색 살림 ·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 보장, 문화주택
	항구구역 지사농장, 우산농장	(09.11)	· 농촌고유 특색과 현대미의 조화 · 근로자들의 편의 도모 조건 갖추 · 다양한 형식
	룡강군 룡흥농장	(10.13)	
	와우도구역 대대남새농장, 령남농장	(11.08)	· 와우도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참여
	시농촌경리위원회 룡호농장, 룡강군 후산농장	수백 세대 (11.15)	· 지역적특성 살리고, 현대성, 문화성 구현 · 원림록화

²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관련 기사는 총 114건으로 기사의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여 완공과 건설 중 건수를 구분하여 지역 순으로 표로 정리함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남포 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	(12.12)	· 상반기에도 공급 · 강서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 참여 · 올해 계획된 살림집건설을 질적으로 마침
평안남도	덕천시 신성농장	수백 세대 (07.10)	· 현대적인 문화주택
	성천군 삼원공예작물농장	수백 세대 (07.10)	· 현대적인 문화주택
	문덕군 립석농장	(07.24)	· 2023년에도 공급 · 별방지대의 특색을 살린 단층, 다락식, 소총살림집
	평성시 자산농장	(08.20)	· 현대적인 농촌살림집
	대동군 서제농장	수백 세대 (09.13)	· 지역특색 살림 · 시공력량편성, 건설장비, 자재보장 선행, 마감건재생산 활성화 대책, 앞선 공법 활용
	북창군 남상농장	수백 세대 (09.16)	
	증산군 만풍농장, 석다농장	수백 세대 (09.21)	· 현대적인 문화주택 · 서해별방지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회창군 신지동농장, 신성농장	(09.25)	· 산골군의 변모
	은산군 송화리, 연합리	(10.19)	· 지역의 특색과 현대미를 살림 · 모든 생활조건이 그쯔히 갖추어진 문화주택
	숙천군, 약전농장	(11.17)	· 상반기에도 공급 · 지역적특성 살려 다양한 형식 살림집 · 공동축사 · 기능공력량 강화, 건설장비보강, 기공구 확보 등을 선행
	양덕군 태흥리와 은하리	수백 세대 (12.15)	· 정치성, 현대성, 문화성 제고 우선 · 시공력량강화, 건설장비, 기공구확보 예견성있게 추진 · 앞선 공법, 능률높은 기공구 적극 도입
	문덕군	수십 세대 신규 건설, 160여세대 개건보수 (12.20)	· 상반기에도 공급
	대흥군, 천리성농장, 녕원군 마근담축산농장	수백 세대 (12.25)	· 산간지대의 특성 뚜렷이 살림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안북도	피현군 삼상농장	수백 세대 (07.04)	· 다락식, 단층, 소총살림집 · 작업 기계화비중, 시공 전문화수준 제고
	녕변군 원음농장	수백 세대 (07.12)	· 문화주택 · 실용성, 다양성, 조형예술화 구현 모색
	대관군 평문리	수백 세대 (07.21)	· 단층, 다락식, 소총살림집 · 농촌고유의 특성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룬 문화주택
	천마군 신시농장	(08.21)	· 지난해에도 건설 · 생활상 편의 조건 갖춘 현대적인 문화주택
	동창군 룡두농장	수백 세대 (09.27)	· 산골농장의 특색을 살림
평안북도	신의주시 하단리	(12.22)	·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고층, 소총의 현대적인 도시형 농촌살림집
	정주시, 독장농장	(12.23)	· 지난 4월에도 공급 · 농촌 문화주택 · 역량편성, 건설장비확보 등을 앞세우고 · 작업 기계화비중, 시공의 전문화수준 제고
자강도	룡림군 고운농장	수백 세대 (07.02)	· 산간지대 특성 살림, 현대성, 문화성 · 단층,다락식의 다양한 문화주택
	강계시 은정남새농장과 두흥남새농장	수백 세대 (07.05)	· 산기슭에 위치 · 문화주택
	초산군 양토농장과 련성농장	수백 세대 (07.18)	· 지역특색 살림 · 농장원 편의 도모
	장강군 성장농장	수백 세대 (09.04)	· 산간지대 특성을 살림 · 주민 편의 도모할수 있게 건축형성
황해남도	삼천군 고현리	수백 세대 (07.01)	· 현대적 살림집
	은천군 마두농장	수백 세대 (07.15)	· 지난해에도 건설 · 중산간지대 지형기복과 조화, 다양한 형식 · 단층, 소총, 다락식살림집
	봉천군 석사농장	수백 세대 (07.26)	· 지역특성 살림
	장연군 석장농장	(07.30)	· 지난해에도 건설 · 문화주택
	은률군 이도포농장	수백 세대 (08.01)	· 문화주택 · 농장원들의 생활편의 보장
	송화군 구탄농장, 약산농장	수백 세대 (08.31)	· 문화주택 · 농장원들의 생활편의 보장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공동축사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양강도	보천군 소재지 다층살림집	수백 세대 (07.07)	· 여러동의 다층살림집 · 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
	대흥단군 농사동농장, 삼장농장	수백 세대 (07.19)	· 백두산기술의 감자산지 · 농촌고유특색 살린 문화주택 · 주민들의 편의보장 · 공정별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등 조직
	갑산군 사평농장	수백 세대 (08.04)	· 백두산기술 · 농장원들의 편의보장 · 살림집지구의 정치성, 현대성, 문화성 제고 · 살림집형태, 공정별 보여주기 진행 등
	백암군 양곡농장, 만정농장		· 두메산골의 지역특색 살린 문화주택 ·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공법 활용 · 건설장비 효과적 이용, 기능공역량 강화
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농장	(07.06)	· 지난해에도 건설 · 생활상 편의 보장 조건 갖춘 살림집 ·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 마감건재생산기지, 양묘장 꾸림 · 앞선공법 경험,능률 높은 기공구 적극 도입
	곡산군 문양농장		
	해주시 장방농장	수백 세대 (07.31)	· 지난해에도 건설 · 아담하고 특색있게 건설
	상원군 장항리	(08.24)	· 중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건설 ·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 지역의 원료에 의거 마감건재생산
	서흥군 문무리	(08.29)	· 지난해에도 건설 · 최단기간에 현대성, 문화성 갖춘 · 공동축사
	금천군 현내농장, 계정농장	수백 세대 (09.07)	· 단층, 소층살림집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생활상편의를 위한 조건 갖춘 문화주택
	사리원시 성산리	(09.12)	· 지난해에도 건설 · 현대적인 문화주택 · 실용성과 조형예술화 보장된 살림집
	중화군 마운농장	수백 세대 (09.15)	· 지역특색 살림 · 기능공역량 강화, 앞선공법 도입
	신계군 원교농장	(09.19)	· 미루벌에 위치 · 아담한 현대적 문화주택
	연산군 옥덕농장	수백 세대 (09.20)	· 지난해에도 건설 · 중산간지대 특성에 맞게 위치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시공의 전문화수준 제고, 앞선 공법 활용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황해북도	린산군 석련농장	수백 세대 (09.28)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된 문화주택 · 각종 기공구와 마감건재 등을 자체 해결, 시공 질보장
	토산군 양사농장	수백 세대 (10.04)	· 지난해에도 건설 · 설계상요구 지키면서 공사 진행 · 문화주택
	은파군 대청농장	수백 세대 (10.09)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공동축사
	황주군, 룡천농장	(11.06)	· 현대적 문화주택
	개성시, 농촌경리위원회 신광농장	(11.19)	· 현대적 문화주택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농장	(12.09)	· 현대적 문화주택 · 건설장비,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설계와 시공의 요구에 부응
	개성시, 덕암농장, 장풍군 대덕산농장	(12.16)	· 농촌고유 특색, 현대성, 문화성 구현 · 현대적 문화주택, 공동축사
강원도	고성군*	10여 세대 (07.15)	· 재해방지 일환으로 100여세대 살림집 보수과정에서 신규 건설
	고산군 연호리, 설봉리	수백 세대 (08.11)	· 지역특색 살린 아담한 현대적 살림집 ·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
	통천군 명고리	(08.18)	· 단층, 소층살림집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이천군 읍축산농장	수백 세대 (09.17)	· 산간지대의 풍치와 조화, 아담하고 현대적미감이 나게 설계
	법동군, 작동농장	(11.09)	· 산골마을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평강군 읍축산농장, 지암축산농장	(12.23)	· 현대적 문화주택
함경북도	경원군 성내농장	수백 세대 (07.13)	· 지역특성 살림
	명간군 양천농장	수백 세대 (07.14)	·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 현대성, 문화성 구현
	청진시 라남구역 라북농장, 룡암남새농장	수백 세대 (07.22)	· 현대적 문화주택
	무산군 차유농장	수백 세대 (07.25)	· 합리적인공법, 기술혁신안 수용
	김책시 상평축산농장	수백 세대 (08.08)	· 산간지대의 특성 살림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부령군 사하농장, 형제농장	수백 세대 (08.09)	· 산골지방 특성 살린 문화주택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함경북도	화대군의 양촌농장과 금위농장	수백 세대 (08.12)	· 동해기슭에 위치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부전군의 광대축산농장과 호반농장		· 북부고원지대 위치 · 부전호반의자연풍치와 조화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청진시 근동남새농장, 농포남새농장	수백 세대 (08.13)	· 농촌고유특색 살린 문화주택 · 농업근로자들의 편의보장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농장	수백 세대 (08.22)	· 농촌고유특색 살림, 현대성, 미학성 보장 ·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경흥군 송향농장	수백 세대 (09.06)	· 두만강 기슭에 위치 ·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 ·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명천군 다호농장	수백 세대 (09.10)	· 문화주택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연사군 남작농장		· 공동축사
	경성군,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수백 세대 (12.26)	·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보장 · 해안공원지구건설과 종업원살림집건설 병행 · 시공력량강화, 건설장비, 기공구 확보 등
함경남도	락원군 은솔농장, 사동농장	(07.07)	· 동해안지구에 위치 · 아담한 현대적 살림집, 특색있는 문화주택
	가림천기슭	(07.07)	
	고원군 다천농장, 성내농장	(07.20)	· 산골마을, 현대적 문화주택 ·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 지방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생산
	함흥시 동흥산구역 부민농장	수백 세대 (07.23)	· 지난해에도 건설 · 주변과 조화,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 현대성, 문화성 보장 · 지방원료 건재품생산, 시공의 질 제고
	신흥군 중평농장	수백 세대 (08.14)	· 산기슭에 다양한 형식으로 설계된 문화주택 · 장비확보, 마감건재보장, 앞선공법 활용
	신포시 신포농장	수백 세대 (08.23)	· 현대성, 문화성 보장 · 건설력량 강화, 경소마그네사 건구생산
	함흥시 영광농장과 초운농장 (사포구역)	수백 세대 (08.27)	· 현대적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 농촌고유특색 살린 문화주택
	화상구역 동흥농장		· 앞선 공법 도입, 기계화비중 제고
	영광군 자동농장	수백 세대 (08.30)	· 건축형성에서 다양성 구현된 문화주택
	함흥시 마전농장, 내호농장		· 농촌건설에서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제고
	덕성사과농장	수백 세대 (09.02)	· 과일생산기지 · 문화주택 · 지역적 특성,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

지역	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함경남도	요덕군 림평농장	(09.03)	· 산간지대의 자연풍치 살림 · 지방 원료 마감건재생산 활성화
	함흥시 흥덕구역 룡신농장	수백 세대 (09.05)	· 현대적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평산군 청학농장, 와현농장	(09.09)	· 지역 특색, 자연기복따라 아담하게 건설된 현대적 살림집
	단천시 직절남새농장, 달전농장	(09.14)	· 현대성과 문화성, 편리성 보장 · 지역특색 살린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허천군 읍지구 아파트 개건 보수*	(11.15)	
	함흥시 해안구역 수도농장	(12.04)	· 지난 6월에도 건설 · 성천강 기슭 · 현대적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 · 건설력량, 건설장비 등 보강, 선진적인 공법 적극 활용
	함주군 조양농장, 붉은별농장	(12.05)	· 동해안 별방(평야)지대 특색 살리고, 주민들 편의 도모 · 건설장비 가동률 제고, 합리적인 공법 수용,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 등
	단천시, 검덕지구 룡천동*	수백 세대 (12.08)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 광산도시, 산악협곡도시로 전변 일환
	금야군 읍농장	(12.25)	· 시공력량편성, 건설장비, 자재보장 선행, 마감건재생산 활성화
	단천시, 검덕지구 남풍동, 본산동, 전진1동, 2동*	천 수백 세대 (12.27)	· 단천지구공업총국 일군들, 건설자들 참여 ·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전변 일환
	북청군, 용전과수농장 당우분장	(12.30)	· 현대적 문화주택 ·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건축공사 질 보장

□ 건설 중

지역	시군(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양 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11.08)	· 3단계 건설착공식(02.23) · 특색있는 살림집건축군, 교육, 보건, 상업 및 편의봉사시설 등 공공건물 · 평양건설위원회려단, 성, 중앙기관 제1려단, 군인건설자, 사회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참여 중 · 소층, 고층살림집, 봉사망, 시설물, 학교건설

지역	시군(위치)	규 모 (최근 보도시기)	비고
평양 직할시	낙랑구역, 사동구역, 대성구역	(11.07)	· 농촌살림집 · 건설장비와 기공구, 건구의 개발과 생산을 시적인 사업으로 전환 · 신입공들 기술전습, 건설기능공 역량 보강(낙랑, 사동구역)
평안북도	운산군	(07.12)	· 올해 계획된 농촌살림집 골조공사 결속
	신의주시 하단리	(08.21)	· 수해피해 지역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등 참여
	의주군 서호리, 강운리 등		
	의주군 어적리, 신의주시 하단리 등 수해피해지역	(11.03), (11.05), (11.19) 등	· 기공구전사회, 보여주기사업 등 조직
자강도	수해피해 지역	수천 세대 (09.12), (09.14), (11.09), (12.03) 등	· 수해피해 지역 · 3일동안 수천 세대 살림집기초굴착, 기초콘크리트치기 결속, 골조공사 본격 단계 · 각지 당원련대 전투원들 참여
함경남도	북청군, 장진군, 금야군, 홍원군과 신흥군 등	(11.07)	· 마감단계 · 질 좋은 마감건재 생산보장에 역량집중(북청군, 장진군, 금야군) · 설계와 공법상의 요구에 맞게 건설물의 질 보장(홍원군과 신흥군)
양강도	수해피해 지역	(11.03)	· 살림집공사 본격 추진

2. 업무시설

□ 평안북도 용천군, 송배전소 청사 개건확장 공사 완료(노동신문, 10.01, 3면)

- (내용) 지난해 초급당비서 심동선동무는 초급당위원들의 모임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공원을 새로 훌륭히 꾸려주자는 의견을 제기
- 새로 생겨난 공원,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종업원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을 볼 수 있음
- (위치) 평안북도 용천군

3. 상업시설

□ 나선특별시, 해안관 개건 완료(조선신보, 07.03, 2면)

- (내용) 라선시에 해안관이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일떠서 개건됨
- (위치) 나선특별시

4. 숙박시설

□ 황해북도, 체육인 숙소 건설 완공(조선신보, 07.08, 2면)

- (내용) 황해북도체육인숙소가 새로 건설되어 6월 21일에 준공식 진행
 - 경암산지구에 일떠선 숙소에는 침실, 식사실, 기능회복실, 체육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음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V. 국토지역개발

1. 지역개발

□ 양강도, 수십km 구간의 중소하천들을 정리(노동신문, 07.12, 5면)

- (내용) 보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수십km구간의 중소하천들을 정리함.
 - 군의 일군들은 공사의 선후차를 옮겨 정하고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중기계들의 만가동보장에 힘쓰
 - 많은 토량을 처리, 제방쌓기, 수종이 좋은 나무들 식수 등으로 지역의 면모는 몰라보게 전변
- (위치) 양강도 보천군

□ 남포특별시, 강하천정리 및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17,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강하천정리와 도로기술개진, 생태환경보호, 도시와 마을꾸리기 등 전개
 -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상반기년간 48만 5 000여㎡의 강바닥파기와 물길곧추펴기, 장식쌓기, 제방성토보수, 도로포장 등이 진행
 - 천리마구역에서는 큰물피해위험대상으로 되어있는 하천제방에 대한 성토보수, 강바닥파기와 수십km구간의 도로포장 및 보수를 질적으로 완료
 - 항구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사리지역에 위치한 대동강제방에 대한 장식쌓기 진행, 도로의 문화성과 안전성보장을 위한 개건공사에 힘을 넣고있음
 - 시안의 여러 지역과 단위들에서도 제방보수와 원림경관조성, 공공건물과 살림집보수 등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북도 금천군, 유원지, 여관 및 교량공사 완료(노동신문, 09.12, 3면)

- (내용) 군자체의 힘으로 레성강기슭에 오랜 세월 속절없이 솟아있던 바위산을 유원지로 전환, 려관 개진, 3개의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등 읍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도 내밀었음
 - 큰물피해의 후과로 몇해째 운영되지 못하고있던 군문화회관 개진도 진행
- (위치) 황해북도 금천군

□ 남포특별시, 도시 정비 및 주요 건축물 완공(노동신문, 09.14,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킴
 - 지난해에 현대적으로 일떠세운 건축물들과 어울려 학생신발공장과 과학기술도서관으

로 소재지의 면모가 이채로와지고, 갖가지 색깔의 타일로 단장된 건물들과 시내의 곳곳에 설치된 화대, 일매지게 포장된 도로들이 항구문화도시의 풍치를 돋우고있음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남포역일대를 완전히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작업의 기계화비율을 높여 남포역앞도로포장공사를 적극 추진, 밀가공공장과 시문화회관주변에 대한 꾸리기사업도 진행하여 이 일대를 변모
- 지금 시에서는 항구구역 상대두동지구로부터 와우도유원지까지의 중심도로 전 구간을 보수 및 포장할 계획밑에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음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남도 북창군, 양어장, 온실, 축사, 버섯재배장, 살림집 등 개건(노동신문, 09. 19, 3면)

- (내용) 함경남도 북창군 부문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 양어장, 온실, 축사, 버섯재배장 등을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꾸림
- (위치) 함경남도 북창군

□ 함경남도 단천시, 주요 대상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10.30,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올해 당결정에 반영된 주요대상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음
- 건설대상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조건에 맞게 공사지휘력량을 보강하고 일터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자재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 단천항 살림집건설도 추진중인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1단계 살림집건설을 끝낸 기세를 늦춤이 없이 2단계 살림집건설에 진입하여 실적을 올리고있음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2. 국토개발

□ 평안북도, 수해 피해지역 복구 사업 진행 중 (노동신문, 11.03, 3면)

- (내용) 평안북도피해복구에 동원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청년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살림집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돌격대지휘조에서는 기공구전사회와 보여주기사업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공사의 질보장을 위한 물질기술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속도전청년돌격대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설계상, 공법상요구를 준수하며 대상공사를 힘있게 추진중
- (위치) 평안북도

□ 양강도, 수해 피해지역 복구 사업 진행 중 (노동신문, 11.03, 3면)

- (내용) 량강도피해복구전역의 살림집건설장들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음
 - 함경북도, 라선시당원련대 전투원들과 량강도의 시, 군건설자들은 적극적 참여, 전반적인 살림집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 우수한 경험과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건설자들은 지붕공사와 내외부 미장을 립체적으로 다그쳐 끝내였으며 매일 130%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를 확대
- (위치) 양강도

□ 양강도 삼지연시, 올해 계획된 토지정리과제 완수(노동신문, 11.06, 4면)

- (내용) 삼지연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1,2회의 흠뻑집기, 나무뿌리들을 들어내는 작업을 다그쳐 끝낸 기세드높이 류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계획된 면적의 토지정리를 결속함
 -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삼지연시를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리려는 당 구상에 부응 노력
 - 려단에서는 10월말까지 130여정보에 달하는 삼지연시의 농장포전들을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올해 계획을 완수함
- (주체) 삼지연시대대의 돌격대원들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전국, 가을철국토관리사업(노동신문, 11.17, 1면)

- (내용) 전국적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정리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 (황해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정리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고 있음
 - 평산군에서는 큰물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곳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지대적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이고 강하천정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금천군에서는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탐구동원하고 막돌확보와 운반을 앞세우면서 강하천 구조물공사를 다그치고, 구조물 안전성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 수립 중
 - (함경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일념 안고 가을철나무심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종이 좋은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온성군에서 적지적수 원칙하에 수종선택하여 나무심기 진행, 가을철나무심기를 결속함
 - 경원군은 공정별작업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연사군에서는 경영목적에 따르는 수종을 지역별, 구간별로 확정하고, 나무모보장을 앞세워 일정계획수행에서 드팀이 없게 하고 있음

- 무산군에서는 앞선 나무심기방법을 받아들이고 구덩이파기, 부식토갈기, 흙다짐 등 공정별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사름물보장 노력
- 경흥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나무모운반과 심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내세우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있음
- 배천군에서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주체) 전국의 일군들
- (위치) 전국

□ 강원도 법동군, 고성군 국토관리사업 추진(노동신문, 12.10,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국토관리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여 올해에 계획된 도로기술개건과 살림집, 공공건물보수, 유원지꾸리기 등을 질적으로 완료함
- 법동군, 고성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계획된 구간의 도로확장 및 포장, 옹벽공사 등을 립체적으로 진척,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보장
- 고산군과 금강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명승지들의 생태환경을 보호, 력사유적들과 천연기념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함
- (위치) 강원도 법동군, 고성군

3. 도시개발

□ 나선평별시, 주요 대상건설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10.22, 3면)

- (내용) 두만강역사와 청년야외극장, 농촌살림집 등 여러 대상건설이 진행중임
- (주최) 선봉구역건설려단
- (위치) 나선평별시

□ 자강도 강계시, 야간조명 활용 도시 미관 사업 추진(노동신문, 11.01, 5면)

- (내용) 자강도에서 강계시의 불장식을 보다 특색있게 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
- 도안의 일군들은 도소재지의 거리들에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구현된 고상하고 품위있는 우리 식의 불장식장관을 펼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개
- 전반적인 불장식구성을 다양하게 하면서도 조형화,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강계광장주변의 건물들과 충성동, 읍성동, 강서동, 외룡동을 비롯한 시내의 야경도 이채를 띠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양직할시, 국토관리사업 성과 달성(노동신문, 11.09, 5면)

- (내용) 평양시를 사회주의문화의 중심지, 본보기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공사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공세적으로 전개함

- 평양-대동도로포장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 보통강구역 운하지구가 전변되었으며 보통강의 운하도와 금란도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꾸려짐
- 만경대구역에서 평양-대동도로포장공사 진행, 수천m의 오수망이 새로 설비, 도로 일신, 1만여㎡의 면적에 달하는 운하도에 배구장, 정구장, 바드민턴장과 봉사시설 등을 갖춘 체육공원 일떠세움. 씨름장, 룡구장을 비롯한 야외체육장이 꾸려짐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남도 평성시, 도시관리 사업 추진 (노동신문, 11.13,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평성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안의 도로들의 아스팔트포장공사가 적극 진척되고 천수백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대한 외장재바르기가 진행되었으며 보도블록깔기, 도로경계석설치 등의 작업과제수행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강원도 원산시, 국토관리 사업 추진(노동신문, 12.10, 4면)

- (내용) 강원도 원산시는 국토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산 시내 도로들의 기술개선사업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수만㎡의 도로포장과 구조물보수, 암거공사를 결속함
 - 또한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탐구동원하여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00여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보수를 설계의 요구대로 다그쳐 끝냄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평안북도 정주시, 소재지꾸리기 결속(노동신문, 12.21, 7면)

- (내용) 정주시에서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고 있음
 -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마감건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등 준비밑에 시안의 아파트들과 공공건물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개건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 (주체) 정주시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4. 기타

□ 평안북도 정주시, 애도간석지 중요 방조제 공사 추진(노동신문, 11.15, 5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애도간석지건설을 박력있게 내밀어 룡지와 섬을 연결하는 중요방조제공사를 결속함
 - 서해의 날바다를 막아 수천정보의 새땅을 얻는 농업발전에 중요한 공사

-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기본력량을 정주시 일해리지구와 신봉리지구, 애도 등에 전개하고 수십리에 달하는 방조제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로 함
- 지금 연말까지 애도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를 결속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 있음
- (주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 2단계 포전정리 마무리(노동신문, 12.02, 5면)

- (내용)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홍건도간석지 2단계 내 부망공사에서 중요한 포전정리과제를 결속함
- 이들은 포전정리를 다그쳐 끝낸 간석지논에서 첫째 농사까지 보장함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

□ 양강도 갑산군, 강하천정리공사 및 새땅찾기 사업 추진(노동신문, 12.04, 5면)

- (내용) 갑산군에서 강하천과 수역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
- 얼마전에도 중기계와 화물자동차들을 집중하여 강하천정리공사를 본때있게 해제끼는 한편 수역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적지 않은 면적의 새땅을 찾아냄
- (주체) 갑산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양강도 갑산군

□ 황해남도 웅진군, 대동만 간석지 5구역 1차 물막이 공사 완공(노동신문, 12.26, 1면)

- (내용)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1차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는 혁신이 이룩됨
- 군인건설자들이 지난 22일 대동만간석지 3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끝냄
- (주체) 군인건설자
- (위치) 황해남도 웅진군

□ 황해남도 웅진군, 남창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노동신문, 12.26, 1면)

- (내용) 남창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주체) 군인건설자
- (위치) 황해남도 웅진군

□ 함경남도 락원군, 소재지꾸리기 사업 진행(노동신문, 12.26, 4면)

- (내용) 락원군에서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음

- 군에서는 소재지를 잘 꾸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로포장 공사와 보도블록깔기, 도로경계석과 가로등설치 등의 작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소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롭게 단장되어 소재지의 면모는 더욱 일신됨

- (주체) 락원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낙원군

5. 특구개발

□ 양강도 삼지연시, 세계적인 산악관광지구로 개발(조선신보 07.19, 1면)

- (내용) 삼지연시의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는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 도 체육 및 체험활동형산악관광지구로서 적지. 대규모스키관광휴양지 건설사업을 2년간내에 추진시키는 문제를 토의
 -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를 건설, 삼지연비행장을 개건하고 관광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단계별과업 그리고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위한 방향, 방도들을 지시
- (규모) 삼지연혁명사적관,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한 40여개의 공공 및 생산건물공사, 수십 세대의 종업원살림집건설, 230여km 달하는 도로공사를 끝냄
 - 삼지연비행장 개건과 철길공사를 비롯한 일부 미진된 대상공사들이 진척 또는 준비중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봉사망 완공(노동신문, 12.31, 1면)

- (내용) 나라의 동해명승으로 이름난 명사십리에 해안관광도시가 황홀하게 솟아오름
 - 갈마반도 명사십리에는 많은 호텔들과 려관,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봉사 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이 일떠서 아름다운 경관을 펼침
 - 갈마해안관광지구는 2025년 6월부터 운영됨
- (위치) 강원도 원산시

VI. 문화휴양시설

1. 문화시설

□ 나선평별시, 나선평청년야외극장 준공(노동신문, 11.26, 4면)

- (내용) 라선시에서 청년야외극장을 새로 건설하여 준공식이 25일 현지에서 진행됨
 - 시에서는 건설력량과 자재를 집중하였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굴착 및 토량처리, 골조공사를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을 질적으로 결속하여 극장을 설계형성안의 요구대로 완공함
- (특성) 라진구역의 경치좋은 곳에 관람석과 무대, 소조실,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야외극장이 일떠섬으로써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과외교양기지, 문화정서생활거점이 마련됨
- (주체) 나선평별시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나선평별시

2. 운동시설

□ 남포특별시, 승마구락부 조성 완료(노동신문, 10.28, 5면)

- (내용) 남포시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됨
- (특성) 풍치수려한 국사봉기슭에 승마지식보급실과 승마주로, 기초훈련장, 승마기교훈련장 등이 갖추어진 봉사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됨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북도 수안군, 종합적 체육기지 개건 완료(노동신문, 12.18,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는 도의 체육발전을 주도할 레성강체육단을 종합적인 체육기지로 변모시킬 목표를 세우고 시공력량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시킴
 - 건설자들은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축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탁구, 교예체조훈련관과 씨름관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중경기관, 배구훈련관, 룡구훈련관 등을 개건함
- (특성) 각종 체육기체들이 구비된 훈련관들과 전술토론실, 체육인합숙, 식당 등이 갖추어진 체육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에게 보다 훌륭한 훈련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장할수 있게 됨
- (주체) 수안군 건설자들
- (위치) 황해북도 수안군

□ 함경북도, 길주군 체육관 개관(노동신문, 12.19, 5면)

- (내용) 지난 11월 16일 어머니날을 맞으며 길주군 체육관이 개관함
 - 연건평이 2,000여㎡인 2층짜리 체육관에는 경기장은 물론 육체훈련장과 목욕탕 등이 갖추어져있음
- (규모) 연건평 2,000여㎡인 2층짜리 건물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 평안북도 삭주군, 삭주군체육관 준공(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삭주군에서 현대적인 체육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읍지구에 건설된 체육관에는 수백석의 관람석을 가진 롱구, 배구, 바드민턴경기장과 탁구장, 실내수영장 등이 그쯘하게 갖추
 - 삭주군당위원회에서는 체육관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설계와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키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함
 - 뿐만아니라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체육관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야외운동장도 꾸려놓았으며 이채로운 불장식으로 건축미를 한껏 돋굽
- (특성) 다기능화된 경기장과 과학기술보급실, 운동실, 전자오락실, 리발실을 비롯한 체육 문화 및 편의봉사시설이 꾸려짐으로써 군안의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됨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 황해북도 금화군, 금화광산 체육관 준공(노동신문, 12.25,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금화광산에 체육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새로 건설된 체육관에는 롱구, 배구, 탁구, 정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경기장과 무대,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이 그쯘히 갖추
 - 현대적인 체육시설 건설 당정책에 따라 도의 일군들은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의 체육관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금화광산 체육관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
 - 광산지구에 종합적인 체육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설계작성과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을 확고히 선행시켰으며 시공조직과 기술지도를 강화함
- (특성) 대중체육문화기지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이곳 광부들이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됨
- (위치) 황해북도 금화군

□ 함경남도, 함경남도축구학교 준공(노동신문, 12.28,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축구학교이 새로 건설되어 현지에서 준공식이 진행됨

- (특성) 학생들에 대한 일반학과목과 축구리론교육을 다같이 진행할수 있는 교실들과 운동장, 기숙사를 비롯하여 모든 조건이 구비된 축구학교가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더 많은 선수후비들을 키워낼수 있게 됨
- (위치) 함경남도

□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12.29, 9면)

- (내용) 도에서는 승마구락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함
 -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운다는 자긍심을 안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재와 설비보장을 선행시키면서 방대한 부지를 번듯하게 정리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활용하여 건설을 질적으로 결속함
 - 평안남도승마구락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말들의 나이별, 품종별특성에 따르는 먹이보장과 수의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사양관리를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잘하며 인민들이 승마의 진미를 즐겁게 체험할수 있도록 봉사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함
- (특성) 평성시의 경치수려한 곳에 승마주로와 조마장, 기초훈련장 등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대중승마봉사기지가 특색있게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됨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3. 관광휴게시설

□ 나선특별시, 해안공원 완공(노동신문, 07.07, 4면)

- (내용) 라선시에서 해안공원을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일신시켜 얼마전부터 운영을 시작함
 - 공원에는 여러가지 유희오락시설과 립체물동영화관, 동물사 등이 갖추
 - 수용능력이 큰 야외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있으며 밤이면 춤추는 분수가 여러가지 색깔의 조명장식속에 이채로운 광경을 펼쳐짐
- (위치) 나선특별시

□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제강소 문화후생시설 건설 완료(노동신문, 08.19, 4면)

- (내용) 청진제강소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인 청강원이 있음
 - 짧은 기간에 수영장면적이 2배로 늘어나고 탁구장, 유희오락장 등이 새로 꾸려졌으며 뽕프를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이 그췌히 갖추어지게 됨
 - 초급당위원회는 청강원이 새로 꾸려진데 맞게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림

- (특성) 하루작업을 마친 노동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청강원에 찾아가 여러가지 봉사를 받으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함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정양소 완공(노동신문, 09.02, 6면)

- (내용)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정양소가 새로 개건됨
 - 2층으로 된 정양소는 대동강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음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강원도 원산시, 시해안공원 조성(노동신문, 10.23, 5면)

- (내용) 시해안공원의 면모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킴
 -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준데서 공원개건보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수십종에 수천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수만㎡에 해당하는 잔디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면서 조직사업을 박력있게 해나감
 - 시원림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바다가의 풍치와 잘 어울리면서도 시대적미감이 살아나게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동의 봉사건물과 여러개소의 민속놀이장, 휴식터 등을 번듯하게 건설함
 - 시안의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을 제손으로 꾸려간다는 자각을 안고 모두가 떨쳐나 수만㎡에 해당하는 잔디와 수천포기의 화초를 심어 공원의 풍치를 돋구는데 이바지함
 - 시에서는 공원의 면모가 일신되는데 맞게 유희기재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
- (주체) 원산시의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수만㎡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나선특별시, 나진구역 안화원 개건 완료(노동신문, 11.02, 4면)

- (내용) 라선량곡관리소 종합가공장과 라진구역 안화원이 훌륭히 일떠섬
 - 안화원에는 물놀이장과 운동실, 치료실, 리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짐
 - 시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초굴착과 박토처리, 보이라제작, 급수뿔프설치를 비롯한 작업과제들을 단기간에 결속, 각종 설비를 마련하여 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
- (위치) 나선 특별시

□ 남포특별시, 휴게관광시설 개건 및 건설 준공(노동신문, 11.06, 4면)

- (내용) 서해갑문일대를 보다 훌륭히 꾸릴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면모를

- 일신시키는 과정에서 해수욕장봉사건물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손색없이 개건됨
 - 남포시에는 훌륭히 일떠선 서해갑문과 서해의 명승 와우도,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강서약수와 온천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밑천들이 있음
 - 씨름터, 그네터, 활쏘기터 등 인민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됨
 - 시에서는 또한 경치좋은 곳에 산악자전거등산주로와 실내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봉사기지를 번듯하게 일떠세운데 이어 승마구락부건설도 끝냄
- (위치) 남포특별시 서해갑문해수욕장 봉사건물, 종합봉사기, 승마구락부 등

□ 평안남도,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휴양소 준공(노동신문, 12.17, 5면)

- (내용)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휴양소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됨
 - 혁신자들을 위한 휴양소에는 휴양각과 다기능체육관을 비롯하여 탄부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됨
 - 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설계안작성과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면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킴
 -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기초굴착 및 토량처리, 골조공사를 해제끼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전반적인 내외부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함
- (주체) 평안남도 건설자들
- (위치) 평안남도 덕천시

VII. 교육복지시설

1. 교육연구시설

□ 평양직할시, 4월15일 소년백화원 완공(노동신문, 07.14, 5면)

- (내용) 넓은 부지면적에 백가지가 넘는 희귀한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있으며 문화정서생활조건이 갖추어진 4월15일 소년백화원이 희한하게 개변됨
 - 이번에 개건된 식물전시관은 아열대와 열대, 온대와 한대의 식물들을 다 관찰할수 있게 되어있어 학생소년들이 지식의 탐을 높이 쌓는데 큰 도움을 줌
 - 이채로움을 자아내는 춤추는 분수에도 근 200종에 달하는 설비와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집체적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며 손색이 없는 결과물을 내놓음
 - 종합봉사건물과 청량음료봉사건물, 꽃상점과 화초생산온실을 비롯한 10여동의 건설대상들도 새로 특색있게 일떠섬
 - 3층에는 전자오락실, 민속오락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이곳을 찾는 학생소년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리용할수 있게 되어 있음
- (위치) 평양직할시 소년백화원

□ 강원도 원산시, 7개 학교 신규 건설 및 개건 완료(노동신문, 07.20, 5면)

- (내용) 원산시의 7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됨
 - 교원대렬이 질적으로 강화되어 시교원수의 절반이상 교원들이 높은 급의 교원자격을 소유하고 수백명의 교원들이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수여받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교육발전의 밑불이 되도록 조직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감
- (위치) 강원도 원산

□ 황해남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중(노동신문, 08.08, 4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과학기술도서관건설을 힘있게 다그침
 - 이미전에 골조공사가 끝난 현장에서는 지금 내부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 도에서는 건설물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성과를 확대해나감
- (위치) 황해남도

□ 나선특별시, 품질분석소 완공(노동신문, 09.21, 5면)

- (내용) 라선시에 품질분석소가 새로 일떠서 준공됨
 - 라선시에서는 역량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며 현장기술지도를 심화시킴

- 시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품질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시품질감독국의 종업원들은 건설장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를 일정대로 내밌
- 라선시품질분석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품질감독정책을 받들고 규격화사업과 품질검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제품의 질제고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갈 열의에 넘침
- (위치) 나선특별시 품질분석소

□ 황해북도, 백수십개의 분교건설 완공(노동신문, 10.05,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올해에 도안의 분교들을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통크게 전개함
 - 도의 책임일군부터가 조건이 제일 어려운 분교건설을 맡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면서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함
 - 신계군에서는 교육사업을 자기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여 여러 분교의 개건공사를 본때있게 추진함으로써 실적을 올림
 - 도적으로 분교가 제일 많은 신평군에서는 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립체전을 벌려 계획된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주체) 황해북도의 책임일군
- (위치) 황해북도 신계군, 신평군

□ 전국, 학교 건설 및 현대화 추진 중(노동신문, 10.08, 5면)

- (내용) 전국 각지에서 학교 건설 및 현대화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고무함
 - (평양시) 학교건설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밀고나가고 있음
 -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마감자재와 교육설비, 교구비품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운것을 비롯하여 여러 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도 앞장에 서서 후원단체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학교들과 유치원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함
 - (황해북도, 평안북도) 일군들도 학교와 분교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뛰고 또 뛰면서 건설을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고 있음
 - (함경북도) 올해 계획된 분교건설을 모두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거둠
- (위치) 전국

□ 남포특별시, 교육 시설 개건 현대화 추진 중(노동신문, 10.15,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밌
 - 항구구역 덕해고급중학교, 온천군 금성제염소유치원 등의 개건공사가 질적으로 결속됨

- 천리마구역에서는 새거리소학교, 금속건설사업소유치원 면모일신사업 마감단계에 있음
- 강서구역에서는 양탄고급중학교의 건축공사와 교육설비들의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대안구역의 일군들은 오신고급중학교, 덕성유치원 분원 개건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
- (특성) 후원단체들이 교육단위들에 대한 지원에 성심을 다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히 하고 있음
- (주체)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군들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학생소년궁전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10.30,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학생소년궁전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침
 - 사리원시에 일떠서고있는 학생소년궁전에는 다양한 소조실들을 갖춘 4층짜리 기본청사와 극장, 독특한 건축형식의 다기능체육관 등이 꾸러지게 됨
 -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도에서는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내부마감공사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해나감
 - 이에 따라 평산화강석광산에서는 란주, 란간을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경암타일공장에서는 타일과 위생자기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
- (주체) 황해북도 책임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평안남도, 지방공업직업기술학교 개건(노동신문, 11.06,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지방공업부문을 떠메고나갈 기능공들을 더 많이 양성할 목적밑에 지방공업직업기술학교를 일신시킴
 - 시공력량, 자재보장 등의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내밀면서 학생들이 현실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할수 있게 과목별에 해당하는 실습실을 갖추는 문제를 특별히 중시함
 - 교사를 일신시키는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으며 실습실, 학생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식당 등에 대한 내부공사실적도 날로 높아가고 있음
- (위치) 평안남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예술학원 개건 완공(노동신문, 11.16, 5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신의주예술학원을 새롭게 개건함
 - 학원에는 성악과 화솔, 피아노, 바이올린 등 100여개의 전공실기수업실들과 다기능화된 교실들, 기숙사와 문화후생시설이 꾸러지고 구내망을 통한 종합적인 교수관리체계,

학원관리정보화체계가 구축됨

- 예술교육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에서 진일보가 이룩되고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된 예술인후비양성기지가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됨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평양직할시,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 준공(노동신문, 11.21, 3면)

- (내용)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가 본보기학교로 일신되어 준공식이 20일 현지에서 진행됨
 - 반년 남짓한 기간에 교사와 체육관, 교원합숙 등을 훌륭히 일떠세움
 -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 쏘히 갖추어짐
- (주체) 평안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강동군

□ 황해북도 연탄군, 직업기술학교 건설(노동신문, 11.25, 5면)

- (내용) 기능공양성사업을 강화할 목적밑에 새 교사건설을 발기하고 전개함
 - 교사건설부지를 새로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가까이에 정하고 직업기술학교를 군의 지방경제발전에서 한몫할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
 - 기초공사가 결속되고 골조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어 내외부미장공사에 진입하게 됨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강원도 원산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노동신문, 12.03, 4면)

- (내용) 강원도 원산시에 강원도과학기술도서관이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2일에 진행됨
 -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 현대적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난 과학기술도서관에는 정보통신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각종 전시회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짐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나선특별시, 나선제1중학교 개건 완료(노동신문, 12.06, 4면)

- (내용) 나선제1중학교가 새롭게 개건됨
 - 훌륭히 일떠선 학교에는 4층으로 된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 야외학습터 등 교육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짐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수재교육의 기본거점인 나선제1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공사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앞세우면서 설비, 자재보장에 힘을 넣음
- (위치) 나선특별시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노동신문, 12.12, 1면)

- (내용) 사리원학생소년궁전이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됨
 - 민족기악소조실, 성악소조실, 태권도소조실을 비롯한 소조실들과 수백석 관람석 극장, 체육관을 갖춘 소년궁전이 훌륭히 건설로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가 마련됨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북도, 도농업과학연구소 준공(노동신문, 12.14, 4면)

- (내용) 황해북도농업과학연구소가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됨
 - 연구실들과 실험실, 조직배양 및 순화온실을 비롯한 모든 조건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연구기지가 일떠섬으로써 도의 농업발전을 힘있게 견인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됨
- (위치) 황해북도

□ 함경북도, 시군에서 180여개 분교와 수십개의 학교 개건 일신(노동신문, 12.15,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수백개 교육단위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크게 일신시킴
 - 도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가 빠른 기간에 결속됨
 - 길주기술대학도 종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대학들에 대한 개건현대화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됨
 - 도안의 시, 군들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180여개의 분교와 수십개의 학교들이 변모됨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함경남도 함흥시, 최희숙함흥교원대학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9, 9면)

- (내용) 최희숙함흥교원대학이 새로 훌륭히 일떠서 현지에서 준공식이 진행됨
 - 대학에는 다기능화된 실험실들과 교실들을 갖춘 교사와 전자도서관,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그쁘히 갖추어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양강도 혜산시, 품질분석소 준공(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량강도에서 품질분석소를 새로 일떠서 25일에 준공식이 진행됨
 - 품질분석소가 건설됨으로써 제품들에 대한 품질분석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 마련

- (주체) 해산시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함경남도농업과학연구소, 함흥남새연구분소 개건(노동신문, 12.30, 3면)

- (내용) 함경남도농업과학연구소와 함흥남새연구분소가 훌륭히 개건됨
 - 개건된 농업과학연구소와 남새연구분소에는 종합분석실, 연구실, 실험실들을 비롯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
- (특성) 현대적인 연구기지들이 일떠섬으로써 도의 농업생산을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하며 영농실천에서 긴절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 (주체) 함경남도의 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북도, 오중흥청진사범대학 현대적인 교육기지로 일신(노동신문, 12.30, 3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오중흥청진사범대학의 면모를 일신시켜 28일에 준공식이 진행됨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사범대학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개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수십개 대상의 건축공사를 손색없이 완성됨
- (특성)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강의실, 실험실들을 갖춘 교사들과 전자도서관, 체육관 등이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됨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자강도, 도품질분석소 준공(조선신보, 07.03, 2면)

- (내용) 자강도에서 도품질분석소 준공
 - 도품질분석소에는 제품검사와 측정에 필요한 각종설비와 실험기구들을 갖춘 분석실들과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 등이 꾸려져있음
- (위치) 자강도

2. 의료보건시설

□ 평양직할시, 표준약국건설 완공(노동신문, 07.16, 5면)

- (내용) 평양시에서 구역, 군들의 표준약국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함
 -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구역, 군들에 표준화된 약국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를 당결정에

반영하고 그 실현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

- 이에 따라 시와 구역, 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수와 특성에 맞게 약국규모를 정하고 짧은 기간에 건설공사를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 추진
- 강남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다른 구역, 군들에서 따라배울수 있게 보여주기를 조직
- 만경대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내외부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여 표준약국건설에서 실적을 올림
- 보통강구역과 평천구역에서는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전개하여 성과를 거둠
- (주체) 평양직할시와 구역, 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
- (위치) 평양직할시

□ 나선평별시, 표준약국건설 완공(노동신문, 07.25, 5면)

- (내용) 라선평별시에 라선약국과 선봉약국이 새로 건설되어 봉사를 시작함
 - 훌륭히 일떠선 표준약국들에는 판매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제조구역 등이 꾸려져있으며 의료품보관과 판매, 의약품제조와 분석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조건과 설비들을 갖추
 - 라진구역과 선봉구역건설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표준약국설계의 요구대로 건설물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건설을 일정계획에 따라 드팀없이 밀고나감
 - 약국들에서는 시안의 인민들에게 고려약과 신약, 건강식품판매를 비롯하여 보다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함
- (주체) 나선평별시의 근로자들과 녀맹원들, 선봉강하천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 (위치) 나선평별시

□ 평안남도, 여러 시군 표준약국 건설 결속(노동신문, 08.06, 5면)

- (내용) 평안남도 곳곳에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표준약국건설이 전부 결속되게 됨
 - 순천시는 도적으로 제일먼저 약국건설을 끝냄
 - 평성시에서도 자재와 로력보장대책은 물론 일정별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표준약국건설을 제기일만에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 보건부문의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표준약국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
- (특성) 새로 건설된 표준약국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임
- (위치) 평안남도

□ 함경남도, 시군 표준약국 건설 중(노동신문, 08.13, 5면)

- (내용) 도에서는 시, 군 표준약국건설을 훌륭히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미는 한편 약국들의 운영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침
 - 일군들이 직접 표준약국건설장들에 나가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체계를 세워 건설이 일정계획대로 드팀없이 진척될수 있게 함
 - 건설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금야군과 단천시의 경험을 시, 군들에 일반화하여 표준약국건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함
- (주체) 함경남도의 책임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 전국, 여러 고려약공장 개건 현대화 추진 중 (노동신문, 09.21, 5면)

- (내용) 평양시, 평안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고려약공장개건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건축공사와 GMP기준에 부합되는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됨
 - 시안의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공사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고있는 평양시를 놓고보아도 책임일군들이 직접 고려약공장들의 실태를 료해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과 함께 총화를 엄격히 따라세움
 - 선교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고려약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필요한 공기정화기, 공기차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원만히 갖추고 GMP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됨
 - 현재 총공사량의 90%계선에 들어선 대성고려약공장은 새로 일떠서고있는 단위임
- (위치) 전국

□ 양강도, 10여개 표준약국 준공(노동신문, 10.20, 4면)

- (내용) 량강도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제일가는 중대사로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10여개의 표준약국을 건설함
 - 당산시, 백암군, 대흥단군을 비롯한 각 지역의 건설자들은 건축물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공정별작업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
- (위치) 양강도 여러 시군

□ 함경북도, 여러 시군 표준약국 준공(노동신문, 11.07, 5면)

- (내용)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자재확보에 힘을 넣고, 시, 군들에서 미확성과 편리성,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원칙에서 설계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전개함

- 청진시 수남약국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판매구역과 상담 및 검사실, 제조실 등을 설계와 시공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도록 현장지도를 심화킴
- 회령약국에서는 종업원대렬을 능력있는 전문가들로 꾸리고 기초검사와 위생 및 건강상 식보급사업을 특색있게 진행
- 김책약국, 화대약국 등에서도 해당 지역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고려약과 신약, 건강식품들의 품종과 수량을 늘이고 편의를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봉사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함
- (주체) 함경북도안의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무산군, 어랑군, 회령시, 김책시, 화대군

□ 나선훈별시, 청학료양소 개건 완료(노동신문, 12.11, 4면)

- (내용) 라선시에서 청학료양소를 새롭게 개건함
 - 경치좋은 청학산기슭에 위치한 룡양소에는 광천수인 청학약수를 리용하여 만성위염, 류마치스성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
- (주체) 나선훈별시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나선훈별시

□ 황해남도, 표준약국 건설 완료(조선신보, 07.31, 2면)

- (내용) 황해남도 안의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이 성과적으로 결속
 - 지난 3월, 은천군에서 제일 먼저 끝낸데 이어 도 안의 전반적인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
- (위치) 황해남도 여러 시군

3. 수련 시설

□ 황해북도, 예성강체육단 새롭게 일신(조선신보, 12.23, 1면)

- (내용) 레성간체육단(황해북도)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여 16일에 준공식 진행
 - 각종 체육기재들이 구비된 훈련관들과 전술토론실, 체육인합숙, 식당 등이 갖추어진 체육기지가 건설되여 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에게 보다 훌륭한 훈련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장

VIII. 광업자원시설

1. 연료광업

□ 평안남도 개천시, 무진대청년탄광 개발 중(노동신문, 07.31, 5면)

- (내용) 무진대청년탄광 1갱에서 새 탄발마련을 위한 굴진에 계속 힘을 넣고 있음
 - 이곳 초급일군들은 교대간, 공정간협동을 강화하고, 압축기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그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함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무진대청년탄광

□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지구청년탄광 벨트갱 건설 및 예비채탄장 건설(노동신문, 08.02, 5면)

- (내용)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고속도굴진경기를 활발히 진행하여 올해에 들어와 연합기업소적으로 수십개의 예비채탄장이 마련되는 등 성과를 거둠
 - 연합기업소참모부는 고속도굴진경기를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심고리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 해당 일군들은 각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굴진공들과 착암도 함께 하고, 고속도굴진경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적시 대책을 수립하면서, 굴진단위들에서 창조되는 앞선 기술혁신안과 효율적인 발파방법을 일반화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음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청년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08.17, 5면)

- (내용) 회안청년탄광에서 능력이 큰 싸이로식석탄저장고를 일떠세움
 - 회안청년탄광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에 건설된 석탄싸이로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로력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됨
 - 수백㎥의 토량을 단 하루동안에 처리하고 80여일동안에 천여㎥의 콘크리트타입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정해진 기간까지 결속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함경북도 경원군, 갈탄저온건류로 건설 중(노동신문, 09.02, 5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에서 능력이 큰 갈탄저온건류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갈탄매장량이 풍부한 북부지구 탄전에 갈탄저온건류로들이 새로 더 건설되면 금속, 화

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됨

- 경원기술개발소의 기술집단은 금속공업성 5월28일금속연구소, 함흥화학설계연구소,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집단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감

- (위치) 함경북도 경원군

□ 전국 여러 탄광, 자원 증산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추진(노동신문, 09.16, 1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현행생산과 운반능력 제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올해에 들어와 연 수백km구간의 운반로선을 보수하고 백여대의 전차를 수리정비하였으며 수천대의 탄차들을 생산함
 - 여러 탄광에서 벨트콘베아신설 및 개건공사 추진으로 생산된 석탄을 제때에 운반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됨
 - 득장청년탄광에서도 벨트콘베아신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에서도 운반능력을 끌어올려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수용, 벨트콘베아공사에 박차를 가함
 - 순천,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운반로선개건과 함께 전차, 탄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석탄생산을 늘이고 있음
- (위치) 전국 여러 탄광

□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청년탄광 갱운반선로 공사 완료 (노동신문, 10.26, 4면)

- (내용) 득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갱운반선로 수백m구간을 맡아 굴진은 물론 콘크리트타입까지 성과적으로 끝마침
 - 모든 돌격대원들이 교대전이면 착암에 필요한 물보장과 작업장정리를 깨끗이 해주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속에 굴진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감
 - 운수작업반, 보장부문의 지원으로 중요설비 대보수를 단기간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었음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청년탄광

□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청년탄광 예비채탄장 건설 중(노동신문, 10.29, 5면)

- (내용) 회안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단계 벨트콘베아설치를 위한 갱건설을 맡은 인포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굴진과 확장속도를 높이고 있음

- 돌격대에서는 기능공대렬을 늘려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이 작업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게 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탄광 예비채탄장 마련 완료(노동신문, 12.13, 5면)

- (내용) 개천탄광에서 굴진을 앞세워 석탄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감
 - 류동갱 굴진 1, 2, 3소대와 전진갱 굴진 1, 2소대, 강성갱 굴진 2소대, 청년갱 굴진소대, 동갱 굴진소대원들도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연속천공, 연속발파를 들이대며 예비채탄장마련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탄광

□ 평안남도 북창군,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대상이 조업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화력탄증산에서 중요한 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석탄고지점령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었으며 대동력기지에 더 많은 연료를 보내줄수 있는 생산토대가 일층 강화됨
 - 탄광에서는 벨트갱건설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맞게 설비,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자체의 역량을 발동하여 갱굴진과 확장, 영구화작업을 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원동소, 저탄사건설 등을 완강히 밀고나감
 -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하여 공사에 동원된 굴진공들은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앞선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갱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 벨트콘베아공사대상 조업식 진행 (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벨트콘베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조업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됨
 -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연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벨트콘베아에 의한 석탄운반능력을 높일 목표를 세움
 - 청년돌격대원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굴진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고 자체보장에 힘을 넣어 갱도공사와 능력이 큰 싸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을 완료하였으며 설비설치와 부분품조립을 립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질적으로 마무리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2. 금속광업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석운반계통 정비 대상공사 완공(노동신문, 10.04, 4면)

- (내용)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광석운반계통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새로 건설한 9호콘베아운반계통과 72호콘베아운반갱도 준공식을 3일 진행함
 - 연합기업소의 현행광물생산과 전망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 수행할 9호콘베아운반계통과 72호콘베아운반갱도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심부와 상부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석을 장거리벨트콘베아로 실어나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완비되고 유색금속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4차례 진행(노동신문, 10.31, 1면)

- (내용)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올해에 들어와 50만산대발파를 4차례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박토처리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함
 - 박토처리를 앞세우는것을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다같이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내세운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천분광산과 운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를 비롯한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당원협의회를 통하여 박토처리량을 늘일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음
 - 이곳 당원들은 각종 부대설비와 장치물들 정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필요한 자재와 부품품, 부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며 박토처리에서 지난 시기의 1.4배의 실적을 기록함
 - 수백㎥의 돌과 많은 자재를 운반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방수로석축공사를 끝내게 됨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철강재 생산량 증산을 위해 강철 1직장 개건보수공사 완료(노동신문, 11.06, 1면)

- (내용) 김철의 로동계급은 강철1직장 개건보수공사를 결속하고 내화물생산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는 등 철강재생산토대강화에서도 진일보를 가져옴
 - 철강재생산을 최고수준에서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고조되는 속에 연합기업소의 자립적 발전토대는 더욱더 튼튼히 구축되고 주체식물, 철강재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연료와 원료, 설비장치물, 자재 등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현지에서 속속 세우면서 김철의 로동계급을 새 기준, 새 기록창조예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음
- (위치) 함경북도 김책시

□ **함경남도, 상농광산 습식동제련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19, 1면)**

- (내용)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상농광산에 습식동제련소가 세워져 준공식이 18일 진행됨
 -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된 습식동제련소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광산을 더욱 전망성있게 꾸릴 수 있게 함
 - 제련소가 완공됨으로써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각종 희유금속과 류산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실제적인 성과가 이룩됨
- (위치) 함경남도 허천군

3. 비금속광업

□ **평안남도 은산군, 부흥시멘트공장 35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11.02, 5면)**

- (내용) 부흥시멘트공장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춰 10월 30일 35만산 대발파 진행
 - 평안남도에서는 발파구역을 확정하고 발파준비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도록 굴진력량을 보강하였으며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빈틈없이 따라세움
 - 공장의 로동계급과 평성석탄공업대학 연구사들, 도안의 여러 단위 굴진공들은 암질상태에 따르는 천공위치와 발파각도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굴진순환당진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소갱굴진과제를 앞당겨 끝냄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 **남포특별시 룡강군, 룡강석재가공공장 새 광구 개발(노동신문, 12.12, 4면)**

- (내용) 룡강석재가공공장이 올해들어 일평균 지난해의 4배이상 생산실적을 기록함
 -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운반로선을 정리하고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면서 새 광구개발을 완강히 내밌
 - 특히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을 탐구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공사기일을 단축, 광구개발공사를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감
- (위치) 남포특별시 룡강군

IX. 농림어업시설

1. 농업시설

□ 함경남도 리원군, 취입보 및 잠관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 완료(노동신문, 07.12, 5면)

- (내용)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단기간에 방대한 취입보, 잠관공사 등 여러 대상공사 수행
 -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달동안에 1만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계획된 공사와 제들을 결속한 결과 수백정보의 물부족논에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됨
- (주체) 함경남도 리원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리원군

□ 황해북도, 여러 시군 대용량 종자보관고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07.12,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능력이 큰 종자보관고를 짧은 기간안에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감
 - 황해북도에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 중 밀, 보리종자보관능력과 종자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중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수송과 공급, 보관관리에 유리한 곳에 종자보관고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종자보관고의 능력을 확장하기 계획을 작성함
 - 사리원시와 황주군, 토산군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땀
 - 수안군과 곡산군에서도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종자보관고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는 등 시, 군들에 온습도보장조건과 종자검사체계 등이 원만히 갖추어진 능력이 큰 종자보관고들이 련이어 일떠서게 됨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황주군, 토산군, 수안군, 곡산군

□ 평안남도, 수십동의 누에 잠실 신설 및 개건 보수 완료(노동신문, 07.16, 5면)

- (내용) 수십동의 큰누에잠실과 어린누에잠실, 고치건조장을 신설하고 개건 및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개천, 문덕, 안주, 양덕잠업관리스 등 여러 단위에서 동시에 립체적으로 벌어짐
 - 올해 봄철만 놓고보아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뽕잎생산성, 누에고치의 합격품비율을 각각 1.2배로 올리고 고치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등 도의 잠업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혁신적으로 조직전개하여 뚜렷한 결실을 봄
- (주체) 평안남도 일군들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문덕군, 안주시 등

□ 전국, 종자보관창고 신규 조성(노동신문, 07.16, 5면)

- (내용) 전국 능력이 큰 종자보관창고들이 새로 일떠서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 진일보
 -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종자보관창고건설과 관련한 표준설계와 평가 기준을 시, 군들에 내려보내며 이어 시범단위를 선정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작전과 지휘를 면밀히 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속에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고 해당한 보장대책도 세워주면서 장악총화사업을 드세게 함
 - 강령군, 웅진군, 안악군에서 질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건설을 다그치고, 청단군에서는 군과학기술위원회와의 연계밑에 창고안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컴퓨터조종 체계를 도입하고 검사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놓음
 - (평안북도) 종자보관창고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한 정주시에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세드높이 종자검사실을 새로 꾸려놓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더 갖추어놓음
 - 운전군에서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자재보장대책을 강하게 따라세워 1,000t능력의 종자보관창고건설과 마당포장을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함
 -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종자보관창고건설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응당한 결실을 안음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여러 시군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사업 추진(노동신문, 07.18, 4면)

- (내용) 숙천군에서 침수위험성이 있는 지역들과 포전들을 장악하고 책임성높은 일군들을 파견하여 배수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력량과 수단을 기동적으로 배치하여 해안방조제, 중소하천 및 물길제방, 관개구조물들을 보강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 송림시에서는 관개물길과 배수문, 배수양수설비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큰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들을 재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에 퇴치하고 있음
 - 과일군에서도 고인물을 제때에 뽑아 농작물의 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주력, 논물을 뽑고 논두렁을 보강하며 물길가시기를 힘있게 내밀어 물통과능력을 높이고 있음
 - 특히 배수로와 승수로의 위험구간과 불비한 개소들을 모조리 찾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금야군에서는 저수지들의 상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위치) 평안남도 숙천군

□ 평안남도 문덕군, 농경지 침수 방지사업 추진 완료(노동신문, 07.20, 5면)

- (내용) 문덕군 룡반농장에서 한평의 논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림
 - 일군들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비내림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비물이 지대적으로 낮은데 위치한 논들에 한꺼번에 집중되어 침수되지 않게 사전에 논물높이를 낮추고 논두렁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내딛
 - 얼마전에는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해 10여리구간의 배수로에서 풀베기를 진행하였으며 제1작업반구간의 150여m의 물길뚝도 보강함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룡반농장

□ 강원도, 여러군에서 지방원료기지 조성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8.02,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농업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천시, 천내군, 통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경지개간과 함께 농경지정리를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여 각각 수백정보의 재배면적을 조성함
 - 고산군안의 원료기지들에서는 태풍과 큰물 등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의 소출감소를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있다있음.
 - 금강군, 안변군의 근로자들은 산림개조 및 조성사업을 군중적으로 전개하여 각각 390여정보, 170여정보에 달하는 수유나무림을 확보함
 - 법동군, 세포군 등지에서도 지역의 토양 및 기후조건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원료림조성과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해나감
- (위치) 강원도

□ 황해북도, 여러 대상의 축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노동신문, 08.08,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여러 대상의 축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를 힘있게 추진함
 - 사리원오리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짧은 기간에 10여개 호동의 오리사건설을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사료가공 및 보관고를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침
 - 도에서는 곡산군에 검은고니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현대적인 소종축장건설, 닭종금장, 오리종금장들의 개건보수공사도 계획성있게 밀고나감
 - 도에서는 축산기지들이 큰 은을 내도록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먹이보장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위치) 황해북도

□ 남포특별시, 여러 지역에서 염소목장 건설 완료(노동신문, 08.08, 4면)

- (내용) 남포시안의 구역, 군들에 능력이 큰 염소목장들이 새로 일떠섬

-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됨
- 온천군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세멘트, 혼석, 강재 등 자재보장을 앞세움
- 천리마구역과 항구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염소호동, 젓가공장 등 여러 대상에 대한 건축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깸
- 대안구역, 강서구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고 지방자체의 리용비중을 높여 사무청사, 착유장, 건초장 등을 갖춘 염소목장을 새로 일떠세움
- 여러 성, 중앙기관에서 많은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어 목장건설에 이바지함
- 시에서는 염소목장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보다 원만히 갖추는것과 함께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늘여 젓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함
- (위치) 남포특별시

□ 남포특별시, 안석간석지구 관개용수 제수문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08.12, 4면)

- (내용) 시에서는 안석간석지 2구역에 논벼재배면적이 늘어난데 맞게 온천군 소봉룡천에 제수문을 일떠세워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제수문을 새로 건설, 완공함
 - 건설자들은 기초굴착과 콘크리트치기, 제수문설치, 양수장건설 등을 설계의 요구대로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권양기와 양수기, 변압기, 전동기 등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사완공에 이바지함
- (특성) 소봉룡천제수문이 건설됨으로써 수백정보의 간석지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게 됨
- (위치) 남포특별시 온천군

□ 남포특별시, 구역/군 원료기지사업소의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건설공사(노동신문, 08.18,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원료기지들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구역, 군원료기지사업소의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딛
 - 온천군에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는데 맞게 원료기지의 물질적토대강화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림
 - 천리마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료기지사업소 작업반실들의 벽체축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깸 기세드높이 건축공사를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
 - 대안구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면서 공사를 본때있게 밀고나감
 - 봉천군에서 기름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으며 새 품종의 기름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에서 지방공업부문 일군들이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분발시키고 있음

- 함주군에서 새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능공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기술학교의 교육수준제고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북도, 은파군 등 수십개 원료기지에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 등 준공(노동신문, 09.25,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수십개 원료기지작업반들에 숙식조건을 갖춘 작업반실과 축사, 온실 등을 새로 일떠세울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함
 - 도당위원회에서는 은파군원료기지사업소의 한개 작업반을 본보기로 꾸리고 그 경험을 시, 군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
 - 송림시와 황주군, 곡산군에서 로력조직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하여 짧은 기간에 공사를 결속함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등

□ 양강도 대흥단군, 감자종자저장고 준공(노동신문, 09.25, 5면)

- (내용) 대흥단군에서 원료기지농사를 위한 능력이 큰 감자종자저장고를 새로 건설함
 - 부지면적이 백수십㎡에 달하는 저장고에는 온도, 습도, 통풍조건을 잘 보장하여 감자종자를 허실없이 보관하고 싹틔울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짐
 -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결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저장고가 훌륭히 건설됨
 - 지금 새로 일떠선 저장고에는 원료기지에서 수확한 많은 종자용감자들이 보관되고 있음
- (주체) 양강도 대흥단군 일군들, 건설자들
- (규모) 백수십㎡
- (위치) 양강도 대흥단군

□ 평안북도 구장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위한 수백정보 원료기지 조성(노동신문, 10.03, 4면)

- (내용)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원료보장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정책에 맞춰 수백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것과 함께 생산을 늘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림. 특히 당원료생산에 필요한 단고구마를 많이 심도록 함
 - 군중적으로 산열매따기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도토리, 찹쌀이와 같은 갖가지 산열매들을 많이 거두어들이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원료보장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함경북도 명간군, 수백정보 등판 개간 통해 지방공업공장 원료 지원(노동신문, 10.05, 5면)

- (내용) 명간군에서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높이 받들고 원료기지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
 - 최근에만도 수백정보에 달하는 등판을 개간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더 많은 원료를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군에서는 개간된 등판의 지력을 개선하는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면서 밀씨뿌리기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함
- (위치) 함경북도 명간군

□ 황해남도, 내년 농사 대비 물길공사 진행(노동신문, 10.16,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다음해 농사를 위한 물길공사를 힘있게 내밀
 - 도에서는 지난 시기의 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데서 물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다음해 농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들로 뺀어간 물길을 보수하고 10여개의 구조물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움
- (주체) 황해남도 일군들
- (위치) 황해남도

□ 평안남도, 내년 농사 대비 양수장 건설 골조공사 완료(노동신문, 10.20,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올해의 관개공사과제를 수행한 기세드높이 다음해 관개공사에 계획된 양수장건설을 위한 골조공사를 예견성있게 추진하여 전부 결속함
 - 도일군들은 다음해 관개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수백개의 양수장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지난 8월말부터 시군들에서 양수장건설을 동시에 시작하여 가을걷이전으로 골조공사를 결속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중임
 - 평성시, 덕천시, 안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양수장골조공사를 빠른 기일내에 끝내고 내외부미장까지 결속함
 - 특히 평원군에서는 물부족으로 애로를 느끼던 농장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둠
- (주체) 평안남도 일군들
- (위치) 평안남도

□ 함경남도, 여러 시군에서 염소목장 신규 건설 완료(노동신문, 11.02,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시, 군들에 염소목장들을 새로 일떠세움

- 염소목장들에는 염소호동과 젓가루생산장, 보리싹재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이 꾸러짐
- 시, 군들에서 풀판조건과 수송조건, 지역의 어린이수와 그에 따르는 젓제품수요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염소목장의 건설위치와 규모를 확정하며 공사에 앞서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함
- 시, 군책임일군들이 로력과 설비 등의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내밀어 염소목장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게 함
- (주체) 함경남도 시, 군 책임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고원군, 북청군, 이원군

□ 남포특별시, 내년 농사 대비 관개공사 진행(노동신문, 11.08,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개공사에 힘을 넣고 있음
 - 시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공사추진정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림
 - 와우도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2개의 양수장골조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음
 - 천리마구역, 강서구역을 비롯한 다른 구역, 군들에서도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양수장 건설을 적극 다그침
- (주체) 시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
- (위치) 남포 특별시

□ 양강도, 종자가공기지들 완공(노동신문, 11.20, 5면)

- (내용) 량강도에서 짧은 기간에 도안의 여러곳에 종자가공기지들이 일떠세움
 - 종자보관실, 피복 및 건조실 등이 있으며 선별기, 건조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갖추어짐
 - 도에서는 종자가공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철저히 기술적요구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설비들을 원만히 갖추는 사업도 립체적으로 벌여짐
- (위치) 양강도

□ 강원도 원산시, 원산젓소목장 준공(노동신문, 12.04, 4면)

- (내용) 강원도에 원산젓소목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3일 현지에서 진행
 - 목장에는 젓소의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젓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정들이 원만히 갖추어짐
 - 젓소목장이 건설됨으로써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 (주체) 강원도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강원도 원산시 원산젓소목장

□ 자강도, 누에고치 증산 위한 표준잠실건설 중(노동신문, 12.08,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다음해 누에고치생산을 늘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함
 - 우선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는데서 우량품종의 종자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또한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의 도입과 뽕밭조성을 위한 사업 등도 적극 내딛
 - 잠업종자사업소들의 개건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음해에 심을 우량품종의 뽕나무모를 확보하는데 도적인 관심을 집중함
- (위치) 자강도

□ 함경북도 온성군, 관개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12.08, 4면)

- (내용) 온성군에서 관개공사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군에서는 관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함
 - 이곳 일군들은 지역별, 지대별에 따르는 관개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양수장들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딛
 - 특히 건설자재들을 확보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양수장들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내줄 수 있게 전력계통공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림
 - 물길가시기작업도 립체적으로 추진하고, 주요구간의 관로파기공사도 성과적으로 완료함
- (주체) 함경북도 온성군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 평안북도 구성시, 온실 신규 완공(노동신문, 12.10, 5면)

- (내용) 구성시에서 주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한 남새온실을 새로 일떠세움
 - 물보장조건이 좋은 곳에 꾸려진 이 남새온실에는 앞선 건설공법과 생산을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이 적지 않게 도입됨
 - 온실호동들에는 관수체계가 튼튼히 구축되어있으며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남새들의 생육에 적합한 여러가지 색깔의 조명장치도 설치됨
 -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10여개의 온실호동과 구내도로, 사무청사건설 등에 박차를 가함
 - 지금 새로 건설한 남새온실에서는 여러가지 열매남새, 잎남새와 함께 기능성남새들도 키들움하며 자라고 있음
- (주체) 구성시 일군들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 양강도 헤산시, 염소목장 건설 완료(노동신문, 12.10, 5면)

- (내용) 헤산시에 염소목장이 새로 건설됨
 - 북방의 기후조건에 알맞게 건설된 목장에는 여러동의 염소우리, 젖가공실, 건초창고 및 풀절임탱크 등이 꾸려져있으며 목장주변에는 사료기지와 자연풀판도 있음
 - 대흥무역지도국의 일군들이 자재와 설비보장 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목장건설이 적극 추진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시에서는 선진적인 사양관리기술을 받아 들이고 우량품종의 염소를 확보하는 사업 등을 내밀면서 새로 일떠세운 염소목장이 육 아정책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조직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음
- (특성)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는 토대 마련됨
- (주체) 대흥무역지도국의 일군들
- (위치) 양강도 헤산시

□ 함경남도 단천시, 양곡싸이로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12.13, 5면)

- (내용) 단천시에서 수백t보관능력의 양곡싸이로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
 - 창고에서 싸이로까지 양곡을 직송하는 운반계통공사와 생산건물개건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조건은 여간만 불리하지 않았지만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계의 요구대로 건축공사와 양곡운반계통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함
 - 공사결속으로 지난 시기보다 많은 로력이 절약되고 양곡수송에 쓰이던 연유가 필요없게 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황해남도 안악군, 저수지건설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12.24, 5면)

- (내용) 안악군에서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대주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건설에 박차를 가함
 - 군에서는 올해 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알곡증수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중산간지대에서 수확고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고 이 지대에 저수지를 새로 건설할 목표를 세움
- (주체) 안악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황해남도 안악군

□ 황해북도, 축산학연구소 시험장, 검은고니분장 완공(노동신문, 12.27,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 시험장과 도농촌경리위원회 동한축산농장 검은고니분장을 새로 꾸림

- 축산에 유리한 지역들에 번듯하게 일떠선 시험장과 검은고니분장에는 지방에 풍부한 먹이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집집승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사업과 가금생산을 늘일수 있는 조건과 시설들이 원만히 갖추어짐
- 시험장과 검은고니분장이 건설됨으로써 축산업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 할수 있게 됨
- (주체) 황해북도 일군들
- (위치) 황해북도

2. 어업시설

□ 강원도 통천군, 통천수산사업소 개건현대화공사 완공,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 19, 1면)

- (내용) 개건현대화된 통천수산사업소 준공식이 18일에 진행
 - 20여개의 대상들에 대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구내포장, 원림경관조성 등
 - 물고기가공시설들이 갖추어진 생산건물, 냉동가공장, 사무청사, 문화회관, 정양소 등
- (특성) 수산상은 준공사를 통해 고기배와 어구 현대화, 어황조건에 맞는 어로작업의 과학화수준을 제고하여 매년 수산물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할 것을 주문
- (주체) 강원도의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강원도 통천군

□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30, 1면)

- (내용)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조성되어, 28일 준공식 진행 및 김정은 총비서 참석
 - 밥조개가공장, 초급동실, 종합지휘실, 제품건본실 등 갖추
- (특성)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바다가양식업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지원을 받아 조성, 바다를 낀 모든 시, 군들의 미래 변혁상의 본보기가 됨
- (주체) 군인건설자들
- (위치) 함경남도 신포시

3. 임업시설

□ 평안북도, 종이원료림조성(노동신문, 07.05, 4면)

- (내용) 평안북도는 종이원료림조성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자기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나감

- 운산군에서 경제적가치가 큰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군의 실정에 맞게 강하천제방주변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작전을 펼침
- 군에서는 종이원료림을 더욱 늘이게 되었으며 제방의 견고성도 보장하게 됨
- 특히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당소출을 높일수 있으며 김매기로력이 절약되는 등 실리가 큰 지면피복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목표를 세움
- 만포시에서 적지선정과 나무모확보를 앞세우고 수유나무림조성하기로 했는데, 짧은 기간에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만그루의 수유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둠
- (주체) 평안북도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리원군, 잣점림조성사업 진행(노동신문, 07.06, 5면)

- (내용) 잣점림조성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는 리원군에서 올해에도 그 면적을 부단히 늘여감
- 군에서는 계획부터 명백하게 세우고 그 실행에서 군산림경영소가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함
- 필요한 량의 접가지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경영소에서는 잣점을 할 산림구역들을 확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들을 해당 지역들에 내보내여 모든 작업이 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되게 함
- (주체) 함경남도 리원군 군일군들
- (위치) 함경남도

4. 농어업단지

□ 강원도, 세포지구에 소목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12.20, 3면)

- (내용) 축산에 유리한 세포지구에 축사와 사료가공실, 사료저장고,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잘 갖춰진 소목장 건설로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마련, 19일 현지에서 준공식 진행
- (특성) 준공사에서 종업원들이 과학기술학습과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 터득, 각종 수의약품들과 기구들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실무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
- (위치) 강원도 세포군

X. 환경방재시설

1. 방재시설

□ 황해북도 사리원시, 습해방지 물길정리 완공(노동신문, 07.03, 5면)

- (내용) 재령강을 끼고있는 사리원시 봉의농장에 있어서 습해방지사업은 알곡생산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
 -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갑자기 불어난 물을 신속히 뿔자면 물길바닥을 지금의 1.5배정도로 낮추어야 해서, 이것을 포착한 농장일군들은 즉시 조직사업을 진행함
 - 일군들의 구체적인 작전에 따라 낮은 지대에 력량이 집중되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물길바닥을 종전보다 더 낮추기 위한 사업이 분조단위로 전개한 결과 닷새만에 끝냄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북도 개성시, 재해방지사업 추진 중 (노동신문, 07.07, 4면)

- (내용) 개풍구역, 판문구역에서는 물확보와 함께 관개물길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을 알심있게 해나감
 -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제방 및 장석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함
 - 시안의 송배전단위들에서 여러 지역의 변전소들에 피뢰기를 증설하는 작업을 결속하고 전반적인 배전선로들의 점검과 웅벽석축공사, 접지선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음
 - 도시경영, 국토관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작업, 강바닥파기, 제방장석쌓기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음
- (위치) 개성특별시

□ 전국, 채취공업부문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17, 1면)

- (내용) 채취공업부문에서 재해성기상현상으로부터 각종 설비, 시설물 등을 보호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함
 - 채취공업성에서는 해당 일군들에 대한 임무분담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들이 기상관측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비상한 책임감과 고도의 긴장성을 유지하면서 사업하도록 함
 - 광산, 기업소들에 나간 성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현지를 답사하면서 큰물과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움
 - 제련소와 광산들에서 뿔프들을 정비보강하고 저수움을 조성하며 갯내케블을 비롯한 동력시설들의 점검 등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문평제련소의 일군들은 해당부문에서 내려오는 지시, 경보 등을 제때에 접수하고 필요

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면서 대중을 발동하여 해안방조제를 든든히 보강함

- 은파광산에서도 양수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는 한편 큰물에 미광침전지와 버력장 등이 손상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움
- 만포제련소와 해산청년광산에서도 건물들의 지붕이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산비탈과 골짜기로 흐르는 물이 쪽쪽 빠질수 있게 우회통로를 내는 등 재해방지사업을 실속있게 내딛
- 성천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철망을 설치하여 돌이 굴러내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미광침전지들의 뚝을 견고하게 쌓는 등 사업에 주력함
- 전주대와 가로수들에 버팀목을 세우는 등 재해성이상기후로 인한 물질적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있음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중요건설장 재해 예방 조치 추진(노동신문, 07.24, 4면)

- (내용) 중요건설장들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추진
 -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공사자재와 건설기계, 시공대상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음
 - 건설지휘부에서는 시공단위별로 무더기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들을 다시금 료해장악하고 모든 일군들이 각성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즉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우도록 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공사도로들을 일매지게 보수하여 폭우와 무더기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료전기재들이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게 하는 한편 하천들에서 물이 넘어날수 있는 개소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함
- (위치) 평양직할시

□ 전국, 임업부문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7.24, 4면)

- (내용) 림업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피해를 극력 줄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해나감
 - 각지 림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웅벽쌓기, 물도랑파기 등을 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난 시기 나타난 편향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음
 - 량강도림업관리국의 림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통나무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불비한 대상들과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감
 - 연암, 백암갯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림철길의 상태를 구간구간 따져보며 위험개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내딛

- 자강도림업관리국의 립산, 갯목생산사업소들은 산사태와 골개수로부터 운재길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쌓기, 물도랑정리, 물길돌리기 등에 힘을 넣고 있음
- (위치) 전국

□ 함경북도 길주군,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 완료(노동신문, 08.15, 5면)

- (내용) 길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소 20여일 걸릴 사하북천제방보강공사를 5일만에 마침
 - 여러 하천이 합쳐지는 사하북천구간에서는 해마다 장마철에 물유출량이 많음
 - 제방쌓기와 함께 모든 농장들에서 물길정리와 승수로, 배수로치기 동시 진행
- (규모) 1,100여m구간 제방앞에 보조제방 쌓기, 7천여m³ 토량 처리, 3천여m³ 장식쌓기 진행
- (주체) 길주군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 함경북도, 유만천 강하천바닥파기 진행(노동신문, 09.30, 5면)

- (내용) 길주군에서 유만천 수십만m³의 강하천바닥파기를 진행함
 - 작업량이 많은 유만천바닥파기에 군적인 역량이 집중된 가운데 성과는 나날이 확대됨
 -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년차별목표밀에 강하천정리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주체) 길주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유만천 수십만m³
- (위치) 함경북도 유만천

□ 평안남도 속천군, 해안방조제 복구공사 진행(노동신문, 10.17, 5면)

- (내용) 해일로 피해를 입은 속천군 해안방조제 수백 m구간의 피해복구를 조선인민군 124연대 지휘관, 군인들이 복구를 지원하여 마침
- (위치) 평안남도 속천군

□ 자강도, 장자강 강하천 바닥파기 공사 진행 중(노동신문, 11.09, 5면)

- (내용) 자강도에서 장자강을 비롯한 강하천들의 바닥파기공사를 본격적으로 박력있게 진행함
 - 일군들은 강하천들을 돌아보면서 류량과 류속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강바닥파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도적인 작전에 따라 수십만m³의 강바닥파기공사가 1단계목표로 세워짐
 - 피해복구사업과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게 함

- 실무능력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일군들에게 구간을 맡겨주고 공사조직과 지휘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중기계와 연유보장 등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음
- 지금 도에서는 1단계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2단계공사준비를 다같이 밀고나감
- (주체) 자강도의 일군들
- (위치) 자강도

□ 평안남도 평원군, 물길가시기 공사 완료(노동신문, 12.09, 5면)

- (내용) 평원군에서는 여러 지구의 중요구간 물길가시기를 성과적으로 끝냄
 - 물통과 능력을 훨씬 높여 군안의 많은 농경지에 생명수를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됨
 - 군일군들은 물길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월일-송석, 송화-화진, 덕포-남동지구 등 중요구간들에 대한 물길가시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함
 -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수만㎡의 토량이 처리되고 수십㎞의 중요구간물길가시기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됨
- (주체) 평원군의 일군들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평안남도 평성시, 하천정리공사 진행(노동신문, 12.26, 4면)

- (내용) 평성시에서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강하천정리와 함께 많은 구간의 하천정리공사를 진행
 - 시에서는 큰물피해위험도가 높은 자모리일대의 하천정리공사를 강력히 내뱉
 - 시에서는 지휘력량을 강력히 꾸리고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 길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작업과제수행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
 - 토랑처리, 막돌운반 등을 위한 집중수송대를 조직하여 공사가 일정대로 진척되게 한 결과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바닥파기와 제방공사 등이 계속됨
- (주체) 평성시 책임일군들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황해북도 장풍군, 재해 방지 사업 추진 중 (조선신보, 07.10, 2면)

- (내용) 큰물과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보호벽설치, 옹벽보수, 물도랑정리 등을 진행 중임
- (위치) 황해북도 장풍군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Tel 042-866-8326 Homepage <http://lhri.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